

2010 연세대학교 제 12회 여성제

몸이 없어졌다

27일

개막식

〈없어진 몸들의 생애사〉
13시 중앙도서관 앞 민주광장

개막 축하 공연

〈없어진 몸들의 초대〉
16시 30분 중앙도서관 앞 민주광장
출연진: 연세대 분화 풍물패, 늘푸른소리, 발레동, 사자, 미디어

영화상영

〈오버 더 월〉+〈꽃수염과 십자수〉
19시 학술정보관 2층 멀티미디어센터 미디어감상실

28일

낭독회

“세 개의 목소리 낭독회”
13시 중앙도서관 앞 민주광장

강 연

〈젠더 전쟁에서 젠더 유희로 - 몸과 이원 젠더에 대한 비판적 재고〉
19시 위당관 B05
강연자: 차혜

29일

폐막식

“공간 비틀기 개할라: 곱게는 안 죽는다”
16시 30분 중앙도서관 앞 민주광장

콘서트

“없어진 몸들의 콘서트”
19시 30분 백양관 강당
출연진: 한남, 레드컬, 스왐 시스터즈, 뽕초와 썬티

27~29일

전 시

“모씨가 없어졌다”
오전 10시 ~ 오후 6시 중앙도서관 앞 민주광장 전시장

※ 모든 출연진과 장소는 변동 가능합니다. 변동 시에는 12회 여성제 블로그(nobody2010.egloos.com)나 기타 홍보물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2대 총여학생회 경계를 울트리며 차오르는 이야기 <speak-out>

전화 02)2123-3645 홈페이지 web.yonsei.ac.kr/ysfem 메일 speak-out@yonsei.ac.kr

12회 여성제 블로그 nobody2010.egloos.com

2010 연세대학교 제 12회 여성제

몸이 없어졌다

주관 연세대학교 제 12회 여성제 <몸이 없어졌다> 기획단
주최 제 22대 총여학생회 경계를 울트리며 차오르는 이야기 <speak-out>

CONTENTS



nono0003

몸이 없어졌다

- 02 몸이 없어졌다
- 05 몸 말하잖아: 집경지대로서의 몸/행위매개로서의 몸
- 10 제 12회 여성제 <몸이 없어졌다>

없어지는 몸

- 15 성별이분법적 지형의 몸: '꽃' 한 당신에게
- 18 여성됨의 서사: 나의 스토리텔링
- 21 나에게
- 24 목록

만들어지는 몸

- 27 사라진 몸들의 시대
- 31 외모지상주의가 말해주지 않는 것들:
외모지상주의의 경계와 양어에 대해서
- 35 연예인을 통해 본 몸을 둘러싼 논의들

몸이 몸을 말하다

- 40 몸은 편찮지가 않았다
- 42 되는데로 타자치가:
유동하는 섹슈얼리티, 유동하는 몸과 고통과 환희와
- 49 섹스-젠더를 둘러싼 범주의 대안적 재구성:
몸의 경험을 중심으로
- 54 뜬어 맞춰지는 고통, 우울에 관하여
- 59 폭식, 거식, 어떤 식으로든 나는 괴물이 아니다
- 64 거울보기
- 68 후기

해질녘 신혼을 통과할 때

몸은 두근두근두근두근 사랑말방으로 흘날려
눈과 눈동자가, 손가락과 손톱이 따로따로
심장과 심장박동이, 입술과 혀가 따로따로
살해된 몸들의 오장육부가 부유하는
저 눈부신 광경이 보이지 않나요
저기 눈동자 하나가 막 별처럼 파열하는 중인데요

침마침 쏟아지는 비를 흠뻑 맞고도

몸은 왜 투명해지지도 녹아내리지도 않는 걸까
갈게 몸을 끌며 차게 식은 방으로 돌아간 자국에
곰팡이꽃이 피었다
늑둑하고 축축하기 짝이 없는 생에서
오래도록 함께 그 습기를 호흡하며 젖은 몸들을
일으키다가 쓰러지고 일으키다가 쓰러져도

웃는 몸 우는 몸 아름답거나 추악한 몸 일그러지고

뒤틀리고 뒤범벅된 몸, 몸, 몸들.....

없어진 몸들이 하나 둘 늘어나는 동안 세상은 입을 씻었고

세상의 눈먼 의지를 비껴나 몸들은 스스로를 이리저리 굴렀다
없어지는 것들, 살해, 죽음, 고통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되어도 좋다
무엇도 아니라서 가난하고 아름답지 않은
몸들의 파라다이스로 가자
당신 안에 있는 곳으로 흐르자



몸이 없어 졌다

몸을 직시한다는 것은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몸이 구석구석 제 모습을 드러낼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온데간데 없어진 몸의 자취와 맞닥뜨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누구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틀어려 하지 않았는지 의아할 지경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몸이 없어진 채로 나는 살아왔을까? 아니 어떻게 이걸 몰랐지? 몰랐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일상에서 느닷없이 몸서리치게 하는 낯선, 역겨움, 혐오, 우울, 고통과 같은 몸의 느낌들을 외면해버렸을 따름입니다. 너무나도 확고하게 몸이 있다고만 굳건히 믿어오고 들어오는 동안 나의 몸 너의 몸이 없어지는 줄도 몰랐지만, 기실 나의 몸 너의 몸은 곱게 없어지지만은 않았습니다. 낮게 구토하고 비명 지르는 몸의 언어가 내 몸 속 어디에선가 울려오고 있었으니까요. 몸이 없어졌음을 깨달은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몸은 태어나자마자 생물학적/의학적으로 외부성기의 모양에 따라 두 개의 성별로 구획되어야 한다. 여기에 한 치의 의심은 없다. 예외인 몸은 수술로 교정하러 구획된 몸은 죽기 전까지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이성애자 '여성/남성'임을 연기하러 이러한 명령에서 항상 이탈 중인 몸들을 몸의 지배 서사에 부합하게 되돌리려는 끊임없는 교정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몸은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등 몸에 질문을 던질 수 없게 하네요. 우리가 지금껏 익숙해져야 했고 있다고 여겨야 했던 몸은, 몸의 지배 서사에 맞춰져 볼 수 있고 읽어낼 수 있었던 몸에 불과합니다. 그 외의 몸들은 불가능하다고 주장되었기에, 우리는 서로의 몸을 독해해 낼 수 없었고 오독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날 것의 생명력을 가진 몸의 총체로부터 '여성/남성' 두 개의 몸만을 뽑아내고 나머지 몸을 박탈하는 것 이렇게 몸은 살해당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몸에 문제제기 하

지 않은 채로 "각자의 몸은 모두 다르고 다양한 거 아니야?"라고 쿨하게 말하는 건 몸에 관해 침묵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각자의 다름과 다양성 역시 정해져 있는 규범과 정상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성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사하고 흠잡을 곳 없어 보이는 아름다운 여성을 바라보면서, 그녀가 제모한 털들, 일상적으로 느끼는 음식에 대한 죄책감, 마르고 근육 없는 몸으로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다는 공포, 성애화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등등 다 언급할 수도 없는 부대낌을 삭제해버린 채로 아름답고 섹시함만을 보는 게 뭐가 그리 다르고 다양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젊고 아름답고 건강한 이성애 여성으로 여겨지지 않는 몸은 즉각적으로 배제해버리는 마당인데요. 지배규범이 세밀하게 구획해 놓은 몸에 문제제기 하지 않은 채로 다르고 다양한 몸이 가능하기는 한 건가요? 이러한 은폐 속에서 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몸은 원래 그렇다"라는 말과 "몸은 다르고 다양하다"라는 말은 얼핏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지배 담론 내에서 하나의 맥락으로 겹쳐지게 됩니다. 몸과 성의 정상성이라는 기저에 깔린 관념은 도전받지 않은 채로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차이들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숨겨버리고, 이 차이들을 '제외하면' 모두 다르고 다양할 수 있다고 쿨하게 인정해버리는 은폐의 공작이 공공연히 자행되는 것입니다. 지배담론은 이러한 아이러니로서 몸을 포획했습니다. 서로 충돌하는 듯이 보이는 두 개의 관점은 기실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면서 몸을 직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근대의 몸에 관한 인식론과 의료 기획, 신자유주의 시대의 기획 가능한 몸, 가부장제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의 성/별이분법 매트릭스의 교묘한 합작이라 하겠습니다.

몸을 분석하고 관찰하고 진찰하는 사이, 몸을 자원화하고 기획하는 사이, 몸은 철저히 타자화 되고 대상화 되어 갔습니다. 그러한 오랜 맥락 속에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나의 몸과 너의 몸을 유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어찌까지는 있었던 몸이 오늘 아침에는 갑자기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언제나 각자가 살아가는 의미망 속에서 몸은 폭력적으로 없어지기도 하고, 몸의 경험의 재구성과 의미화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한다는 말이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몸은 여러 가지 좌표 속에서 실시간으로 위치지어지고 경합합니다. '여성/남성'이라는 이분법적 범주에 기반하고 있는 성/별정체성과, 나이, 계급, 민족, 인종, 역사 등 가능한 좌표들의 경우의 수는 무수합니다. 이 좌표들을 경계 짓는 지배적인 담론에 의하여 내 몸은 어떤 방식으로 진 배치되거나 배치되지 않거나 해왔습니다. '여성/남성', 이성애자/비이성애자, 장애인/비장애인 등으로 경계지어지는 순간, 몸의 어떤 부분만을 볼 수 있게 되고 어떤 부분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몸은 가차 없이 쪼개어지고 사정없이 찢겨져 나갑니다. 지배규범에 부합하는 몸은 살아남지만 거기에서 밀려난 역겹고 낯선 몸은 살해당합니다. 정상적인 아름답고 건강한 이성애자 '여성/남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꿈틀거리고 분열증식 하는 몸을 흔적 없이 빠르게 잊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회적 소수자', '비정상적인 변태'로 살아가게 되겠죠. 아무리 평범해 보이는 그 누구의 몸일지라도 이러한 과정을 수월하게 통과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몸은 그 기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몸을 어느 한 가지의 이야기로 설명해내려고 해도 몸의 일시적인 단면만을 담아내게 될 것입니다. 몸은 딱 떨어지게 경계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계들이 충돌하고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점경지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내 몸은 지금 어떤가요? 몸을 붙박아 놓는 단조로운 지배규범으로부터 눈을 돌릴 때 비로소 몸들의 가변적이고 임시적인 측면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각자가 맺고 있는 관계와 맥락 속에서 몸들이 유동하고 파열하는 모습이 눈을 채우고도 남아 흘러넘쳤습니다. 이렇게 생동하는 몸을 살해해온 역사가 참으로 길었더랬으나, 한 번 그 장면들을 묵도하고 나니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잊고 있었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 일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끔찍했던가를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이리저리 노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몸은 하나가 아니라 정체화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다른 몸과 만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몸을 말하도록 하자고 마음 먹었을 때, 몸은 이렇다 라고 정의하지 않을 때, 몸은 순간 순간 급변하는 장면들을 상영하기 시작하였고 우리는 이를 쫓아 더듬더듬 받아 적어 내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몸을 직시하는데 있어 단초가 되었던 몸의 반응, 몸의 발화는 달랐으며 우리는 이것을 몸의 "잉여"라고 불렀습니다. 쿠키반죽을 쿠키틀로 찍어내면 어김없이 가장자리가 남는 것과도 같이, 각자의 몸을 어떤 범주로 명명하고 포섭하고자 해도 결국 남게 되고, 보이지 않게 되는 몸이 있었던 까닭입니다. 내가 이성애 젠더 규범에 끼워 맞춰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반증으로서 폭식/거식과 같은 몸의 고통이라든지, 색수열리티에 관련하여 서로 다른 해석이 통용되는 공간(예를 들어 이성애 여성으로 간주되는 공간과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차이)에서 내 몸의 같은 부분일지라도 다르게 해석되고 다른 정체성의 표징으로 간주되는 것이라든지. 혹은 이성애 '여성'/'남성'의 서사로는 매끈하게 꿰맞춰지지 않는, 어떤지 여자에 같지 않았고 유별나고 일탈했던 기억으로 남아있는 경험이라든지, 어떤 정체성이나 범주로 명명하고 이에 따라 붙는 서사들로 설명해보려 해도 설명되지 않는 목욕탕, 공중화장실과 같이 성별화 된 공간에서 몸의 불편함과 같은 것들..... 하얏고 가느다란 팔에 달린 저드랑이 털, 가녀린 몸매에 굵고 허스키한 목소리, 굴곡 있는 가슴과 턱수염과 음경이 동시에 있는 몸, 장애가 있는 몸 등 지배적인 몸의 서사에 부합하는 배치에서 벗어난 몸과 맞닥뜨렸을 때의 치미는 감정을까지. 나의 몸의 잉여는 얼마든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좀 감이 오시는지? 빈말이 아니라 몸이 정말로 없어졌습니. 몸이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신화이니까요. 사회에서 몸이 존재 가능하다고 규정해놓은 방식은 철저하게 성별화 되어 있으며 '여성'/'남성'의 몸을 발명하고 조형해냅니다. '이상적인 이성애자 여성'의 몸을 규정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재생산이 가능한 몸으로 환원하려는 갖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지배규범은 어떻게 몸을 통해서 재현될까요? 여기에서 '여성'으로 불리우거나 '여성'으로서 정체화 하고 있는 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그로 인하여 몸이 없어진 이들의 없어진 몸이 왕왕 제 얘기를 꺼낼 때, 몸을 없애려는 시도는 어떻게 붕괴할까요? 그/녀들의 없어진 몸은 그/녀들의 정체성, 색수열리티, 욕망과 아름다움과 같동하고 충돌하면서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없어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개인의 생애사 속에서 때 순간 몸이 재구성되고, 이러한 몸들이 만나서 관계 맺을 때, 어떤 몸이 드러나게 될까요?

몸은 항상 내가 아닌 그 무엇으로 타자화 되었고, 스스로는 말할 수 없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내가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몸을 말한다"는 건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거겠조. 그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몸의 경험을 따르기로 떼어놓고 예시로 들면서 무언가를 설명하려다 보면 없어진 몸은 점점 더 파편화 되어버리고 파악할 수 없는 무엇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실패의 과정을 지나, 몸을 통째로 들이 밀어보고 서로에게 단초가 될 수 있는 몸의 반응들, 발화들을 불러내고자 합니다. 몸의 "잉여"의 연쇄작용이 없어진 몸의 없어짐을 인식하게 하고, 없어진 몸의 생애사를 들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몸에 직면한 한계들을 온 몸으로 겪으면서 생생하게 살아 가고 있다는 것을 한번 긍정해 보렵니다. 어렵건 괴롭건 몸의 경험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여기에서부터 파고들 때 지금껏 이야기되지 않았던 무엇이 말을 건네올테니까요.

자, 그럼 본격 제12회 미스터리
호러스릴러 여성제
몸이 없어졌다 로 출발!

"아, 나 여기까지 머리가 있으면 어쩔 거 같아?"

펠자의 가까운 지인 중 한 사람은 최근 모발 이식 수술을 받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그녀는 종종 자신의 M자형 이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곤 했지만, 이렇게 진지하게 모발이식수술을 고려해본 건 최근에 와서야의 일이다. 요즘 텔레비전에 건강/미용 프로그램에 탈모에 대한 주제가 자주 다뤄지면서 어떻게 하면 이 몸의 일부분을 조작하고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났다. 예전에 비해 "수술"이라는 말이 가진 무게도 평균적으로 가벼워진 것 같다. 나는 그녀의 생각을 듣자마자 그녀에게 재발하지 말라고 애원했다. 물론 가장 효과적인 설득 멘트는: "아, 왜~ 지금도 충분히 '예쁜' 데! 언니 이마 모양 바뀌면... 막... 언니 아닌 거 같을 거 같아. 이상해~ 하지 마. 응?"

그녀는 그녀 허벅지에 있다는 "셀룰라이트"도 싫어한다. 그녀로부터 "셀룰라이트"가 뭔지 배운 날, 나는 괜히 내 허벅지의 살을 집어보았다. 팔에 여성주

의자를 지향하는 인간인지라, 너무 노골적으로는 말고 적당히 은밀하고 재빠른 눈길로 내 허벅지에도 그 셀룰라이트라는 게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며 말이다. 키가 큰 그녀는 가끔 자기 멍치가 너무 커 보이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도 한다. 난 높은 곳에 있는 물건도 바로 꺼낼 수 있고 기성복을 살 때 바지 길이를 안 줄여도 되는 키 큰 그녀가 부러운데 말이다. 그녀의 몸은 그녀의 것이니까, 내가 그녀의 몸에 대해 혹은 그녀 몸에 대한 그녀의 결정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해도 되는 건가? 그녀의 몸은 그녀의 것이니까..... 잠깐, 그녀의 몸은 그녀의 것인가? 내 몸은? 잠깐, 잠깐, 우리 모두의 몸은? 우리 모두... 각자의 몸은 오롯이 우리 각자의 것인가?

1) 셀룰라이트란 지방세포가 혈관 내에서 부종을 일으켜서 단단하게 뭉치는 구조적 변화로 인해 피부에 요철이 생긴 것을 일컫는 말로, 주로 여성의 허벅지, 엉덩이, 복부에 발생한다. 셀룰라이트는 질환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최근 "미용적 목적"으로 이 셀룰라이트를 없애기 위한 시술이나 소위 "바다 솔리팅" 크림 등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일반 지방층과 달리 운동으로도 잘 없어지지 않아, 최근 몸에 관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없어지지 않는 볼 보기 싫은 지방 덩어리" 정도로 이해되고 있기도 하다.



몸 말하겠어:
접경지대로서의 몸/
행위매개로서의 몸

규범, 범주, 그리고 접경지대로서의 몸

여성주의는 지금까지 성별이분법에 따라 특정한 역할과 위치를 부여하는 젠더 규범에 질문을 던지고 그것의 신화를 해체하려고 노력해 왔다. 많은 사람들이 젠더 규범과 개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해왔다. '젠더 경합(gender dysphoria)'에 대한 정의나 해석도 다양하다.²⁾ Holly Devor는 그것을 개인이 젠더 규범과 갈등하거나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한 반면, 한국의 퀴어 문화 활동가인 루인은 개인이 젠더 규범과 갈등하건 편하게 받아들여진 혹은 부정하건 긍정하건 상관없이, 젠더 규범과 관계 맺는 방식과 젠더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 모두를 포함한 것으로 해석한다.³⁾ 만약 그 '젠더 경합'(한국어 표현)을 더 확장해서 해석하면 어떨까? 젠더 경합은 개인과 규범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규범과 규범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젠더 규범은 반드시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 하나여야만 하는가?

규범 역시 그 순간 맺고 있는 관계와 몸이 위치한 공간에 따라서 유동적이다. 이성애 젠더규범이라고 불리는 것도 여러 얼굴을 지닌 존재이다. 예컨대, TV의 (이성애) 소개팅 프로그램에서 여성 출연자가 무대에서 소위 '섹시 댄스'를 출 때와 그 여성이 사귀고 있는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남자의 부모님을 찾아뵙려고 할 때, 이성애 젠더 규범은 그 여성에게 각각 다른 모습의 몸을 수행(perform)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곧 성별이분법을 기반으로 한 젠더 규범(들)이 으레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내적으로 완결되어 있는 것도, 절대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젠더 규범 그 자체가 철용

성 같다고보다는, 그 규범을 지키려는 사회의 노력이 철용성 같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것이다. 우리의 몸은 사회적으로 그 몸에게 맞는 것으로 간주되는 젠더를 거부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 열심히 수행하려고 하지만, 그 젠더(여성성, 남성성, 부치 등등) 역시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므로 항상 줄타기하는 몸이 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여성성'의 정의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몸은 이런 경합의 장소이다. 이런 경합은 젠더 규범과 개인 혹은 여러 젠더 규범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둘러싼 그 외 수많은 범주(민족, 계급, 인종, 섹슈얼리티, 나이 등)에서도 일어난다. 이 많은 범주와 그 범주에 따른 규범들이 우리의 몸 위에서 서로 경합하고 타협하고 소통하며, 또 때로는 자아분열을 일으킨다. 그래서 최근의 연구자들은 몸을 '접경지대'에 비유하기도 한다. 내 몸 안에는 한국인도 있고, 한 부부의 딸도 있고, 20대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양성애자도 있다. 그러나 내가 월요일엔 한국인으로, 화요일에는 딸로, 수요일에는 20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 모든 범주는 항상 내 몸 위에서 만난다. 어머니에게 예쁨 받고 싶은 딸로서의 정체성과 내 성적 지향에 대해 어머니에게 솔직히 말하며 오순도순 이야기하고 싶은 딸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내 몸은 때때로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경직되고 웅얼댄다. 지금 내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다가도 "여자 헤어스타일은 너무 안 예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좀 그런가...?' 하며 다시 거울을 보기도 한다. 그 순간 그 말을 듣는 것이 싫었는데도 이상하게 거울을 다시 보게 된다.

논의를 더 적극적으로 확장시키자면, 여러 가지 범주와 그것들의 경합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 예를 들어보자. 지난 8월의 어느 날, 우리 여성계 기획단은 여성제 준비 세미나를 하던 중, 각자의 가족에서 가장 얕은 잠을 자고 가장 조금 자는 이가 대부분 50대 여성인 자신의 어머니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 때 우리는 "너희 집도? 너희 집도?" 하며

그 "한국 어머니의 몸"은

결코 당연한 것도 원래 그런 것도 아니며,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다른 사람의 몸을 먼저 챙겨주기 위해

가장 늦게 밥을 먹고 가장 일찍 일어나는 몸으로

훈련되어버린 우리 엄마의 몸을

눈으로 보고 코로 맡고 팔로 안을 때

나는 때때로 알 수 없는 자괴감을 느껴야 했다.

조금 놀라워했다. 한국의 가부장제에서 "어머니"의 몸을 잠을 잘 설치하는 몸으로 만드는 어떤 경향/힘이 있음에 조금 소름이 돋기도 했다. 그 "한국 어머니의 몸"은 결코 당연한 것도 원래 그런 것도 아니며,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다른 사람의 몸을 먼저 챙겨주기 위해 가장 늦게 밥을 먹고 가장 일찍 일어나는 몸으로 훈련되어버린 우리 엄마의 몸을 눈으로 보고 코로 맡고 팔로 안을 때, 나는 때때로 알 수 없는 자괴감을 느껴야 했다. 가족 내 다른 구성원들을 돌보고 그들이 집 밖의 "사회"에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을 가정 내에서 담당하는) 노동을 가정 내에서 거의 전담하는 사람으로서 30년 넘는 시간을 살아온 엄마의 몸 옆에 붙어있다 보면, 가부장제 구조 하에서 내 몸 역시 엄마의 몸을 뜯어먹으며 성장한 것은 아닌지 하는 마음 때문에 내 표정은 어느새 울상이 되고 만다.

몸을 경합의 장소로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 몸의 단면을 보는 것과도 같다. 그 수많은 '현재'의 단면들을 통시적으로 엮으면 그것은 곧 역사가 된다. 이런 점에서 몸은 역사적 기억을 담는 장소이기

도 하며, 그 역사적 기억에는 식민지 역사, 가부장제의 역사, 특정한 경제 체제의 역사 등등 모든 역사가 포함된다. 지금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대도 시간이 흐르면 (과거로서의) 역사가 될 것이다. '사회적'인 것/공공적인 것이 부재한 신자유주의 사회의 핵심은 우리 삶을 꾸려가기 위한 거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지운다는 것이다. 의료도, 노동도, 교육도,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도, 주거도 모두 모두 개인 즉 사적 영역(시장)이 알아서 해야 한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 받는 신자유주의적 개인에게 남을 돌볼 만한 여유가 있을 리 없으므로, 점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내 몸통아리 하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도 커져가고 있다.⁴⁾

사회에 권력을 행사 해본 기억이 별로 없는 우리는 사회에 하지 못한 권력행사 욕구를 우리의 몸에게 풀며 우리 자신의 몸을 식민지화하고 있다. 동안, 식스

2) 이 다양성은 일정 부분 언어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영어 dysphoria는 불쾌감, 불편함, 혹은 삶에 대한 불만족을 의미하는 반면, gender dysphoria를 한국어로 번역한 표현인 '젠더 경합'에서 경합은 '서로 맞서 거침+단일한 사실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로 갈리는 것'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래서 '젠더 경합'이라는 한국어 표현을 쓸 경우, 확장된 해석을 떠올리기가 더 쉬운 것 같다.

3) 루인, 2008, '범주와 명명, 그리고 경계지대', 퀴어이론문화연구모임 WIG, '젠더의 재발견을 위하여', 223쪽

4) 한국 사회에서 가끔 위 문장의 '내 몸통아리' 자리에 '내 (이성애 혐가족)'이 들어가기도 한다.

때, S라인을 비롯한 수많은 몸의 라인들, 거드랑이에 남은 마법 같은 레이저 제모 시술의 흔적들, 매년 반복하는 다이어트 등등... 이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대로 기획 당하느라 지친 몸은 그 자체로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기록된 텍스트이기도 하다. 후세의 역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자기 몸에 "투자"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도 풀고 자신의 경제적 안정도 꾀하려 했으나 안타깝게도 그 모든 시도들은 결국 그들의 몸을 갉아먹었노라고 기록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우리 몸에 새겨지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후폭풍이 우리 몸에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끼치는 이 모든 과정은 거의 대부분의 사회 현상이 그렇듯이 젠더화되어있다.⁵⁾ 똑같이 '다이어트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래서 자기관리에 게으른 몸'으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외모 관리가 '자기 관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여성의 삶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행위 매개(agent)로서의 몸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몸이 단순히 여러 규범이 만나는 장소 혹은 그 경합의 결과물로서의 측면만 갖는 것은 아니다. 몸은 여러 규범 사이의 역학을 담아내는 그릇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규범을 재생산하거나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매개(agent)가 된다. 임옥희는 부르디외가 사회적 자본⁶⁾ 개념을 차용하여 몸의 계급화를 설명한 것에 대해 논하며 "도시에서 살면서 헬스, 웰빙, 요가 등을 통해 관리된 몸과 그렇지 않고 방치된 몸은 육체자본에서 현저한 차이를 드러낸다고 지적한다."⁷⁾ 경제적 계급은 몸을 통해 특정한 취향/아비투스(예컨대, 잘 관리된 늘씬한 '여성성 대표' 몸 혹은 식스팩이 새겨진 '남성성 대표' 몸/ 똑바르고 도도한 걸음걸이 등)로 이어지고 그 육체자본은 곧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얻어지는 사회자본을 축적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다시 경제자본을 획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소위 잘생기고 예쁘고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

의 경우 취업을 할 때 더 유리한 건 물론이고, "결혼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사회경제적으로 상류층에 속해 있는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도 높아진다. "경제자본→취향/아비투스를 담은 몸(육체자본)→사회자본&경제자본(어떤 경우에는, 경제자본→몸→사회자본→경제자본)"으로 이어지는 고리에서 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리를 너무나도 잘 꿰뚫어 알고 있다. 그리고 이 고리가 결코 무성적이지 않고 성별화되어 있어, 개인의 성별에 따라 그 고리에 대해 느끼는 무게가 다르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학벌이나 사회자본 등 또 다른 종류의 자본이 부족할수록, (얼마만큼의 돈이 있다면) 비교적 단기간에 획득 가능한 육체자본에 매달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 후 바로 취업하려고 생각 중인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의 성형수술은 더 이상 순수하게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이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 역시 얼마나 사회에 의해 큰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는지를 차치하고서라도-에서만 원인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다.

육체자본으로서 몸이 어떻게 사회구조를 재생산하는 데 일조하는지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보자. 평일 아침 10시경 TV를 틀면 종종 출산 후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금세 날씬한 몸으로 되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냉창고 정리도 깔끔하게 하고(!) 아이들에게도 최고의 것만을 선사하며 잘 키우고 있다는 여성 연예인들의 "사생

5) '젠더화되어있다' 혹은 '성별화되어있다'는 것은 1차적으로 성별 차이가 권력화 혹은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꿔 말하면, 어떤 권력 구조나 제도 등이 성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6) 아비투스(habitus)는 개인의 몸에 내재화된 구조이면서 동시에 개인의 행위를 구조화/형성하는 구조이다. 이 아비투스 혹은 취향은 "몸을 통해 드러나는 계급의 문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부르디외는 물질적 재산-경제적 계급-에 근거한 생활양식을 개인들이 자발적인 선택이나 선호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현상에 대해 논하며, 어떻게 이 취향/아비투스에 따른 구별짓기가 일어나는지 분석한다.

7) 임옥희, 2010, "체식주의자 벨파이어" 190~191쪽. 강조는 필자의 것. 이 말을 사생활이라 부르고 있지만, 과연 그들의 이 생활이 사생활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생활의 영역은 주로 개인의 선택이나 의지라는 말로 설명되기 일쑤지만, 실제로 그 "사적 영역"이라는 것은 그것의 형성과 그것이 끼치는 효과의 두 측면 모두에서 정치적이다. 특히, 여성 연예인의 "가정생활"은 결코 사적이지 않으며 그것이 텔레비전에 방영될 때는 더욱 그렇다.

합"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대중매체는 임신과 출산과정에도 불구하고 '젊음'을 되찾고, 또 모성 이데올로기에도 부합해야 하는 여성성을 요구하는 사회시스템을 재생산하는 데 큰 힘을 보태고 있다. 그리고 그 재생산 메커니즘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몸(몸 이미지)이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젊은] 여자답게' 날씬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싶고, 그러면서도 아이를 편하게 안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성을 지닌 몸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은... 아니, 그 몸은... 다이어트 산업을 번창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암묵적으로 기존 사회의 규범적 메시지를 더 강화한다.

반면, 소위 '전복적인 몸'이라고 하는 몸도 존재한다. 보통 성별이분법에서 벗어난 몸으로 간주되는 퀴어의 몸(레즈비언의 몸, 트랜스젠더의 몸 등)이 그 대표적인 예로 여겨진다. 좀 더 구체적인 '전복적인 몸' 이미지를 찾아보려면, 한 때 마돈나는 기존 젠더 규범을 뒤집는 전복적/혁명적인 몸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그녀는 기존의 규범을 비롯하여 자유롭게 이성애적 판타지와 동성애적 판타지를 모두 무대 위에서 재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그녀가 아이를 낳고 육아에 좀 더 전념하는 모습을 보이자 어떤 이들은 결국 마돈나도 규범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규범에 '포섭된 몸'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양성애적 판타지를 자유롭게 보여주며 팝의 디바로 활동하던 그녀가 육아에 전념한다고 해서 그녀의 몸이 이제 규범에 포섭되어 버렸다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 양성에 성향의 엄마, 성적 터부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사는 몸을 보여주던 엄마 등등... 해석 나름이다.

사실 '규범을 전복하는 몸/규범에 순응하는 몸'의 이분법 역시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지배적인 사회구조를 100% 완전히 재생산하는 몸도, 규범을 손바닥 뒤집듯이 완전히 전복하는 몸도 없다. 개별 몸들이 젠더·

섹슈얼리티 규범과 경합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며, 그 다양성은 우리의 몸이 다른 사회적 범주(민족, 계급, 나이 등)와도 얽여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퀴어의 몸을 단순히 전복적인 몸으로만 보는 것도 문제적일 수 있다. 규범의 재생산과 변화를 무 자르듯이 나누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방향의 움직임이든 간에, 우리의 몸은 사회구조 안의 행위자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회구조에 영향을 끼치고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몸을 본다

예전에 난 내 몸이 온전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내 몸을 지배하려 드는 규범이 1개이고 또 눈에 잘 보이는 것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한 적도 있는데, 애석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만약 그랬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몸 말하겠어(=못 말하겠어)"를 외치며 답답한 가슴을 칠 필요 없이, 좀 더 단순하게 풀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다. 현실적으로 각각의 규범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며 유동적이다. 그래서 규범/비규범의 경계는 대체로 안개 낀 수평선 같다. 게다가 이런 규범이 한두 개도 아니고... 많다. 말 그대로 많다. 몸은 마치 국경마을처럼 다양한 관계가 얽혀있는 공간이다. (요즘은 굳이 지리적으로 국경이 아니더라도 모든 곳에 다양한 관계가 얽혀있고 어딜 가나 소위 '초국적(transnational)' 관계가 없는 곳이 없다.) 언젠가 철학 교과서에서 읽었던 '우리의 몸이 곧 소유주'라는 말을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재적인 사회적 맥락에서 다시 만날 줄이야... 경합의 장소인 접경지대로서의 몸과 사회 구조 재생산/변동에서 중요한 매개로 작용하는 몸. 몸의 이 두 가지 측면을 다시 고민해보며 내 몸을 본다. 당신의 몸도 본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것인가?

2010 연세대학교 제12회 여성제

몸이 없어졌다

9.27
월요일

개막식 <없어진 몸들의 생애사>

13시 중앙도서관 앞 민주광장

여성제의 개막을 알리는 목소리가 여성제 전시장소 앞인 민주광장에서 울려 퍼집니다!!! 각자 원하는 노래를 틀고 흥겨움을 온몸에 몰여, 없어진 몸들을 큰 화폭에 그려봅니다. 보지 않으려했던 몸, 지배서사에 삭제된 몸, 이미지에 부착된 몸 등을 쟁기기도 겹치기도 하며 그려 보아요.)

축하공연 <없어진 몸들의 초대>

16시 30분 중앙도서관 앞 민주광장

출연진: 연세대 분회 풍물패, 놀무른소리, 발바둥, 사자, 파니

여성제를 축하하며 지지하는 난봉꾼들을 모아라! 몸을 바라보는 정해진 이야기들. 그 지배서사에 맞지 않는 몸의 경험들은 무참하게 없어져 버립니다. 정해진 이야기를 조종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몸들의 공연이 한데 모였습니다. 그들이 풀어내는 새로운 이야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화상영 <오버 더 힐>+<콧수염과 십자수>

19시 학술정보관 2층 멀티미디어센터 미디어감상실

오버더힐

'성형수술을 하라! 그러면 당신은 달라질 것이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거울 앞의 내 모습에 대한 너 무나도 명쾌한 답처럼 보이지만 그 명쾌함만큼이나 많은 고민과 갈등을 불러옵니다. 사실상 앞의 말은 '아름다운 여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당신의 몸을 난도질 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강요나 다름없지요. 영화 '오버 더 힐'은 자신의 몸을 이러한 강요의 최전선에 배치시킨 모습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퍼붓는 이 말도 안되는 강요들을 감독이 어떻게 바라보는 지 함께 만나보고 싶지 않나요?

콧수염과 십자수

서로 말도 없이, 없는 듯이 지내던 부부의 삶에 갑자기 들어닥친 사건! 아내의 코 밑에서는 수염이 나기 시작하고 남편은 십자수에 탐닉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사건은 여/남이라는 이분법적 젠더와 섹슈얼리티 기제가 얼마나 허술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강제되는지 유쾌하게 폭로합니다.

9.28
화요일

낭독회 "세 개의 목소리 낭독회"

13시 중앙도서관 앞 민주광장

너, 그거 아니? 목소리는 지문과 같이 사람마다 고유한 거래. 그런데 말이야, 막 음파를 측정하고 그런거 말고 말이야, 그냥 들었을 때 목소리는 사실 때때마다 달라지잖아. 친구랑 말할 때랑 교수님과 말할 때랑 애인랑 말할 때도 다르고, 회의 때도 달라지고, 난 막 영어 쓸 때랑 일본어 쓸 때 목소리도 다른데- 발성도 다르고, 그렇게 때때마다 달라지는 목소리로 너나 나나 읽고 싶은 텍스트나 노래 웬변 등을 가지고 와서 낭독해 보는 거야. 뭔가 고유하다고 생각되는 그 목소리가 변화하는 때때와 그 때때마다의 느낌을 함께해보면 어떨까? 재밌을 것 같지 않아?

강연 <젠더 전쟁에서 젠더 유희로>

- 몸과 이원 젠더에 대한 비판적 재고

19시 위당관 B05 / 강연자: 지혜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여성'의 몸이 '다양하다'는 말은 '사람은 각자 다 다르지'란 '꼴'한 반응만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몸에 새겨진 이성/감성, 정신/육체, 남성/여성 등의 이분법이 본질적이라는 생각은 사실 허구이며 함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분법 안에 구겨 넣기에 우리의 몸은 그 이분법을 넘나들거나 벗어나는 훨씬 다양한 발화를 하는데요, 기존 논의의 한계와 모순을 짚어가며 몸의 다양한 발화를 더욱 긴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9.29
수요일

폐막식 "공간 비틀기 게릴라: 곱게는 안 죽는다"

16시 30분 중앙도서관 앞 민주광장

27일 월요일부터 연세대학교 곳곳에는 '시체표식'이 보인다. 그 곳은 건물의 진입로, 화장실, 식당과 같이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공간들이다. 표식엔 연세대학교란 공간이 얼마나 '비장애 이성애자 남성'이나 '사용자/서비스 수혜자'의 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는가와 어떻게 장애인, 비이성애자, 여성, 노동자의 몸을 살해했는가를 폭로하는 메시지가 놓여있다. 그리고 29일 16시 30분 살해당한 시체들은 민주광장에 모인다. 그들은 각자의 메시지를 들고 다이-인 퍼포먼스*로 살해현장을 재현한 뒤 사실은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재현하며 본관까지 행진한 뒤 다시 민주광장으로 돌아와 다함께 군무를 춘다.

*다이-인(de-in) 퍼포먼스는 저항의 표현중 하나로, 퍼포먼스 참여자가 죽은 모습을 몸짓으로 재현함으로써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죽은 모습을 보여줌으로 현 사회의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특징이 있다.

콘서트 "없어진 몸들의 콘서트"

19시 30분 백양관 강당

출연진: 한날, 레드걸, 스윙 시스터즈, 뽀빠리와 뽀뽀

우리는 몸을 잃는 데 있어서 '남성의 몸/여성의 몸'이라는 방식을 차용하고는 합니다. 그것은 '남성의 몸/여성의 몸'이 결국엔 본질적이고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남성의 몸/여성의 몸'이라는 이분법으로 해석해 낼 수 없는 몸들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없어진 몸들의 콘서트"에서는 이분법에 갖지 않는 혹은 이분법을 넘나드는 다양한 퍼포먼스, 댄스, 드레소 등을 통해 사실 그러한 구분들이 구성된 것임에 불과하며, 연기/연출 가능한 것임을 말합니다. 그 발화를 '몸으로' 직접 느껴보세요.

9.27~
29
삼일간

전시 "모씨가 없어졌다"

: 모씨가 없어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무도 모씨의 삶을 기억하지 못한다. 모씨는 어디로 갔을까? 모씨를 찾는 여정이 시작된다. 모씨의 흔적들에서부터 모씨의 삶을 되짚어 간다. 모씨의 역사를 훑어갈 때 마다, 모씨가 말을 걸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다시 한번 모씨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간다. 그 곳에서, 모씨를 만날 수 있을까?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앙도서관 앞 민주광장

"단서 1: 모씨의 몽타주montage"

모씨를 떠올리며 몽타주를 만들어간다. 언젠가 모씨가 내뱉었던 말들과 모씨를 향해 쏟아지던 렌즈들. 그 속에 담긴 수많은 이미지의 동굴 속에는 잘려나간 몸동아들이 기어 다닌다. 스멀스멀 기어올라 모씨의 몽타주를 뒤덮는 몸뚱이들. 구토가 치밀어 오른다. 모씨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다. 먹지먹지 뒤덮인 몸뚱이들 속에 모씨의 몸은 가려지고 잘려진다. 사라진다. 아무도 모씨의 몽타주를 그리지 못했다. 모씨를 조각할 수 없었다.

"단서 2: 모씨의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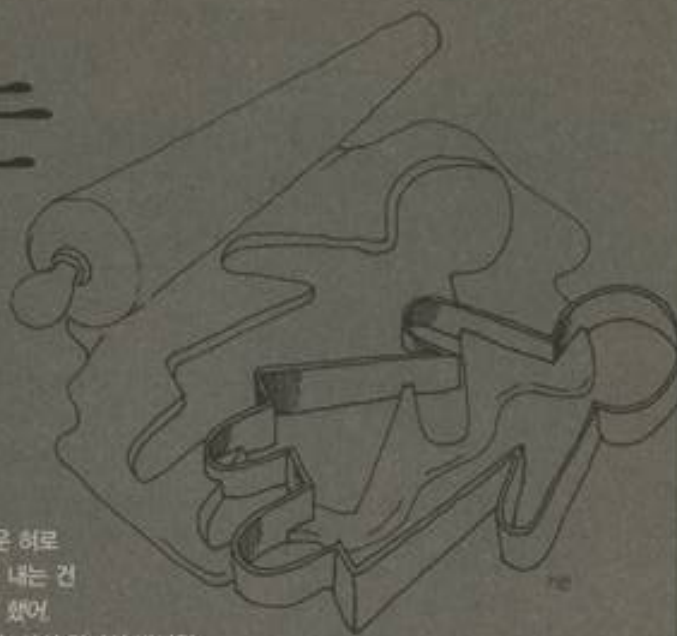
황급히 모씨의 방에 갔다. 모씨의 머리털이 온몸을 휘감으며 올라온다. 하지만 여전히 모씨는 없다. 모씨를 짐작하기 위해 모씨의 옷가지들을 뒤지고, 화장대를 어지르고, 화장실 변기의 토사물을 휘저었다. 버려진 초콜릿 봉지로 뒤덮인 책상 위로 모씨가 어른거린다. 분명히 이곳에서 모씨가 살았던 것 같다. 다급한 마음으로 모씨의 앨범을 뒤적거린다. 앨범에서 모씨의 흔적을 찾는다. 아! 모씨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단서 3: 모씨의 다잉 메시지dying message"

모씨가 사라지던 순간, 모씨가 있던 곳으로 갔다. 모씨는 없었다. 모씨가 남긴 흔적을 찾기 위해 또다시 여러 곳을 응시한다. 거울 앞에서 흐느적 거리는 그림자를 발견하고는 그 앞에 선다. 순식간에 그림자가 내 몸을 뒤덮어 온다. 이것은, 모씨의 다잉 메시지! 내 몸의 부분들이 검게 침식된다. 내 팔위로 잉여의 활자들이 기어다닌다. 모씨의 방을 흐르던 토사물들이 내 등줄기를 타고 흐른다. 모씨가 남긴 잉여의 흔적들이 내 몸에서 다시 살아움직인다. 모씨가 죽어 없어지던 날, 남겨진 잉여들이 기꺼이 생존한다.

* 공연장소와 출연진들은 변동 가능합니다. 변동 시에는 여성제 블로그나 기타 홍보물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변동정보와 여성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성제 블로그(nobody2010.egloos.com)에서 알 수 있습니다. (^____^)

없어지는 몸



마주 앉아, 세상에서 가장 빨갛고 날카로운 혀로
너를 핍하고 있다. 날 표적 삼아 명사수 흥재를 내는 건
재미있으니, 하고, 네가 쓴 화실에 비명횡사할 뻔 했어.
아주 고마워, 그런데 미안하게도 난 살아남았어, 다시 만나서 반가워.
사랑해, 살아난 채내귀산안양 귀기어리고 애뜻하고 매력있는 미소를
지으면서 나를 겨누던 사수의 활을 꺾어버리고 심은 욕망.

너는 내 ()한 피부를 겨눴고, ()한 다리를 겨눴고, 내 뺨치름을 ()하
다며 겨눴고, 애교 없이 뻔뻔한 태도를 겨눴고, 눈웃음치지 않는 눈을 어둡다며 겨눴지.
'답지 못한' 부분은 머리채를 잡혀 끌려나와 물을 맞았어. 갇혔는데 그 얼굴을 기억하며 나
는 누워있었어, 그 자리에, 마치 과거 반죽처럼, 수술대 위에 누운 환자처럼. '너 같은 게 나
를 상처입히게 두지 않겠어, 다시는……' 나는 우습게 바정한 어투로, 시뉘어 말했어, 관능
이 중박해버린 시체처럼, 수분이 말라버린 나뭇잎처럼.

지레 겁먹은 아이처럼 내 손으로 나를 도려냈고, 내 손으로 나를 꾸역꾸역 채워넣었어.
네가 나를 난도질하기 전에, 내 손으로, 나는 네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 네가 줄 고통의
뿔을 내가 먼저 뺏어버렸으니까, 간단했어, 쿠키반죽에 '표준'의 틀을 눌러 모양을 찍어내듯
도마 위에 나를 잘 펴질러 놓고 꼭! 그리고 의기양양, 단언컨대 완벽하게 마친 짓이야.

가실 이렇게 잘라내는 것은 살아있는 살이고, 살아있는 마음이었어. 절대 볼 바
깁의 밀가루반죽처럼 깔끔히 떨어져 나가주지 않아 이젠 나야, 나라구…… 팔이 조금씩 잘리
고, 발가락이 조금씩 잘리고, 쓸데없는 감수성이 잘려나가고, 생각이, 산념이 잘려나가고,
창란척하는 입이 막혀버리고, 고통에 머릿속이 뒤뉘어져…… 내가 망가져가는 기분이었어, 이
개같은 자식이.

나는 데굴데굴 누구와도 다른 모습으로 굴러다니고 싶었는데, 나만의 인상같은 색채
로, 나를 물들이고 싶었는데, 나는 두려워 나를 날조하고, 날조하고, 날조하고, 내 서사를 끊
어버려버린거야. 끝나지 않았어, 나는 내 몸의 역사를 다시 잊고 있어, 다시 쓰고 있어. 아직,
너 거기 있어야 해. 눈을 들어 나를 분명히 봐줘야 해. 어느 순간, 나는 네가 본 적 없는 빛
깔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네 눈이 멀도록 빛나고 있을 테니.

‘남자는 이러저러해야해’ ‘여자는 이러저러해야해’ 이러
한 성역할 규범에 대해 ‘요즘 세상에 그렇게 어딴?’ 라며
많은 사람들이 줄하게 넘긴다. 이것이 세련된 제스처라고
말이들 여기는 듯하다. 이러한 젠더규범은 고정관념이고
편견이니, 이러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너무 고
리타분하다고 말이다.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이 고정관
념일 뿐이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면,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
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또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했
다. 이러한 궁금증을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내면, 대부분
“몸! 몸이 자연적으로 다르지”라고 답변이 돌아오곤 한다.
‘임연히’ 신체조건이 다르므로 그러한 구분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다.

현재 과학에서 정의하는 그 ‘다르다’는 일차적 신체
조건은 염색체와 성기모양이다. 이 염색체와 성기모양이
도대체 뭐길래, 이분법적 성별은 모든 생활에 있어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 기반이 되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마
주한 상대방의 성별을 알지 못할 때에,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어 당황하게 된다. 마치 발바닥이 간지러운
데 신발을 신고있어 긁지 못하는 사람처럼 어쩔 줄 몰라 하

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다. ‘여성다움’ ‘남성다움’이 규
범일 뿐이고 사람들은 각각 다양한 모습을 할 수 있다는 그
‘쿨’한 전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면, 왜 외향으로 어
떤 사람의 성별을 알 수 없을 때 말들 그렇게 당황해하고
궁금해 하는 것일까? 정말 성별을 알지 못해 당황해 하는
사람들은 현대과학이 성별구분을 하는 일차적 신체조건인
염색체와 성기모양이 궁금한 것일까?

단순히 몸에서 염색체나 성기모양 그 자체로서만 본
다면 일상에서 큰 영향이나 의미가 있는 경우를 상상하긴
힘들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어느 신체부위, 위장
이나 털, 손가락의 둘레, 너비, 무게 같은 수치로 일상생활
이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상상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혈소판의 수치로 사람들을 분류하
여 각각의 다른 특성을 연구하고, 혈소판 수치를 기준으로
‘어떤 의복을 입어야 하는지’나 ‘화장실을 따로 사용하게
하는지’ 같은 모든 행동양식들을 분류하지는 않는다. 그러
나 이 사회는 몸의 여러 부분 중에서 염색체나 성기모양을
근거로 사람을 모두 두 가지 절대적 분류체계 ‘여성의 몸/
남성의 몸’으로 의미화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렇

성별이분법적 지형에서의 몸: ‘쿨’한 당신에게



계 구분한 몸을 사람들이 입장에서 계속 인식하게 하고, 때때로 포착하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이 가능한 것은 그 신체적 특성에 사회가 엄청난 의미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염색체나 성기가 남/여라는 구분에 있어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근거로 이야기되어진다. 이미 그러한 구분이 절대적으로 여겨지고 있으니, 남/여의 구분에서 벗어나는 염색체나 성기는 '예외'나 치료되어야 할 '병리'로 이야기된다. 성염색체가 XX이기에 여성이고 XY이기에 남성이라는 병리가 자연스럽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성염색체가 XO, XXY, XXX인 경우는 두 가지 틀로만 사람의 몸을 설명하는 논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들의 염색체는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법적 성별 틀에서 벗어난 몸을 인식하고 설명한 언어가 사회에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도 남/여의 몸 중 어느 하나로 '처리'되고 종용된다.(이러한 상황은 결국 남/여라는 성별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현실 조건을 반영하기도 한다) 결국 남성의 몸/여성의 몸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염색체로 성별이 구성되는) 구성된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 틀을 유지하기 위해 몸 자체가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남성/여성이라는 틀로 구분되지 않는 성기를 가진 사람들은 어릴 때 의사의 판단 하에 남/여 둘 중 한 성을 선택하여 그와 비슷하도록 수술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과 난소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클리토리스와 페니스 어느 쪽으로 구분짓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러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의사들은 보통 남/여의 한 성별을 정해 한 성의 규범적인 몸의 모양에 맞게 수술을 한다. 이러한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성의 몸/여성의 몸'이라는

것이 염색체나 성기모양 그 자체에서 우리나라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분 틀이 먼저 구성되고 거기에 맞게 몸을 해석하거나 맞추고 있음을 반증한다. 구성된 성별이분법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들로 몸의 형태나 특징들이 취사선택되거나 해석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단순히 호르몬, 염색체, 성기모양이라는 육체의 조건으로 성별이 나뉘는 것이라면, 유방이 발달한 남성의 몸,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은 여성의 몸 등을 접했을 때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자궁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매우 과학적이라는 구분에 따르면 이 여성은 여성이 아니게 되는가, 혹은 유방의 발달은 여성의 특성이므로 이 남성은 남성인가 여성인가. 성별이 과학적 사실에 관한 이름붙이기라면 이 경우 남성의 몸 여성의 몸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이러니가 되어버린다. 아니 애초에 왜 남성의 몸인지 여성의 몸인지가 왜 화두가 되어야 하는가. 여성/남성이라는 구분이 단순히 염색체나 성기의 모양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러한 구분기준에 맞지 않는 몸까지 그 두 가지 성구분에 끼워 넣어 '병리'나 '장애'로 남아 설명하려하는 것은 왜일까. 결국 수많은 차이를 중에서 그 일부분에 주목하여 그러한 구분체계를 만들어내며, 그 구분에 맞춰 몸의 차이를 취사선택하는 그 의도와 정치를 고민해야 하는 지점인 것이다.

이분법적 성별구도가 몸 자체로 자연스럽게 정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가 성별구도를 더 뒷받침하기 위해 내놓는 것이 성별 간에 신체적으로 어쩔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성차라는 지식이다. '남자는 '체질적으로' 여자보다 근력이 더 강하게 되어있고, 더 몸집이 크다'고 말해진다. '강한근력'과 '큰 몸집'이 '남성'과 동의어가 아닌데도 이러한 성차에 대한 지식이 절대적인 지표로서 사

회에서 통용된다. 일례로 개인의 의지, 조건 등은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자연히 무거운 짐은 남자가 들게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성차에 대한 지식이 기반이 되어 성별이 지표로 사용되는 상황을 찾아볼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에(혹은 기준을 두지 않을 수도) 성별이라는 지표가 왜 등장하는 것인지 한번쯤 의문스러워질 만하지 않은가. '남자니까' '여자니까'라는 말만으로도 여러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성별구분이 판단의 기준이 될 정도로 이미 '여성의 몸/남성의 몸'은 근력, 지각능력 등등 몸이 다르다는 세세한 규격 틀로 조형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은 (여성과 다르게) 이러저러하다'라든가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이러저러하다'라는 명제는 역의 형태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여성과 구분되는 남성의 특징이라는 것에 해당되는 몸을 모아보면 그것이 남성 집단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이러한 성차라는 지식은 성별이분법을 유지하게 하는 지식체계이다. 본질적으로 사람의 몸을 나누는 기준이 정말 존재하는가를 떠나, 이렇게 기존의 구분체계를 흔들고 몸을 내치기하면서 성별이분법체계를 유지시키려는 것은 소위 '객관적 과학지식'도 '본질적인 것'도 아니라 매우 정치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성역할 규범은 '쿨'하게 고리타분하다고 말하더라도, 성별구분자체를 의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앞에서 살펴본듯이 성별구분 자체가 '본질적'이거나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느꼈을 때, '쿨'하던 많은 사람들은 갖가지 젠더규범과 성역할들을 동원하여 그러한 성별이분법을 지키려한다. 예를들어 남성으로 스스로 정체화한 IS(Inter Sexual)인 사람의 몸을 알게 되었을 때,

사회는 그에게 그가 남성으로 인정 될 만한 남성성의 증거를 가져오라고 요구하게 된다. 만약 그가 뜨개질을 좋아하고, 수줍으며 여성적인 걸음걸이로 걷는다면 사회는 그의 남성성을 의심하고 심사(?)하려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성으로 정체화한 트랜스젠더가 소위 말하는 남성적 젠더규범을 수행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젠더규범을 판단 잣대로 삼아 그가 잘못 '선택'했다고 쉽게 말한다. 트랜스젠더들이 국가에 성별변경을 신청할 때, 국가는 그들에게 자신이 바꾸고자 하는 성별 정체성의 근거를 가져오라고 한다. 그 가져오라는 근거들은 그 고리타분하고 편견일 뿐이라면 성역할 규범 그 자체이다.

사람들이 '쿨'하게 성역할 규범이 고정관념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쿨'하게 성역할 규범을 존재하게 하는 성별이분법에서 눈을 돌려버리기 때문이다. 결국 성별이분법이 도전받지 않는 거대한 성벽으로 남아있는 한, 그 쿨한 말들은 공허한 메아리일 수밖에 없다. 성별이분법도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하나의 성역할 규범일 수 있다고까지는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성별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주민번호, 호칭, 의복 등 온 사회를 망라하며,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의 사회적 의미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것은 성별을 구분하게 하는 기준이 그만큼 강력한 것이 아니라, 성별을 나눔으로써 만들어가는 사회적 기제가 공고한 것이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여성의 몸/남성의 몸' 구분이 강력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고민해보고 그것에 물음표를 던져야 하는 시점이다.

by 난 Cod한 거 싫어 울루

여성됨의 서사: 나의 스토리텔링

Scene #0

intro.

고등학교 시절에는 2층에 교실이 있는 학생이 꽃 배달을 받았다는 소식이 꼭대기 층인 4층에 있던 내 귀에까지 들려온다거나 하는 일이 가끔 있곤 했다. 나는 학년도 다르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친구의 소곤소곤한 투로 진행되는 이야기를 통해 듣고는 했다. 우리가 소곤소곤 말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드러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었다. 왜냐면 미성년 고등학생이었던 우리는 성적 욕망이 없는 존재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적인 욕망'을 드러내서는 안 되었다. 학생이면 연애를 하면 안 되고 학생이면 단정해야 하고 학생은 세수만 해도 예뻐 나이이고 학생이면 굵은 구두를 신으면 안 되고 '학생이면, 학생이면, 학생이면...'으로 시작되는 규율들. 때문에 우리는 '성적인 욕망'의 단서를 드러낼 수 있는 행동들을 숨겨야 했고 그것들은 언제나 은밀하게, 선생님들이 포착할 수 없는 범위망 내에서 이루어지곤 했다. 하지만 '학생이면 단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무리 집요하게 주입되더라도 학생들은 '단정하지 못한' 이야기들에 손쉽게 들켜곤 했다. 대학교에 오고 성인이 되었다고 해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여대생'인 나의 성적 욕망은 여전히 꾸준히 식재당하고 있었다. 나에게만은 단지 다른 이들이 갖고 있는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는 역할만이 주어질 뿐이었다. 이상했다. '성인 여성'이 되었다기보다는 여성으로 '다루어진다'는 느낌이 더 강했다. 나는 갈등했고 고민했고 나는 우울했다.

여성에 대한 성애화는 생각보다 이른 시기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성애화는 대개 '2차 성장'의 특징을 보여줄 때부터 시작되는데, 이 시기의 성애화는 주로 '수치심'과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키워드로 읽어낼 수 있다. 여성은 대개 '2차 성장'이 시작되면서부터 자신이 성애화 된다고 느낄 때 수치심을 느끼도록, 그로 인해 폭력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스스로를 검열하도록 끊임없이 훈육 받는다. 예를 들어 6세쯤의 아동이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을 때에는 별다른 이야기를 듣지 않지만 중학생쯤의 여학생이 다리를 벌리고 앉으면 정숙하지 못하다고 바로 훈육되는 것이라든가, 어린 아이가 옷을 벗고 집안을 돌아다녀도 무어라 하지 않지만 중학생에 접어들어 여자아이가 옷을 벗고 돌아다녔을 경우에 그러면 안 된다고 혼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2차 성장'의 징후를 보이는 것은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몸의 시작을 알리는 지표로 간주되므로 그 때부터 여성은 '아기를 낳을 소중한 몸이니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한다.'¹⁾고 훈육된다. '2차 성장' 시기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시행되어 온 그간의 성교육(나는 아기를 가질 몸이야'라고 말하라고 교육 받는 것)들이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Scene #1

초등학교 5학년 때 보건선생님이 여자아이들만 모아놓고 만약 누군가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시도할 경우에는 '싫어요 안 돼요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하라고 가르쳤다. 교육이 끝난



후 애들이 계속 장난으로 그 말을 반복하며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살짝 스치는 상황에서도 아이들은 우스꽝스럽게 그 말을 반복했고 나는 그렇게 연출되는 상황들이 매우 우스웠다고 기억하고 있다. 넓지 않은 복도에서 두 어깨를 감싸 쥐고 '싫어요 안 돼요 만지지 마세요.'라고 외치는 '초딩'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이러한 '2차 성장'을 막 드러내는 시기를 지나 20대에 진입하기 전까지의 기간은 '성애화의 유예 기간'으로 볼 수 있다. '조심하라'는 훈육은 계속되지만 '학생이면 단정해야 한다.'는 말이 힘을 발휘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나는 인문계 여자 고등학교를 나왔다.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비평준화 시절에는 꽤나 높은 점수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었다. 사립학교인지라 꽤나 오랜 시간동안 재직해온 선생님들이 많았고 그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와 '비평준화 시절 당시의 학생들이 얼마나 단정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편이었다.

위에서 볼 수 있듯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한 학생'으로 간주되는 이들은 '학생이면 단정해야 한다.(학생이면 무성적인 존재여야 한다.)'는 명제만 벗어나면 그 어디에서든지(심지어 '학생'이라는 정체성으로 생활해야 하는 학교에서도) 성애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20대에 진입한 여성에게는 성애화의 요구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명확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도 이제 여자가 되어야지.'라는 말을 떠올려보자. 성인기에 접어들기 전까지 금지되었던 '성애화'적 요소를 제거한 그 모습들을 성인기에도 유지한 사람들 - 자신의 몸의 윤곽을 감출 수 있는 의상을 입고 다니고나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거나 자신의 머리카락을 하나로 꼭 묶고 다니는 사람들 - 이 주로 그런 말을 들을 것이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학생'일 때는 '복장불량'이라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20대에 진입한 여성에게는 '예의'라는 이름을 달고 '해야 할 것'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공식적 자리에서는 화장을 해야 한다거나 몸의 굴곡을 드러

내는 옷을 입어야 아름답다거나 다리를 모으고 앉아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그것이다. 연령대의 변화에 따라 여성은 이런 규율을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하도록 요구받는다.

Scene #2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단정한 것이 최고다.'라는 소리를 들었으나 대학교 오니까 부모님이 '차장(?)'을 허락했다. 중학교 입학 이후로 금지되었던 머리 염색과 파마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렌즈를 끼고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짧은 치마를 입어도 '망측하다'라는 말 대신 '예쁘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화장을 하고 있어도 욕을 먹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내가 파란색 새도만 칠했다 하면 갖가지 소라들이 날아든다.) '돈을 줄 테니 머리 좀 하고 다녀라.'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대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인사말에는 복장에 관한 말이 많이 나오곤 했었는데, 그런 말들에는 대개 이상한 추측들이 담겨 있었다. '소개팅이라도 있느냐.' 혹은 '요새 많이 힘드냐.' 같은 말들로 나뉘고는 했는데 그 추측들은 거의 항상 엇나갔다.

하지만 그러한 '예의'라고 간주되는 규율들을 내면화 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손쉽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갑자기 해야 하니 어리둥절하면서도 불편하고,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는 안내서가 있는 것도 아니니 더듬더듬 알아가야 해서 더더욱 어렵다. 그리고 규율들은 항상 티가 나지 않거나 날듯 말듯하게 드러나는 정도까지 개인 안에서 내면화되어야 한다. 만약 이렇게 '예의'라고 간주되는 규율들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성은 '수치심'을 느끼도록 교육받는다. 또한 이런 '수치심'의 연장선에는 '폭력을 당할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스스로 규율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이다. *다리를 벌리고 앉지 말 것. 성숙한 몸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신체 부위를 드러내지 말 것. 노출이 심한 옷을 입지 말 것. 욕을 부려줄 공개적인 장소에 드러내지 말 것.*

Scene #3

'화장을 하지 않고 어떻게 바깥을 다녀?'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에는 '말도 안 돼'라고 생각했으나 정작 내가 화장을 하지 않고는 집 바깥에 나갈 수 없게 되었던 것. 얼굴 위에 미친

1) 이 말은 성폭력 피해/성존자에게 흔히 말하고는 하는 '너도 조심해야지'라는 논리의 근거로 활용되고는 한다.

뺨이 올라오면 여드름을 바로 가라앉힐 수 없다는 좌절감과 당장 내 얼굴에 무언가 붉고 튀어나오고 건드리면 아픈 것이 올라와 있다는 것에 대한 이물감과 불쾌감이 겹쳐져서 감당할 수 없었던 것, 자꾸 만지면 뺨살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나갈 때에는 화장을 덧발라 가리던 것, 안경을 쓰고 집 바깥에 나가는 것 또한 나 자신이 견딜 수 없었던 것.

여성의 혼욕은 2차 성징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본격화되지만 20대에 진입하여도 여성은 여전히 혼욕된다. 둘 다 '혼욕'이지만 특히 후자에는 성애화적 요소가 추가되어 있다. 20대에 접어든 여성은 '학생' 시절과는 다르게 자기 몸의 색수업한 요소를 드러내기를 요구받음과 동시에, 그러한 의도는 감추어야 하는 모순되는 상황과 맞닥뜨리게 된다. 그러한 의도를 감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드러내거나 일련의 '성애화'를 거부하는 여성에게는 가차 없는 비난이 쏟아지거나 여러 형태의 폭력이 가해진다. 하지만 그것들은 너무도 손쉽게 정당화된다. 왜냐하면 그녀는 가부장이 지켜줄 수 있는 테두리 바깥의 여성이고 이러한 여성은 가부장이 '지켜줄 수 없는' 여성이기 때문이다. 가부장은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누군가(흔히 여성과 어린이)를 지켜주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그에 따른 기쁨을 느끼는 존재들이므로 이러한 여성은 가부장에게 위협적이다.

통제의 영역 바깥에 위치한 그녀는 가부장의 영역으로 포섭되어야 할 여성으로 여겨지며 가부장은 그녀를 포섭하기 위한 폭력을 그녀의 온몸에 가한다.

Scene #4

20대 초반이라는 나의 나이는 좋은 자원이 된다. 그런데 내 물리적 나이만 자원일 뿐이다. 20대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수많은 몸의 가능성은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 하나의 몸의 가치에 살해당한다. 나의 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윤곽은 자원이 되지 않는다. 사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

다. 화장도 사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옷을 입는 것도 내가 만들어서 입는 게 아닌 이상 내 마음대로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내가 만약 화장을 꽤나 질게 하고 다닌다면, 내가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밤거리를 거닌다면, 나는 성폭력의 위협을 느낄 것이다. 자원으로 여겨지는 나의 몸이 나 혼자 방길을 내 맘대로 쏘다닐 수 없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²⁾

그리하여 그녀들은 지속적으로 규율 하에서 행동하도록 혼욕된다. 2차 성징을 보일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혼욕은 '학생'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시기에는 '학생은 단정해야 한다.'는 명제에 따라 노골적 '성애화'를 금지한다. 하지만 그 명제는 가부장들이 꾸준히 행해온 '성애화'의 작업을 은폐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다. '학생은 단정해야 한다.'라는 명제는 '학생은 무성적' 존재이다.'라는 명제로 이어진다. 그것은 '학생은 성적 욕망을 가지지 않는 존재다.'라는 명제까지 다다른다. 그 명제 하에서 많은 '학생'들의 몸의 서사는 난도질당한다. 이렇게 난도질당한 서사는 20대 여성에게 노골적으로 드러난 성애화 요구를 통해, 가부장의 통제가 가능한 단조로운 몸이 아니면 살해당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살해당한 몸의 서사들을 직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비록 고통스럽고 명확하지 않아 더듬거리게 되겠지만, 이러한 시도는 사라진 몸의 서사를 찾기 위한 시작이 될 것이다.

by 성애화 네마저  씀

2) 사실 이것은 여성에게만 내기 수치를 느끼도록 그동안 계속 혼욕 받아 왔기 때문일 뿐, 내가 '단정한 성인 여성'의 몸을 하고 밤거리를 다니다도 나는 여전히 성폭력의 위협에 시달릴 것이다. 이러니저러니 내가 내 몸 하나 방길 마음대로 걸어 다니기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발어려운 가부장제, 발어려운 가해자중심주의.

너에게



처음에 내 몸에 관한 경험을 쓰고 나서 달았던 제목이 '좌절의 기억'이었다. 하지만 내 몸에 관한 그 동안의 느낌을 '좌절'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기엔 뭔가 부족한 느낌도 들었고, 내 몸에게 미안한 느낌마저 들었다. 나에게 아픔과 슬픔의 이미지로만 기억되던 몸. 하지만 그것은 내 몸이 진정 무엇이고, 뭘 원하는지는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는 동안에 내 몸은 나와 점점 어색해지고, 내 것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되어 버린 것 같다. 그래서 내 몸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진실하게 내 몸을 불러보고 싶은 마음에 '너에게'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다.

어렸을 때 나는 친구들과 다양한 놀이를 하는 걸 좋아했었다. 친구들과 자주 축구를 했었고, 쉬는 시간에는 오목이나 장기를 두는 걸 좋아했었다. 또한, 여자애들과 공기놀이를 하거나 아이엠그라운드 하면서 노는 것도 빠지지 않고 했었다. 하지만 나의 시선을 끄는 놀이는 바로 고무줄 놀이였다. 여자애들이 폴짝 폴짝 뛰면서 즐겁게 웃는 모습에 끌렸던 것 같다. 나도 고무줄 놀이하고 뛰어 다니면 왠지 모를 해방감을 느낄 것만 같았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엔 주로 점심시간에 학교 건물 앞에서 여자애들 여러 명이서 고무줄놀이를 했었다. 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자와 남자를 구분해서 하는 놀이는 별로 없었지만, 고무줄놀이만큼은 예외였다. 여자애들이 즐겁게 놀 때 항상 고무줄을 가위로 끊는 남자애들이 있었고, 그 애들은 어떻게 하면 짹째 고무줄 끊고 잡히지 않을지를 고민했었다. 나는 당시 너무나 소심하고 평소엔 말도 잘 안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고, 여자애들한테도 같이 하자는 말을 하지 못했었다.

중학교 올라가서는 내 몸을 더 마르고 호리호리하게 보이고 싶은 욕구가 강했었다. 당시 중2때까지만 해도 키는 170 조금 넘는데 몸무게는 40 밖에 나가지 않았었다. 거식증이나 폭식증의 증세는 없었다. 단지 난 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자애들 보면서 저 애들보다도 더 말라보이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딱히 이유도 없이 먹고 싶은 것도 참아가면서 내 몸을 지치고 힘들게 만들었었다. 결국 한창 클 나이에 뭐하는 짓이냐며 엄마한테 심하게 혼나고 집에서 식사를 할 때엔 반강제로 밥을 먹기에 이르렀다. 그럴 때 내 몸은 포만감을 느끼고 편해지지만 내 머리만은 불편함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차츰 차츰 생기는 여드름에 나도 모르는 거부감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다. 내 얼굴에 나는 이 빨간 건 무엇인가? 만지면 아픈 게 너무나도 싫었다. 그래서 여드름이 생기면 미친 듯이 짜고, 세수할 때에도 일반 비누로 미친 듯이 닦았다. 결국엔 여드름이 건갑을 수 없이 심해졌고, 병원에 가서 심각하다는 판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나는 이렇게 여드름을 만들고 싶지 않은데 내 몸은 자꾸 왜 이러는 건가 하는 좌절감에 빠졌고, 내 몸에 대한 미움이 커져갔다. 그 후 수시로 여드름을 짜는 건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이루어졌다. 결국 이러한 피부에 대한 집착은 내 피부를 심하게 망가뜨렸고, 그 후로 사람들은 내 얼굴을 볼 때 피부만 볼 것 같다는 심한 회의감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중학교 다닐 때엔 키도 부쩍 커지고 축구, 농구 같은 운동도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친구들 사귀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을 품지 않으면 몸이 불편했을 정도로 끈기가 있는 성격 덕분에 공부도 잘해서 반장도 해보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다. 하지만 이런 내 몸의 고마움의 크기보다는 피부로부터 느끼는 내 몸에 대한 미움과 혐오감이 더 커서 이런 몸을 주신 부모님을 미워하기 일쑤였다.

결국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내 몸에 대한 혐오감이 더 커졌다. 친구나 선생님과 대화할 때도 나는 마치 죄인처럼 얼굴을 폭 숙이면서 눈도 안 마주치고 얘기를 하게 되었고, 사진을 찍는 기피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직도 내 고등학교 시절의 사진은 나를 깔끔하게 나온 졸업사진을 제외하고는 2, 3장 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 후 대학교 들어오면서 피부 관리에 대해 차츰 알아가게 되었고, 돈이 많지 않았던 나는 저렴한 가격 선에서 피부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 무작정 내 얼굴, 내 피부를 질책하지 말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달래주자라는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6년 피부에 학대를 해왔기 때문에 피부 개선은 매우 천천히 이루어졌다. 다행히도 요샌 친구들도 많이 좋아졌다고 칭찬하지만, 과제 때문에 며칠 밤을 새면서 내 몸을 혹사시키는 내 피부는 화가 난 듯 심하게 빨개지고 벗겨진 상태로 나한테 항의를 한다.

고등학교 시절엔 두발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머리를 길게 기르는 학생의 경우 밤에 학교에 나와 운동장 수심 바퀴를 오리걸음으로 걷게 하던지, 체육관 모든 지역을 청소시키는 등의 가혹한 처벌이 내려졌다. 그 때도 짱이 있던 학생들은 선생님이 교실을 돌 때 화장실에 숨어있는 등의 전술로 아슬아슬하게 피해갔다. 당시 소심했던 나는 그 친구들이 머리를 길게 기르고 젤과 왁스를 바르는 모습이 부러웠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간 후에 몇 개월씩 머리를 다듬으면서 머리를 굉장히 길게 길렀다. 그 때는 머리카락이 금방 자라는 여자애들이 부러운 적도 있었다. 몇 개월씩 신경을 쓰자 내 머리카락은 내 몸에서 가장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그 후 난 과감하게 전부 노란색으로 염색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 엄마가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였다. 머릿결이 나빠진 다, 양아치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에 입학만 하면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하게 해줄게"라고 약속을 했던 엄마였다. 엄마의 거짓말에 실망했지만 난 그래도 곳곳이 엄마한테 염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미용실에 갔다. 하지만 당시 미용실의 직원의 말은 더 충격적이었다. 엄마가 전략적으로 미용실 직원에게 "이 애 노란색으로 염색하면 이상하죠? 그냥 브리지나 넣는 게 어떨까요?"라고 하자 직원은 "네 브리지가 더 어울릴 거 같아요. 그래도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엄마는 아군을 만난 듯이 나한테 계속해서 브리지만 해라, 염색할 돈은 없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고, 결국 브리지만 넣는 것에 만족해야 했었다.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예상외였다. 외국인 같다, 너무 안 어울린다, 네가 무슨 개그맨인 줄 아냐는 등의 혹평만 오고 갔다. 그 중에 가장 황당했던 말은 "너 혹시 게이냐?"라는 말이었다. 그 말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알려달라고 하자 "변태 같자나, 그게 뭐야?"였다. 난 너무나 화가 나서 "내 머리가 어째서 변태 같다는 거야? 게이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하는거냐?"라고 따지자 그 친구도 나한테 질 수 없다며 화를 냈었다. 결국 주변의 여자애들도 이상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등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된 후 난 내가 젤 아끼던 머리를 검은색으로 바꾸고 짧게 잘랐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께서 반가워하시며 "얼마나 깔끔하고 보기 좋냐?"라고 말했을 때의 불편함. 내가 보기엔 그 전의 헤어스타일이 더 좋은데, 그렇다면 누가 보기 좋게 잘라야 하는 건가하며 느끼던 어색함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나는 변성기가 금방 지나가버렸다. 그래서 목소리가 약간 높고, 노래 부르면서도 내가 목소리가 약간 모기 목소리 같다는 느낌을 갖는다. 또한,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기 시작하면서 대화의 주도를 내가 잡으면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다. 한 번은 집에서 엄마와 대화를 열심히 하는 중이었다. 엄마께서 나한테 친구 만날 때도 그렇게 말 많이 하고, 빨리하고, 경박한 톤으로 말하느냐고 물어봤었다. 그래서 나는 친한 친구 만날 때에도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경박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엄마께서는 덩치도 있는 애가 그래야겠냐면서 친구 만날 땐 말 많이 하는 건 좋지만, 친구 말할 기회도 주고 말 좀 줄이고, 목소리도 좀 굵게 하라고 말하셨다. 그러면서 여자는 네가 남자답게 의젓하고 말도 신중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야 좋아한다면 목소리를 좀 더 신경 쓰라고 말하셨다. 난 약간 하이톤 같은 목소리가 좋은데, 웬지 반가운 친구 볼 때엔 말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많이 말하려면 빨리 말해야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흔히 말하는 남자답게, 멋있게 보이려면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내 목소리도 약간 거칠게 숨겨야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엄마의 가벼운 충고라 생각하면서 넘어갔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친구를 만날 때 아무리 편하게 느껴지고, 기분이 좋아도 어느 정도 내 목소리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말하고 싶은 방식대로 말하지 못하면서 내 몸에 대해 또 한 번 좌절감을 맛보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몸에 관련된 기억들을 풀어보니, 몸에 대한 고마움과 뿌듯함 보다는 내 몸에 대한 혐오감, 내 몸을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좌절감이 더 컸던 것 같다. 이렇게 내 몸을 싫어했었나 하는 생각에 괜히 미안한 감정마저 든다. 이러한 감정은 과연 나만 갖고 있는 특별한 감정일까? 소위 말하는 인기 많고 멋있는 친구들은 과연 자기 몸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들도 주변에서의 인정을 얻기 위해 몸을 꾸미고 가끔은 혹사시킬 때엔 나와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을 것 이런 생각이 든다.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그저 남들이 바라고 내가 꿈꾸면 형태를 쫓다 고꾸라진 하나의 덩어리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몸이 없어졌다는 걸 이제야 실감하게 되었는데, 과연 몸은 어디로 가버린 것인가? 지금 나를 감싸고 있는 것들이 언제부터 타인들의 시선과 나의 강박관념의 덩어리로 바뀐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나를 휩쓸자 이제는 좌절감이 아닌 "나를 떠난" 내 몸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답답함만이 나를 감싼다. 그냥 남들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꾸미고, 내 마음대로 관리하면 내가 다시 돌아와 줄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표피들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인정하고 감싸주면 나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내 몸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지만 사라진 내 몸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어느 시골 마을에서였다. 마을에 사는 친한 선배언니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지나가던 마을 할머니가 선배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더니, 나를 보고 뭔가 칭찬의 말을 했다. 나는 그때 짧은 커트 머리에, 험렁한 바지에 바스틱을 입고 보정기능이 전혀 없는 속옷을 입고 피부는 까맣게 타 있었다. 누구라도 여자로는 쉽게 보지 않을만한 차림새였다. 그래서 할머니도 나를 남자아이로 보고, 듬직하다고 했다가 하여튼 뭐라고 칭찬을 했다. 그 말을 들은 선배는 "할머니, 애 여자예요." 하고 정정을 해 주었다. 그러자 할머니는 조금 놀라면서 "여자라?" 하더니 화인하듯 내 가슴을 쓸어만져 보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웃는 낯으로 "허허, 뚱뚱하니 좋으네" 하시고는, 선배에게 인사를 하고 다시 길을 걸어가셨다.

이 짧은 에피소드는 나에게서는 굉장히 강한 인상으로 남아있다. 가슴을 만져보는 것까지는 별로 놀라운만한 일이 아니었지만, '뚱뚱하니 좋으네'라는 할머니의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순간 병 찌는 충격을 받았었다. 그때 내가 예상했던 할머니의 반응은 '여자 맞네' 라든가, '가슴이 작으니 몰랐지' 라든가, 뭔가 내 가슴크기와 거기에서 확인한 여성성에 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내 가슴크기와 성별을 연결짓는 말을 하지 않았다. 가슴이 '뚱뚱하고' 그래서 '좋다'는 그 한 문장에 나는 무척 위안을 받았다. 내 가슴은 여성스러운 가슴이거나 여성스럽지 않은 가슴이 아니라, 그냥 '뚱뚱한' 가슴이었다.

그래서 나는 주로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 가끔 '뚱뚱'이라는 단어를 이름으로 쓴다. 그 단어가 나를 '여성'에서 분리시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여성으로 불리기보다는 남녀로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뛰어난 성별로 불리기를 원하고, 내가 가진 몸의 성질들이 하나하나 여성의 것이 맞는지 확인받기보다는 그 자체로 인정되기를 원한다. 세상은 경계의 몸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 우리의 몸은 세상이 정해 놓은 경계를 지키지 않는다. 나는 저절로 난 손발과 코밑, 배와 겨드랑이의 털들을 없애고 싶지 않고, 눈이 거북해하는 렌즈를 억지로 끼고 싶지 않고, 와이어가 들어간 브라지어를 입고 싶지 않다. 여성의 몸이 아니라 나의 몸을 갖고 싶다.

가끔 내 몸이 남성으로 변한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 본다. 남성으로 변한다는 건 가슴이 보다 납작해지고 페니스와 고환이 생기고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늘어난다는 것 정도로 상상한다. 그러면 과연 뭐가 달라질까. 성별이 달라짐으로써 나는 일부분에서는 규범에 맞게 될 것이고, 일부분에서는 규범에서 벗어날 것이

뚱뚱



다. 우선 아마도 동성애자에서 이성애자가 될 테니 지금까지 숨기고 감추어야 했던 나의 성적적인 욕망들은 갑자기 정상으로 평가될 거고, 그걸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삶은 참 편할 것 같다. 하지만 주변에 동성 친구들뿐인 나의 인간관계나 나의 성격들 중 일부는 '남자답지 못한 것'으로 분류되고 이상하게 취급될 것이다. 규범 때문에 입지 못하게 될 짧은 반바지나 프릴이 달린 블라우스도 가끔 다시 입어보고 싶어질 것 같은데, 그런 상상 속에서 성별에 대한 규범들은 부자연스럽고 허구적이 된다. 여성으로서 비규범적인 내 몸이 남성으로 변화한다고 해서 규범적이 되지는 않는다. 몸이 규범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이 몸을 맞고 틀림으로 분절시키고 억압한다. 나는 그렇게밖에 상상할 수가 없다. 이미 세상의 규범에 맞지 않는 몸들은 너무나 많이 있고, 현재의 내 몸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성별이 바뀌는 것을 모든 '여성적'인 것들을 버리고 '남성적'인 것들을 갖게 되는 것으로 상상할 수가 없다.

성별에 대한 규범들은 20대가 되면서 나를 갑작스럽게 덮쳐왔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특정한 성별이 된다는 것도 포함하는 것 같았다. 불과 몇 달 전까지 금지되었던 짧은 치마나 긴 머리, 화장은 이제 은연중에 권장되었다. 그러한 여성성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선배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쉽게 집단에 동화된다는 걸 느꼈고, 나도 그런 여성스러운 차림을 했을 때 더 많은 칭찬과 환대를 받을 수 있었다. 그건 처음에는 신선한 즐거움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 대한 억압이 되었다. 바짝 마른 몸이 아니면 타이트하거나 노출이 있는 여성스러운 옷은 입을 수가 없었고, 치마를 입었을 때는 발이 아프더라도 힘을 신지 않으면 모양이 예쁘지 않았다. 겨드랑이 털은 매일 면도해야 했고 팔다리의 털들도 신경이 쓰였다. 나는 늘 다이어트를 했고 발바닥에 굳은살이 생기도록 구두를 신었으며, 어느새 그날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업이 남아 있어도 집에 오게 되었고, 영타에 가서도 새벽에 일어나 화장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원하는 것만큼 여성스럽지 않고 아름답지 않은, 그래서 환대받지 못하는 내 몸에 대한 혐오감은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져 갔다.

어느 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된 나는 그 모든 걸 버리기로 했다. 가부장적인 학교 속에서 환대받지 못하더라도 나 스스로는 나 자신을 당당하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싶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고 중학교 때나 입던 굴곡 없는 옷을 다시 꺼내 입고 화장을 하지 않고 학교에 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제대로 바라보기가 힘들었다. 누군가의 눈에 내 모습이 담기는 것을 목격하고 싶지 않았다. 모든 것이 낯설고, 나와는 다른 것 같고,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런 느낌 속에서도 버티는 힘이 생기자 곧 사람들은 내 생각만큼 나에게 관심 갖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꾸준한 노력과 탐색을 통해 다행히도 이제 그 규범의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길을 찾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다. 성별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공간과 친구들을 만났으며, 최대한 사회의 요구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고 있다. 끊임없고 끝없는 사회의 요구 속에서 나는 틈새의 삶을 산다. 그리고 내 삶에 만족한다. 이런 틈새가 좀 더 넓어지고 아늑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몸에 대한 온갖 규범들을 억압으로 느끼는 나 같은 사람들이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뚱뚱하니 좋으네' 하시면 할머니에게서 느꼈던 것처럼, 규범에 오염되지 않은 눈을 갖고 그런 눈들 속에서 살고 싶다.

by 따뜻하게 안아줘요 뚱뚱

누구도 내 몸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 대신, 사랑받을 만한 몸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만을 가르쳐주었다.
그 몸은 나의 몸과 달랐고, 그랬기에 나는 '그 몸'이 되어야 했다.

내 주위의 친구들도 하나 둘 셋 모두 '그 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더 가까워질수록 더 높은 가치가 매겨졌고, 더 사랑받았고, 더 바람직했다.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는 말은 공허했다.
내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려면 나는 노력하지 않는 낙오자가 되었다.
그랬기에 나도 달렸다.
내 몸은 변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 내 몸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
내 몸은 내 몸이 아닌 '그 몸'이 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되었다.

나는 실을 꿰고, 뼈를 자르며 내 몸을 바꿔나갔다.
고지가 저기에 있었고, 내 몸은 '그 몸'과 가까워진 듯 했다.
내 몸은 킬로그램, 센치미터, 파센으로 측정되는 '어떤 것'이었고,
나는 그 어떤 것을 더 적게, 더 크게, 더 길게, 더 짧게, 더 아름답게 바꾸어나갔다.
나는 그것을 측정하는 측정사였고, 그것을 다듬는 장인이었고,
그것을 만드는 원형사였다.

모르겠다.
'내 몸'이 '내'가 갖고 다듬는 '어떤 것'이라니,
어느새 내 '몸'이 어떤 '것'이 되었을까.
내 몸은 내가 아닌가? 내 몸이야말로 내가 아닌가?

정말로 '내 몸'이 '내'가 갖고 다듬는 '어떤 것'이었다면,
내 몸을 겪으면서 들었던 그 비명은 존재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 비명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없어야 했다.

... 몸의 비명소리는 커져갔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다.

만들어지는 몸



사라진 몸들의 시대

1. 나는 욕망한다.

나는 끊임없이 내 몸을 바라본다. 그리고
내 몸을 생각하고 성찰하고 고민하고 사유한다.
몸을 향해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시대, 바야흐로
몸의 시대다.

도시의 거리를 걷다 보면 거울 속에 맺힌
나의 몸과 함께 걸어가는 기분에 빠진다. 그것은
마치 제 3의 그림자와 같다. 상점의 유리문, 자동
차의 창문, 잘 닦여진 철판이 끊임없이 나타나서
그 표면에 비치는 나의 몸을 보여준다. 나는 내
몸을 바라보는 것을 멈출 수 없다. 내 몸이 아름
다울 때에도, 흉측할 때에도 나는 내 몸을 바라보
는 것을 멈추지 못한다. 내 몸
이 아름답게 느껴질 때에는 나
의 몸을 찬미하기 위하여 내 몸
을 바라본다. 반대로 내 몸이
못났다면 내 몸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바꾸어야 아름다워질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한다.
다이어트, 성형수술, 보톡스,
근육주사, 피부 관리, 메이크업
이라는 다양한 방법을 떠올려
본다. 때로는 잠깐이라도 더 아
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이런 저

런 자세를 취해본다. 머리를 살짝 기울이면 얼굴
이 더 가름하게 보이고, 다리를 바를면 허벅지가
더 가늘어 보이고, 등을 펴면 배가 더 납작해 보
인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영상에 불과할지라도
나는 그 영상이 내 몸이 된 것인 양 만족한다.

거울 속에는 두 개의 몸이 겹쳐있다. 하나
는 거울에 비치는 현재의 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되고 싶어 하는 미래의 몸이다. 내가 거울을
바라보는 행위는 거울에 비친 '현재의 몸'을 내
가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미래의 몸'으로 바꾸기
위한 수단을 고민하는 하나의 프로젝트다. 거울
에 비친 현재의 몸은 바꿔야 하는, 버려야 하는
몸이다. 저 몸은 내가 아니다. 이상적인 몸이 되

기 위해 잠시 거쳐 가는 몸에 불
과하다.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골라낸다. 내 배와 허벅지
에 붙어 있는 살, 피부에 나 있는
뾰루지, 약간 튀어나온 치열, 쌍
꺼풀 없는 눈, 납작한 유방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살과 뾰루지
는 떼어내고, 치열은 집어넣고,
눈두덩에 쌍꺼풀을 그려 넣고, 유
방은 볼록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
다고 생각한다. 그 순간 실존하는
나의 몸이 사라진다. 내가 생각하



는 진짜 나의 몸은 '배와 허벅지와 눈과 유방'을 수정한, 내 관념 속의 몸이다. 나는 아름답고 완벽한 '미래의 몸'을 상상하며 거울에 비치는 내 몸을 잊어버린다. 내 몸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 채, 거울 속의 영상을 왜곡해버린다.

아름다운 몸에 대한 이미지가 범람하고, 모두가 몸을 찬미하는 시대에 살고 있건만 나는 내 몸을 부정하고 혐오하고 부끄러워한다.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몸을 갖고 싶다는 욕망에 휩싸여 나는 내 몸을 조각낸다. 내 몸을 부위별로 나누어서 평가하고, 낮은 점수를 받은 부분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 나는 끊임없이 내 몸을 혐오하고, 몸을 교환하는 상상을 한다. '조각난 몸'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쉽게 상상된다. 의학과 식품영양학은 몸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조언한다. 수술과 치술, 식이요법과 운동방법의 범람 속에서 나



는 내 몸을 '업그레이드' 해 줄 뷰티산업의 상품을 소비한다. 내가 사회 내에서 통용되는 아름다운 몸을 욕망하는 한 나는 몸의 비교를 멈추지 못할 것이다. 내가 찬양하는 몸과 나의 몸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한 나는 자기혐오를 멈추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 몸과 그 몸 사이의 차이를 좁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나는 내 몸을 바꾸고 싶다는 욕망을 버릴 수 없을 것이다.

2. 나는 왜 욕망하는 것인가.

그러나 내 몸과 그 몸 사이의 차이는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내 몸을 바꾸더라도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몸에 도달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욕망하는 그 이미지는 유행의 주기를 가지고 있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모습을 바꾸어 버린다. 내 몸이 바뀌는 속도는 몸의 이미지가 변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 내가 내 유방을 불룩하게 만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납작한 유방을 욕망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의료산업과 뷰티산업은 나에게 납작한 유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또 다시 나에게 몸을 혐오하고 다른 몸을 욕망하도록 만들테지.

나는 몸을 '마음대로' 기획할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힌다. 내가 원하는 대로 수월하게 몸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사회에 범람하는 '지침'을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몸을 어렵지 않게 금방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내가 실행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먹고 결행해버린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풍만한 몸매를 가진 섹시한 여성'이 될 수도 있고, '가느다란 몸매의 청순한 숙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나 다른 두 몸이 모두 나에게 가능하다는 것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들린다.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

다. 나는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변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생각은 너무나 큰 착각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변신하는 것이 아니다. 섹시한 여성과 청순한 숙녀는 얼핏 보면 내 머릿속에 펼쳐져 있는 몸의 좌표평면 위에 찍은 두 점으로 보인다. 내가 되고 싶은 수많은 몸이 있었고, 그 중에서 특히 내가 되고 싶은 몸이 바로 '섹시한 여성'과 '청순한 숙녀'였다고 쉽게 생각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다시 질문해보자. 그 두 개의 몸이 정말로 내가 되고 싶었던 수많은 몸의 선택지 중에서 신중하게 골라낸 것인가? 아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큰 고민 없이 그러한 몸을 욕망했었다. 아름다운 이성에 여성에게 주어진 몸의 이미지는 그 정도에 불과했고, 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은 채 그러한 몸만이 '당연히' 아름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소년 같은 느낌을 주는 부치의 몸이나, 살이 잔뜩 켜 젖결의 몸 혹은 근육이 발달한 육상선수의 몸이 되는 것을 상상해본 적이 있었던가. 나는 여태껏 두 개의 몸이 아닌 다른 몸을 상상해본 적도 없고, 상상해보려고 해도 상상하지 못한다. 나는 정말이지 '되고 싶은 몸'에 대해 단 한 번도 성실하게 고민하지 않은 채 거울 속에 떠오른 몸을 욕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 몸이 되고 싶다는 욕망을 '나의 욕망'이라고만 말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나는 나의 의지로 내 몸을 기획한다고 생각했다. 내 몸의 어느 부분을 삭제하고 어느 부분은 교체하고 어느 부분을 유지할지, 그렇게 몸을 바꾸어서 완성하고 싶은 목표와 방법을 설계했다. 가느다란 몸, 근육 없는 몸, 미소 짓는 표정, 선한 눈매, 풍만한 유방, 하이힐을 신은 발, 화장을 한 얼굴, 손질한 머리카락, 매니큐어를 바른 손톱. 하나의 예술품과 같은 이 몸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며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보

다는 다른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몸이었다. 남성의 보살핌을 받는, 남성의 성적 대상인, 남성에게 맞설 힘이 없는 몸인 것이다. 이 몸이 속삭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나는 위협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나는 남성들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을 거예요." 내 몸이 본래처럼 조형될수록, 나는 가부장적인 사회에 편입되기 쉬운 몸이 된다. 비정상적으로 낙인찍히지 않는, 사회가 제공하는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몸이 된다.

이 때문에 다른 여성이 설계해낸 몸들과 내가 설계해낸 몸은 비슷한 형태를 띄게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훈육 받아 온 성예화는 그녀들에게 어떤 몸이 사회에서 가장 효율적인 자원이 될 수 있는지 체화시킨다. 그래서 여성들은 살이 많은 몸이나 근육이 많은 몸을 욕망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래서 누구나 욕망해야 하는, 이미 기획된 몸들은 기성품처럼 나에게 주어졌다. 나는 훈육 받은 대로 가부장적 사회가 요구하는 몸을 욕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미 기획된 몸을 나 스스로 기획해서 욕망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의 욕망과 사회가 만든 욕망은 그렇게 서로 눌러 붙어서 떼어낼 수 없는 것인데, 너무나 쉽게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다.'라는 언어로 표현해버렸다. 내가 외부의 그 어떤 압력도 받지 않은 채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3. 욕망을 멈출 수 있을까?

몸을 판매하는 뷰티산업은 여성들의 나르시시즘과 자기혐오가 만들어내는 '자발적인' 투자에 의하여 유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성들에게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 몸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소비하게 만든다. 여성들 역시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 몸을 가졌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위해 그것을 소비한다. 뷰티 산업과 가부장제는 젊은 이성애자 여성의 몸을 기획하여 '판매' 하고, 여성은 그 기획된 몸을 '구입' 한다. 뷰티산업에서 자주 사용되는 수술이나 시술이라는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언어가 숨기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육체를 '구입' 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몸을 조각내어 교체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내 몸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몸 조각을 '구입' 한 몸 조각으로 바꾼다.

하지만 몸을 바꾸는 것은 '구입' 한다는 말처럼 기성품을 집어오는 것 같이 쉽고 빠르고 편안하게 될 수는 없다. 살이란 몸이 살아가는 시간이며, 몸에는 삶의 흔적이 남아있다. 몸을 바꾸는 것은 곧 삶을 바꾸는 것이며, 몸을 바꾼 경험은 내 삶과 몸에 흔적을 남기게 된다. 하지만 마음대로 변신할 수 있고 내 몸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환상은 우리의 몸이 삶과 강한 유기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삭제해버린다. 몸이 바뀌고, 그 과정에서 몸은 어떤 경험을 하고 그것은 다시 몸에 기록된다. 하지만 몸의 경험과 몸에 기록된 경험은 변변히 무시된다. 마른 몸을 만들기 위하여 만성적인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여성들이 상실감과 거식과 우울에 시달린다고 할지라도, 결국 사회가 주목하는 것은 그녀들의 날씬해진 몸이다. 그녀가 다이어트과정에서 느낀 감정, 식단조절로 인해 예민해진 신경, 몸에 남은 거식의 흔적은 너무나도 쉽게 사소화되고, 무시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린다. 많은 경우 그것은 히스테리로 표출되고, 그 경험은 개인이 다스려야 하는 감정선 정도로 치부되어 버리는 것이다.

몸을 '구입'이라는 자본주의의 언어로 서술하는 순간,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떠넘겨졌다. 몸을 욕망하는 것도, 몸을 욕망하지 않는 것도 개인의 선택이 되었다. 개인이 몸을 욕망하고, 몸을

설계하고, 몸을 교체하고, 평가를 하는 일련의 행위를 그 사람이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 일이라고 간주되어버린다. 그래서 몸을 향한 욕망에는 개인의 욕망과 사회의 욕망이 섞여있다고 말한다면 누군가는 너무나 쉽게 "그렇다면 개인이 더 이상 그 몸을 욕망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뷰티산업과 여성은 서로가 서로를 욕망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욕망하기를 그만두는 것으로는 이러한 흐름을 멈출 수 없다.

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몸을 상실해버렸다. 피와 살과 뼈로 이루어진 몸은 거울과 영상 속에 비치는 몸으로 대체되었다. 삶의 내러티브를 담고 있는 몸은 비가시화되었고 언제든 교체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몸이 나타났다. 몸에 새겨진 경험과 언어를 드러내는 것은 히스테리라는 병적인 증상으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내가 욕망하는 그 몸은 판매를 위해 기획된, 실존하지 않는 몸이다. 환상이다. 아무리 기를 쓰고 쫓아가도 도달할 수 없고 생각하면 그 곳에는 그림 한 장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상실감과 우울감이 나에게 닥쳐와도, 이성적인 개인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자본주의의 담론이 모든 책임을 나에게 전가한다. 웃기는 일이다. 내 몸을 대체한, 내 몸을 사라지게 만들었던 그 몸은 결국 '없는 몸'이었다. 모두가 몸을 이야기하는 몸의 시대, 그러나 그 어디에도 '몸'은 없다.

by 목아 깎아 숲은 기린

외모지상주의가 말해주지 않는 것들

외모지상주의의 경계와 잉여에 대해서



Intro

우리 집 뒤 쪽에는 상가가 하나있다. 아파트 단지에 딸린 6층짜리 상가인데, 인접한 주택가와 소규모 아파트들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꽤나 많은 점포들이 입주해있다. 그리고 그 상가의 5층에는 헬스장이 하나있다. 24시간 헬스장이. 그 헬스장은 정말 24시간 열려있다. 이른 아침 1교시 수업을 듣기 위해서 등교할 때도, 친구들과 밤늦게 놀고 난 후 새벽에 집으로 오는 길에도 그 헬스장 교할 때도, 친구들과 밤늦게 놀고 난 후 새벽에 집으로 오는 길에도 그 헬스장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내가 헬스장을 볼 때마다 창가에 늘어선 러닝머신 위에는 그림자가 아른 거린다. 문득 욕실에 거울에 비친 내 뺨살이, 지하철에 붙어있는 성형외과 광고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방학동안 살을 빼기 위해 닭가어있는 성형외과 광고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방학동안 살을 빼기 위해 닭가슴살과 고구마만을 먹었던 친구의 모습과 함께 나는 이런 것들을 지칭할 수 있는 말을 하나 알고 있었다. '외모지상주의'라는 말.

#1 외모지상주의의 경계

루키즘 [lookism] (외모지상주의): 외모가 개인 간의 우열과 성패를 가른다고 믿어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외모지상주의를 일컫는 용어.

'외모지상주의'는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담론이다. 한 밤 중에 헬스클럽이 열려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특정한 음식을 먹는 이유이기도 하고 지하철 벽에 왜 그리 많은 성형외과들이 등장하는지를 알 수도 있고 사람들의 대화와 태도에 대해서도, 누군가의 취업실패도 설명할 수 있다. 심지어는 누군가의 자살을 설명할 수 있기도 하다. 이런 현상들에 사람들은 '외모지상주의'라는 딱지를 붙인다. '이제 다 사람들의 외모지상주의 때문이다. 사람들이 얼굴로 몸매로 사람들을, 스스로를 평가한다. 그들은 사람들 볼 때 겉모습, 몸 밖에 볼 줄 모른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다. 그러니까 외모지상주의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타파해 나가야 할 속물근성이다.' 여기서 외모지상주의는 물질적인 것 - 육체 - 외면 - (속물적인) 욕망 - 부정적인 것과 연계되는 의미망을 만들어내고, 정신적인 것 - 정신 - 내면 - 고귀한 기준 - 긍정적인 것이라는 의미망에 대립한다.

이 두 가지 의미망을 대립하는 설명은 사람들의 공감을 쉽게 얻는다. '예쁜 사람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외모지상주의라는 딱지가 붙자마자, 그것은 쉽게 비판할 수 있는 것이 되고, 그 비판은 정당성을 얻는다. 모두가 외모지상주의는 나쁜 것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습득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공개적으로 자신을 외모지상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전자의 의미망 대신에 후자의 의미망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타인의 내면을 살펴야 한다. 아니, 살피는 척이라도 해야 한다. '외모지상주의자'라는 딱지가 싫다면 말이다. 그러나 외모지상주의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편리한 담론이다. 그 말은 많은 것들을 쉽게 설명할 수 있고, 모두에게 쉽게 동의를 구할 수 있다.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불편함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하지만 그렇게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이 미처 보여주지 못하는 것들도 존재한다. 정확히 말하면, 이보다는 적극적으로 외모지상주의라는 담론이 '은폐'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외모지상주의의 두 가지의 의미망에서는 포착되지 않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기에 그것을 외모지상주의라는 담론으로 덮어야 하는 그런 잉여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외모지상주의라는 담론이 자신의 아래로 포획하려하지만 그것의 틀 안으로 구겨 넣을 수 없는 잉여들과 마주칠 때, 외모지상주의라는 담론은 자신의 경계선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경계선은 외모지상주의라는 담론이 잉여들과 부딪쳐 무너지는 지점이다.

#2 외모지상주의 담론, 그 이분법의 역설 - 여성과 다이어트

이제 다이어트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의 다이어트는 주로 '하다'라는 동사와 결합해서, 다이어트를 한 만한 이유와 여유를 가지고 있는 일부가 하는 살을 빼는 행위를 칭하는 용어였다. 반면 현재의 다이어트는 주로 '해라'와 함께 등장하며 우리에게 체중감량을 강권한다. 사회적 인식, 생산되는 이미지들이 끊임없이 '건강한(=섹시한=젊은) 몸'을 개인의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그와 동시에 사회적 인정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개인은 다이어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개인이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도덕적 비판까지도 가해진다. 자기관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다이어트는,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는 게으른 사람'의 이미지를 덧씌운다. 건강한(=섹시한=젊은) 육체를 가지지 못한 개인에게는 다이어트라는 의무가 일상적으로 지워진다. 다이어트가 일상적인 의무가 되면서 사회적 지위의 문제를 넘어서서 만인에게 부과되는 도덕적인 당위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이어트의 일상화는 외모로 개인을 평가하는 외모지상주의가 사회에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1) 건강한고 섹시하고 젊은 몸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상형에 불과하다. 따라서 어떤 개인도 그것에 도달할 수 없으며,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순간에 불과하다. 모든 사람들은 이미지만 존재하는 이상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그와 동시에 외모지상주의라는 담론이 붕괴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외모지상주의 담론은 개인이 외면에 연계되는 의미망보다 내면에 연계되는 의미망을 통해서 타인을 판단할 것을 종용한다. 하지만 다이어트가 일상화된 사회에서는 이런 외면/내면의 이분법적 잣대는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 다이어트가 일상화되며 도덕적 의무로까지 발전한 사회에서는 이미 외면과 내면의 평가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에서 개인의 도덕성이라는 내면은 몸무게라는 외면에 의해서 재단되고, 그에 의해서 부지런함/게으름, 탐욕스러움/탐욕스럽지 않음의 구분이 생겨난다. 그리고 그 구분에 기초해서 개인들의 행동과 그의 동기(도덕성)가 구분된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여성의 소식(小食)은 남의 눈치를 봐서 그러는 것처럼 비춰지고, 많이 먹는다면 탐욕스러운 본색을 드러냈다는 것처럼 비춰진다. 그 사람의 상황, 의도와는 상관없이 말이다. 이 지점에서 외모지상주의 담론은 더 이상 다이어트를 자신의 이분법적 구도 아래로 포섭하지 못한 채 무너진다.

외모지상주의가 무너지는 지점은 여성의 경우 더욱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모두에게 자기관리라는 이름으로 다이어트가 강요되는 상황이지만, 그 다이어트의 의미는 남성과 여성에게 각기 다르다. 우선 여성에게 있어서 외모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다이어트를 할 수 밖에 없다. 개인은 사회적 지위, 성격, 학력, 전문화된 능력 등의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아를 실현한다. 지금과 같이 우리의 몸이 '보임을 당하는' 것으로서, 외모가 하나의 경쟁력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는 외모도 그러한 사회적 자원 중에 하나로 여겨진다. 그런데 그 외모가 갖는 중요성과 의미가 여성과 남성에게 확연히 다르다. 남성에게 외모는 대체가능한 사회적 자원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반면 여성에게 외모란 다른 사회적 자원을 모두 압도할 만큼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여겨진다.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이상적인 외모와 거리가 먼 여성은 '독한 년'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뿐이며,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어떤 여성에 대한 정보를 물을 때면, 항상 '예뻐?'라는 소리가 가장 먼저 나온다. 즉, 이 사회에서 여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바로 외모이며,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게 외모는 여성의 사회적 자아실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강요된다. 그런데 그 외모라는 것에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는 체중이다. 아무리 얼굴이 아름다운 여성이라도 이상적인 몸매를 갖추지 못한다면 '뺏살 굴욕, 허벅지 굴욕'을 당한다. 여성에게 다이어트는 단순히 사회적 자아실현을 위한 선택지들 중 하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여성에게 있어서 외모는 개인의 자존감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자존감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타인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개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가 어렵다. 개인의 자존감은 곧 타인의 인정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말했듯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기준은 바로 외모에 있다. 따라서 여성의 외모가 사회적 기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의 여부는 여성의 자존감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다이어트를 성공한 여성들이 그들의 다이어트를 통해서 자

신감을 얻었다는 하는 것은 이를 입증해준다. 따라서 이상적인 몸을 만들기 위한 다이어트는 여성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의 실현이 걸린 문제이자, 자신이 자존감과 관련된 문제이다.

외모지상주의 담론은 이렇게 말하며 미소 짓는다. '외모를 갖고 닦는 일은 무의미한 노력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와 같은 일은 자신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닫지 못한 무지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두 내면을 갖고 답습시다.' 하지만 여성 앞에서 이런 외모지상주의의 미소는 가식적이다. 그것의 충고가 공허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내면을 갖고 닦는 일, 즉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외면을 갖고 닦는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역설을 마주하고 있다. 외모지상주의 담론으로는 결코 포획할 수 없는 그 역설을 말이다.

Outro

여성제 회의를 마치고 온 오늘도 그 헬스클럽에서는 형광등의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창가를 따라서 가지런히 놓인 러닝머신은 마치 몸을 찍어내는 컨베이어벨트처럼 보였고, 그 위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러닝머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사실 그 헬스클럽은 내가 올해 초에 살 때도 먹고 식스팩을 만들기 위해 다니다가 몇 번 가지 않고 포기한 곳이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내 친구는 방학동안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오늘도 성형외과 광고는 당신의 아름다움을 찾아주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제 나에게 이것은 외모지상주의로 설명할 수 있기도 하지만, 그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외모지상주의 경계를 감지한 나는, 자기관리라는 이름으로 이상적인 형태의 외모로 몸을 찍어내라고 강요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감지한 나는, 여성 앞에 놓인 다이어트의 역설을 느낀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이든 단박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일이라도 벌어야만 하는 걸까?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 것일까?

단지, 난 헬스클럽을 다니지 않고 그냥 운동이나 하나 배우기로 했다. 난 친구의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다. 난 성형외과 광고를 보고 사고(思考)를 하기 시작했다. 거울에 비친 내 뺨살을 사랑스럽게 쓰다듬어줬다. 몸을 조금 더 자유롭게 있는 그대로 보기로 했다. 어쨌든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것들을 조금씩 바꿔나가기로 했다. 단지 그 뿐이었다. 그냥 그렇게 살기로 했다.

by '행복한' 실을 공부하는 스즈

2) 외모지상주의 담론이 힘을 갖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내면과 외면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면에 신에 내면을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일은 얼마나 무기력한가?

연예인을 통해 본

몸을 둘러싼 논의들

작년 말, 한 방송에서 소녀시대의 담당 트레이너가 나와 소녀시대가 하루에 800kcal만 섭취한다고 말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적이 있었다. 예전에 가정 수업 시간에 남자는 하루에 2500kcal, 여자는 2000kcal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들었던 나에게 충격이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역시 연예인들은 먹는 것도 대단하다."라는 부러움과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후사에 가깝다." 등의 우려의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났었다. 그 후 소녀시대를 담당한다는 다른 트레이너가 나와 그녀들이 평소에는 1200~1500kcal을 섭취하며 다양한 운동을 같이 함으로써 건강하게 보이도록 노력한다고 해명하기에 이르렀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루 생활하기에는 적은 양이다", "요새 걸 그룹들도 다이어트와 운동에 신경을 많이 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녀들이 소위 말하는 여자 아이들이 되기 위해 소속사에서 노래와 춤, 외모뿐 만이 아니라 그녀들이 먹는 것과 하는 운동도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다.

올해 초, 내가 즐겨보는 예능프로그램에 2pm의 옥택연이 나왔다. 대표적인 몸짱 아이돌인 그는 방송에서 멋진 몸매를 공개하기 위해 하루에 닭가슴살 두 쪽만 먹으면서 계속해서 운동하느라 신경이 매우 예민해졌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멤버들이 밤에 라면도 먹는 것이 너무 부러웠다는 그는 무대에서 몸매 공개를 한 다음 날 아침, 라면을 먹으면서 그 동안 쌓였던 한을 풀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때 야식으로 라면을 먹고 있던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 몸에 대하여 괜한

미안함

과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내 나이 또

래인 유명 가수는 라면의 유

혹도 참아가면서 무대에서 보

여주기 위해 멋지게 몸매를 가꾸

는데 난 지금 여기서 내 식욕을 채우고자 내 몸한테 몸을 짓하고 있다는 괜한 자괴감마저 느꼈다. 밤에 맛있는 야식을 먹고 싶은 내 몸에서의 욕구와 그만 먹고 티비에 나오는 남자 연예인처럼 운동하라는 내 머리가 심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 내 것이라 느꼈던 주체로서의 몸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닌, 내 말을 듣지 않는 어색한 객체로서 느껴지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일련의 모습을 통해 소속사에서 자신들의 소속 아이돌 가수들이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까지 엄격하고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대 위에서 노래와 춤 이외에 그들의 몸을 어떻게 과시해야 하는지를 주문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물론 몇 년간의 준비 끝에 연예인이 된 그들이 자신을 몸을 가꾸는 걸 부정적으로 보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날씬하거나 근육질의 외형을 가꾸기 위해 전문 트레이너의 지도 아래 극도로 제한된 음식을 먹고 운동하는 모습들, 신경이 예민해질 정도로 몸을 혹사시키는 그들을 봤을 때 단순히 그들이 원해서 몸을 가졌다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다. 몸짱 연예인의 몸은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매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멋진 몸에 열광하는 소비자들과 그들의 소비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소속사의

멋진 합작품인 것이다. 남성 소비자들은 여성 연예인들이 보다 마르고 가늘면서 가슴은 어느 정도 있길 바라며 여성 소비자들은 남성 연예인들이 복근을 포함한 튼튼한 상체를 갖고 있길 바란다. 심지어 방송 등 여러 매체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성 연예인이거나 이성 상대방이 그런 멋진 몸을 갖길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킨 연예인들은 그들의 몸을 보다 좋내기 위해 화보를 찍거나 방송에 나와 몸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홍보하고, 그들의 운동법이나 식이요법 등은 기사화 되거나 책으로 나와 다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나는 예전부터 다양한 운동에 관심이 많았다. 축구, 야구 등 구기 종목부터 복싱, 격투기 등 여러 운동에 관심이 있고, 조금씩 배웠었다. 하지만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는 운동선수들의 몸을 부러워하고 동경하면서도, 내가 그들처럼 몸을 가꾸어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었다. 선수들이 갖는 몸은 그들이 종사하는 운동 종목에서 요구하는 힘, 순발력, 지구력을 최대로 갖고 있는 몸으로서 운동 종목에 따라 그들이 갖고 있는 몸은 굉장히 다양하다. 극도의 힘을 요구하는 역도 선수와 순발력을 요구하는 축구 골키퍼가 갖추어야 하는 몸의 형태는 분명 다르다. 특히나, 팀을 이루어서 하는 운동의 경우 그들이 맡은 역할에 따라 이용규처럼 작고 민첩할 수 있고, 이대호처럼 크고 힘이 강할 수 있다. 즉, 운동선수들은 자신들이 맡은 역할에 최적화된 기능으로서의 몸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운동을 직업으로 갖는 그들에게 몸 자체가 하나의 삶이고 인생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운동선수도 아니고 평소에 그렇게 특정 기능이 극대화 된 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나로서는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처럼 운동하거나 먹는 걸 조절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에 반해 TV나 인터넷에서 보는 내 나이 또래의 연예인들의 탄탄한 몸매와 거기에 열광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보다 강한 유혹에 이끌리게 된다. 그들의 몸을 보면서 강한 유혹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몸", "시각적인 몸"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연예인들이 개인적으로 다양한 운동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연기를 할 때 그들의 탄탄한 복근이나 큰 가슴이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시각적인 이미지가 부각된 몸은 굳이 몸을 가꿀 필요가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연예인들처럼 몸을 한번 가꿔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연예 산업이 미치는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연예인들의 몸을 하나의 이상적인 몸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런 몸을 보며 단순히 멋있다는 표현을 넘어서 자기관리 잘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등 몸을 잘 가졌는지 여부가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그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몸, 보이는 몸을 갖추어 주변의 친구들에게라도 자랑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얻게 된다. 거기에 "하루에 30분 운동으로 멋진 복근 만들기"와 같이 쏟아져 나오는 몸 가꾸기 비법들은 내가 좀만 더 운동하고 신경쓰면 몸짱 연예인들과 같은 몸을 갖게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하지만 나도 운동을 아예 안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탄탄한 근육을 만들지 않을 뿐이다. 예전부터 달리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중학생 때 중장거리 달리기 선수로도 뛰었다. 대학에 들어온 후에는 과제나 시험 준비로 자주 밤을 새기 때문에 오랫동안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운동장을 몇 바퀴씩 뛰면서 오랫동안 지치지 않을 체력을 키우거나 다양한 스트레칭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지치는 일이 없도록 운동을 한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내가 운동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것 같다. 최근에 군대에서 갖 제대한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들로부터 요새 인기 있는 연예인들처럼 근육을 키우기 위해 어떤 운동을 했으며 그 성과가 어떻다는 등의 말을 많이 듣는다. 또한, 친구들은 자신의 자랑에 그치지 않고 나에게 "너 요새 운동안하냐? 운동 좀 해라"고 말한다. 내가 평소에도 매일 아침에 가볍게 뛰면서 운동한다고 하면, 그들은 요새 유행하는 운동을 하면 더 멋있어질 거라면서 한번 해보라고 권한다. 이러한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나만의 운동 방식에 대한 회의감이 들게 된다. 요새 많이 한다는 복근 키우기, 전근육 키우기 위한 운동이나 열심히 할까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어제는 '어떤 운동'이 '진짜 운동'인가라는 고민

에 빠져버리게 된다. 자주 가는 헬스클럽에서 러닝머신만 하고 나면 웬지 모르는 허전함과 아쉬움을 얻고 돌아가기도 한다. 또한,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너들의 도움을 받아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벤치프레스, 스쿼트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운동들을 하루에 10회나 20회 등 정확한 횟수에 맞춰서 운동을 한다. 정해진 횟수보다 더 많이 운동을 하거나 더 적게 하면 필요한 근육이 발달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는 근육이 발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필요한 근육은 운동을 하거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있어서 기능적으로 필요한 근육이 아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기 위한 근육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예인들의 몸 가꾸기 열풍은 남자는 남자답게, 근육질 몸매를 키우고, 여자는 여자답게 마른 체격의 몸매 가꾸기를 강요한다. 예전에는 액션 배우나 모델처럼 종사하는 분야의 특성 때문에 몸매를 가꾼 연예인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연기과 배우, 발라드의 황태자 등 직종에 상관없이 멋진 몸을 키우는 게 유행이다. 이러한 현상은 "몸 키워봐야 뭐 어때 쓰겠어?"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나 같은 사람들한테도 "우선 몸 키워봐. 그리고 넌 남자인가 복근도 만들고, 잔 근육도 좀 만들어야겠다."의 말로 유혹하는 듯하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식단은 한 1500kcal로 맞춰 먹어.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마다 정해진 식사를 하도록 해"와 같이 말하면서 예전처럼 단순히 다이어트 하라는 압박에서 더 나아가 그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 주고 있다. 또한, 남성과 여성에게 요구되는 운동 방식의 차이는 성별간의 몸의 차이는 매우 크며 그러한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또한, 지나치게 이성간의 성적인 매력만 강조하여 그들의 몸을 이성애를 만족시키는데 유용한 몸으로 만드는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에 더 심하게 불고 있는 연예인 몸짱 열풍은 오래전부터 사회 속에서 자리 잡고 있던 외모지상주의를 더 공고하게 하고 사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의 몸의 모습이 제한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나 사회적으로 수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연예인들

사이에 부는 몸짱 열풍은 고스란히 우리 주변에도 영향을 미쳐 그들처럼 멋진 몸을 가꾸지 않거나 그들이 하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몸에 죄를 지은 사람 마냥 평가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몸을 만들었을 때 정작 내 몸의 요구와 목소리를 듣고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은 다이어트 이후에 요요현상을 겪고, 남성들은 복근을 만든 후 하루라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복근이 흐트러지는 데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즉, 요새 유행하는 "보여주는 몸"을 가꾸는 일련의 행동들은 내 몸이 원하는 모습을 없애버리고 혹사시키는 일종의 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은 "몸이란 그 주변을 이루고 있는 사회 가치와 감동의 산물이다."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지금 사회가 몸을 단순히 상대 이성에게 성적 매력으로 다가가 수 있도록 보이도록 강조하는데 있다. 이제는 신체의 특정 부위를 나누어서 성별에 따라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지 상세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말로 웃긴 건, 많은 사람들이 "몸 그렇게 쓸데없이 키워봐야 뭐하냐? 실력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라고 몸 가꾸기 유행에 뒤쳐진 나를 위로하지만, 한편에서는 "몸이 멋진 사람들은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일거야."라며 말하는 것이다. 마치, 헬스클럽에 있는 매뉴얼처럼 몸을 가꾸지 못한 사람은 몸에 대한 큰 죄를 지은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는 세상. 하지만 정말로 내가 내 몸 하나 잘 간수 못한 것인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닭가슴살만 먹고 복근 만드는 것이 내 몸 관리를 잘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먹고 운동해야 하는 과정들로부터 나오는 몸의 거부감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 그 거부감들은 내 몸이 없어지고 코본대로의 몸이 되는 것에 대한 저항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자신의 몸을 통해 자신의 매력을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유명 연예인처럼 몸 만들고 운동하느라 자신의 몸이 없어지진 않을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by 내일도 열심히 나만의 운동을 해야지 쉼

몸이 몸을 말하다

나는 몸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

1. 식사

내 몸을 살살이 쳐다본 적이 언제였는가. 내 몸을 똑바로 쳐다본 적이 있었던가. 어떤 이미지를 재현하지 않은 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몸을 연기하지 않은 채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내 몸을 직시한 적이 있었던가. 나는 내 몸을 똑바로 바라볼 때 견딜 수 없을 만큼 불쾌한 기분이 든다. 내 몸에 대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내 몸은 항상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나를 불쾌하게 만든다.

2. 알몸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벗은 몸을 바라본다. 나는 불쾌하다. 노란 피부, 처진 유방, 둥근 배, 두꺼운 허벅지. 저 몸은 내가 어젯밤 꿈속에서 그리던 나의 몸과 다르다. 나는 저런 몸을 가진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나는 더 날씬하고 탄력 있는 몸매를 가진 매끈하고 하얀 피부의 젊은 여성이어야 한다. 하지만 더욱 불쾌한 사실은, 거울 속의 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이다. 내 의지에 100% 맞추어 움직일 수 없는 뻣뻣한 관절, 내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지방을 품고 있는 배와 허벅지, 내 희망보다 누르고 우물쭈물한 피부 속은 거죽. 내가 연가하는 육체에 비해 나의 몸은 보잘 것 없다. 나의 시선으로부터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 나는 상급하 옷을 입는다. 옷 속으로 몸이 숨겨지자 나는 현지 모를 안도의 기분이 든다.

3. 배탈

변기 위에 앉은 채 나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 아랫배의 통증이 나를 괴롭힌다. 배탈이 났다. 4시간 전에 무엇을 먹었는지 짐작해본다. 아까 먹었던 우유가 상한 것이 틀림없다. 내가 마신 우유가 식도와 위장을 지나 소장과 대장을 통과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곧 변기 안에서 악취를 풍기고 있겠지. 나는 우연가를 삼키고 우연가를 배설해내는 몸을 가졌다. 한 겹 피부 아래에서는 붉고 축축한 내장이 내 몸 속을 가득 채우고 있을 것이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칠 때, 나는 물을 내리고 화장실에서 도망쳐 나온다.



4. 월경

월경혈이 내 몸에서 흘러나온다. 그리고 항검으로 만든 월경대를 흡혈 적신다. 월경혈을 잔뜩 집어삼켜 축축해진 월경대를 찬물에 집어넣는다. 시뻘건 피가 확 퍼져나간다. 피비린내가 난다. 이상하다. 때로는 신기하다.

내 몸에서 피가 나온다는 사실이 정말이지 이상하다. 다리 사이에서 주르륵 흐르는 월경혈에서 느껴지는 온도와 감촉은 정말이지 기묘하다.

5. 뱃살

뱃살을 바라본다. 지금까지 내가 맛있게 먹었던 음식, 친구들과 마신 술, 침대 위에 누워서 책을 읽던 시간, 소파에 누워 좋아하는 쇼프로를 보면서 깔깔대던 시간. 그러한 과거의 경험들이 내 몸에 달라붙어 있다. 그 경험들이 나의 배에 붙어있는 살이 되었다. 내 배에 붙어있는 지방을 내 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지방에 달라붙어있는, 그래도 제법 행복했던 수많은 경험들이 내 경험들이 아니라고 모두 부정해버렸다. 잊어야 하는, 지워야 하는 기억으로 몰아붙였다. 뱃살이 내 몸에서 없애버려야 할 이물질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 모든 기억은 게으르고 탐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과거가 되어버렸다.

6. 만져본다

그렇지만 나는 다시 몸을 바라본다. 몸에서 오는 낯설음을 바라본다. 내 몸인데 왜 낯선지 생각해본다. 그리고 흘린 땀은 채, 멎대로 굴러다니는 내 몸을 바라본다. 방금 먹은 음식을 열심히 소화하고 있는 위장의 움직임을 느껴보려고 한다. 월경혈이 월경대를 흡혈 적시는 것을 지켜본다. 말랑말랑해진 뱃살을 만져 직거래한다. 술머시 불쾌해하지만 그래도 계속 해본다. 나쁘지 않다고 억지로 말해본다. 언젠가는 내 몸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겠지?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그래도 불쾌하다. 어떡하지?

나는 몸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

by 8월에서 몸들이 버려진 내려와 커린



몸 관 찰 지 은 가 다

얼마전 나는 병무청에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러 갔다. 폐결핵을 앓는 바람에 기도가 좁아졌고 그래서 병원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의사는 나에게 병사용 진단서를 써줬고, "당신의 기관지에 있는 병은 일종의 장애이기 때문에 군면제 혹은 공익근무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살을 뺀다면 훨씬 편하게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진단서 하나를 들고 컨테이너 벨트에 오른 나사가 채 조여지지 않은 공산품 마냥 오전 내내 여기저기로 끌려가 내 몸에 대한 판정을 들어야 했다.

모든 것이 너무 명확해지던 순간이었다. 병원과 병무청, 그리고 그곳의 의사들은 내 몸을 해집어 정상인 이유와 비정상인 이유를 하나씩 냈다. 그러는 동안 단 한순간도 내가 어떤 상태인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의사는 내 몸의 질병을 판단했고, 군대는 그것을 확인하고 판정 내렸다. "그들은 나를 억압했다."는 사실은 너무 명확

했다. 너무 명확해서 오히려 나는 차라리 속이 시원하다는 생각도 했다.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나에게 대한 규범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나는 그 규범들에 대해 더 많이 설명해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병원과 병무청을 오가며 겪었던 일련의 사건들은 규범들이 나를 어떻게 '배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백한 현장 증거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억압받았다는 사실을 내 언어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치유하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내 뱃살을 칼로 도려내는 망상에 사로잡혀야만 했다. 뭔가 불안했다.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날 친구에게 내가 병원과 병무청에 경험한 것들이 얼마나 나에게 '폭력적'이었는지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내가 그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와 '피해'들을 이야기했다. 내 뱃살을 칼로 도려내는 망상은 설명할 수 없었기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나는 충분히 지금의 나를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아직 설명되지 못한 남겨진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더 명확한 언어로 설명하려고 노력할수록 어쩌면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결국 내 목젢을 짓눌러 억지로 토를 하고 체중계에 올라 몸무게를 체크하는 순간 내 몸이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았다. 설명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몸이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 시작은 의사의 말이었다. 내 몸이 여느 '정상'인의 몸과는 다르다는 말은 내 몸에 엄청난 불일치를 야기했다. 장애에 대한 두려움과 내 몸을 판정하는 의사에 대한 저항과 군대에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안도,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몸에 일어났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은 내가 폭력적인 상황에 처했고,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다는 단순한 인과관계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공간이 '장애'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했었는지에 대한 것이었으며, '정상적'으로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나를 '비정상'의 범주로 밀어 넣을 것인지에 대한 공포였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여겨야 한다고 생

각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상상했던 것처럼 명확하게 가해와 피해가 존재하지 않았다. 사실 나는 내 몸에서 겹쳐지고 있는 복잡한 관계들과 상황들, 기억들이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알 수 없었다. 나는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언제나 당연히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나는 내 몸과 함께 살아가는 내 몸, 내가 정의한 피해를 입증하는데 몸을 동원했다. 몸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다 중요했던 것은 몸의 반응이 내가 정의한 지금의 나와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래서 몸이 구토하는 순간에도 이것이 피해의 흔적을 주장하려 했다.

나는 몸이 타자로서 살아온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내 몸과 함께 살 고민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고매한' 주체정신을 지키기 위해 의사의 말과, 병무청의 컨베이어벨트를 '피해'로 치환하여 몸에 전가 시켰다. 정신은 언제나 나의 판단을 하지만, 몸은 언제나 상처가 생기고, 흔적이 묻기 때문에 혐오해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 모든 것이 '내 뜻과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순간들마다 내 몸을 부정하고, 내몰았다. 그렇게 나는 '나'를 설명하기 위해 몸의 언어들을 동원했다. 의사의 말을 폭력적인 말로 설명하기 위해 내 몸의 구토를 동원했고, 병무청의 무자비한 신체검열을 설명하기 위해 내 몸에 찾아온 불면증을 동원했다. 그래서 내 몸의 언어와 기억들은 언제나 설명되지 않는 잉여로만 남겨졌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과 함께 살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몸에게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쉽게 내 몸을 긍정한답시고, 의사가 뭐라고 말했어도, 병무청에서 온갖 기계들이 나의 신체등급을 매기기 위해 어떻게 달려들어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몸은 "괜찮지" 않았다. 몸은 더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내가 내 몸을 좀 더 긍정해야 한다는 맥락과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었다. 나는 몸의 이야기를 좀 더 온전히 드러냄으로써, 이제껏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과 다시 마주했다. 장애에 대한 차별이, 군대의 가부장적 언어가 단지 나의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몸에 간섭되고 경계지워지는 구체적인 삶의 공간이라는 것과 다시 마주했다. 나는 몸이 괜찮지 않을뿐더러, 몸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몸을 타자화하고 배제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몸과 함께 살기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몸은 내가 살아온 공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나만의 방식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군대가 얼마나 폭력적인 공간인지에 대해서만 설명하던 순간들에도 몸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무수한 경계들이 다시 얹혀드는 그 모든 불일치와 비틀림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었다. 몸은 단지 피해의 흔적을 기록한 일기장이 아니라, 그 공간을 함께 살아가는 나의 '관계'들이었다.

때문에 일상의 공간에서 매순간 타자화되고 있는 몸의 역겨움과 애매모호한, 혼란스러움, 정의되지 않음 같은 것들에도 불구하고 왜 몸의 이야기를 다시 드러내어 이야기해야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일상적으로 타자화 했던 몸, 그래서 역겹기도, 혐오스럽기도, 과몰입기도 했던 몸에게 괜찮다며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끊임없이 타자화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왜 몸의 이야기들을 드러내는 것이 내 삶에서 의미 있는 일이며, 또 몸의 이야기들이 어떤 다른 방식의 이야기들을 가능하게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몸과 함께 산다는 것은 몸이 드러내는 이야기들을 포착하고 마주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어야 한다. 몸의 경험을 설명되지 않는 비이성적이고 병리적인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또 그것을 '나'라는 주체의 언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규제하고 조절하지 않아야 한다. 몸의 이야기를 그대로 드러내어 몸의 삶과 일상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와 역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과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

by 몸 말하는 나누기

되는데로 타자치기: 유동하는 섹슈얼리티, 유동하는 몸과

고통과 환희와



1. 커밍아웃할 때 나는 '레즈비언' 정도로만 말했다. '이성애' '여성'에 맞지 않음을 설명해야 했고, 풀어야 했기 때문이다. '아무도 묻지 않고 궁금해 하지 않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해야 하는 지난함' 그 가운데 커밍아웃의 파장은 늘 생각보다 작았다.

나를 두렵게 만든 것은 엄밀히 따지자면 '레즈비언'에 덧대어진 식상한 편견만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내가 무뎌지고 발화해야만 하는 상황, 최소한 상대에게 정직하다고 여겨지기 위해 내가 취해야만 하는 태도와 그 사이에서 휘발된 나의 진실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예를 들어 총여실은 침묵하는 자를 이성애자로 치환하지 않을 정도의 예의를 유지하는 공간이다. 총여실 바깥으로 가면 나의 몸은 예외 없이 '이성애자' '여성'으로 읽힌다. 내가 뭘 의도했든 전혀 엉뚱하게 하나의 몸으로만 읽힌다. 가끔 원피스 입고 하이힐 신고 수업에 가면 "소개팅 하나?"고 묻는다. 남성에게 욕망되어질 몸으로 읽힌다. 애인과 손잡고 있으면 새로운 남자친구인 줄 알거나 절친한 단짝인 줄 안다. 두 여자의 몸 사이에서 섹슈얼한 공기 따윈 읽어낼 리 없다. 이러한 경우 나는 유순히 '이성애자' '여성'의 몸을 흉내 낸다. 해테로 남성의 수작은 중요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으며, 다소곳한 아가씨가 되는 것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다는 것을 나의 몸은 절대 노출하지 않는다. 고학번 남자선배에게는 공손히 웃어주거나 적절히 뿌리치고, 가랑이를 활짝 벌린다거나 겨드랑이 털을 흰히 드러내는 자세는 피한다. 총여실 바깥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구도 나의 몸을 제대로 읽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호모포비아 진창에서도 퀴어들이 버섯처럼 번식할 수 있었던 조금 웃긴 조건이다. 나 역시 혐오나 낙인을 도마뱀처럼 피하면서 웃을 갈아입고, 안부 인사를 나누고, 밤늦게까지 애인과 신촌을 쏘다녔다. 이 모든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었다. 총여실에 있을 때와 총여실을 나설 때, 나의 몸은 무심한 눈으로 마크되지 않을 정도의 몸으로 순식간에 변한다. 총여실에서 가시화되는 나의 몸과 비가시화되는 나의 몸과, 강의실에서 가시화되는 나의 몸과 비가시화되는 나의 몸과, 그때 노출되거나 혐오 받는 나의 소중한 부분은 무엇이며, 밀려

오는 죄책감이나 무력감은 무엇이며, 저 사람의 몸이 대응하거나 무시할 가능성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순식간에 판단한다. 나의 몸은 그 복잡한 과정을 오래 전부터 체화해왔다. 마스제임을 구경하면서 저기 쳐든 빨간 깃발이 흉내인지, 진정인지, 진정한 척하면서 조롱하거나 속으로 울고 있는 것인지 읽어낼 수 있을 리 없다. 사지를 삼하게 뒤를지 않는 이상 나의 '레즈비언' 몸은 아주 쉽게 사라진다.

그러므로 커밍아웃은 나의 몸을 보존하려는 필사의 저항과도 같다. 소멸해가는 몸을 말로써 교정하거나 붙잡아보려는 것이다. 그때 나는 레즈비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커밍아웃은 틀렸다. 나에게도 틀렸고 상대에게도 틀렸다.

내가 실패한 증거는 잘리워진 나의 몸들에 있다. 상대방의 몸과 자아를 일렬로 정렬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공포스러워하거나 무시할 뿐이다. 이성애자라면 정상적인 몸을 내놓아라, 레즈비언이라면 모자란 몸을 내놓아라, 만약 네 몸이 비정상적이지 않다면 그건 네 말이 틀렸다는 증거이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가 발화하는 레즈비언이라는 비규범적 자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목도하는 나의 몸을 비규범적인 몸으로 분류하고 싶어 할 것을 안다. 레즈비언이라고 말을 할 때 주저하거나 혼란스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동하는 나의 몸을 전면에 내세울 정도로 나는 용기있거나 똑똑하지 못하다.

그래서 커밍아웃은 항상 부분적이다.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여성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말하기엔 나는 자주 여자라고 여겨지는 몸을 부대껴한다는 것, 여성을 사랑한다고 말하기엔 나는 자주 강렬하게 그 사람이 표출하는 낮은 목소리나 곡선이 없는 팔과 같이 남성다운 몸에 이끌린다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가끔 공격적인 소년과 같은 몸짓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아주 남성적인 표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싶다는 것도 말하지 않는다.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은 것은 해테로 남성의 시선을 끌기 위함이 아니다"고 말한다. 누군가 나를 욕망하길 바랄 때 팜프파말이나 청순미인같은 이원화된 여성 몸 이미지 외의 것을 상상하거나 조형해내기 힘들다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자신의 남성성으로 다른 여성의 남성성을 욕망하는 여성을 ftm 게이가 아니라 레즈비언 부치라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레즈비언 여성이 가진 욕망의 형태가 해테로 남성의 시각과 상당부분 겹쳐있을 때 그 여성의 욕망을 레즈비언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 이러한 질문은 커밍아웃할 때엔 숨기고 본다. 분명히 존재했던 이성연애의 경험이나 그 시절의 관계를 통해 몸에 각인된 기쁨과 습관들에 대해서는 더욱 말할 수가 없다. '이성애자' '여성'으로 읽히는 나의 표피를 반증하기 위해 유용한 몸들 이외의 잉여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다. 결국 나는 말-대화의 가능성을 위해 몸을 왜곡하거나 과장한다. 내가 왜 교정해야 하는가? 내가 왜 아무도 관심 없는 이 주장을 지켜내기 위해 발가벗고 달려들어야 하는가?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뭘때? 내가 발가벗기 위해 뭘 더 착용하거나 벗겨내야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나조차도 각색 없이 나의 몸을 서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몸은 항상 나중이었고 이성애자 혹은 LGBTAIQ라는 섹슈얼리티가 먼저였다. 그러한 순차에 일치하지 않는 시절에 대해서는 커밍아웃을 할 때도, 혼잣말이라도 발설하지 않았다. 지남여를 현장 활동에 갔을 때 나는 공중목욕탕에 가지 않고 혼자 숙소에서 샤워를 했다. 단체로 여탕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고, 내 몸을 다른 여성에게 내보이기 싫었다. 지난겨울에는 친구와 목욕에 있는 찜질방에 갔다. 여자와 연애하면서 느끼는 행복감에 대해 얘기하면서 부끄러움이나 초조함 없이 오래 탕에 앉아있었다. 여

몸에 몸이 겪었던 부대낌이 레즈비언 섹슈얼리티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무성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들의 공간에 출입할 때 레즈비언이 느끼는 이질감이라거나 벗은 여성의 몸이 즐비한 공간에서 레즈비언이 느끼는 수치심이나 성적자극 같은 것으로? 그렇다면 겨울에 겪었던 편안함에 대해서는? 갑자기 레즈비언이 아니게 되었다거나 사실은 여름부터 레즈비언이 아니었다고 설명해야 하는 걸까? 그건 섹슈얼리티를 먼저 고정시키고 거기에 몸을 편입시키는 설명이다. 오히려 내가 확실하게 커밍아웃한 쪽은 목동의 친구였다. 게다가 나의 몸은 두 계절을 겪었고 부대낌과 편안함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 내가 레즈비언이고 상대가 여자이면 무조건 벗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누구와 있는가, 누구에게 어떤 몸으로 보이고 싶은가에 따라 나의 벗은 몸은 굉장히 야한 장면이 되기도 했고 나란히 앉은 친숙한 사람이 되기도 했다. 이전까지 그 사람이나 그 공간과 쌓아왔던 시간들, 그를 통해 만들어왔던 자아상이나 상대에 대한 믿음 같은 것들이 내 몸에 각인되어 있었고 나는 그 몸의 감각을 따라서 옷을 벗거나 췌어 입었다. 그러나 내가 레즈비언의 서사를 완성하기 위해 채택해 왔던 것은 언제나 여름이었지 겨울은 아니었다.

총여실 안이건 밖이건 나의 다른 몸에 대해 어필할 때는 규범에 속하지 못하는 고통을 중심으로, 상대의 상상가능 영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인지되고 신뢰감을 주고 이후 조금의 대화라도 이어갈 수 있으므로,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나조차 스스로를 파악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지 않도록, 내가 설명할 수 있는 형태로 몸을 기억하기 위해서, 얼어붙은 항구여라도 정박하기 위해 손가락 한 두 개 쯤 떨어져 나가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이성애자 아니다' '여성이 아니다' 늘 무엇이 아니라고 항변하며 나는 한 발씩 반갑아 들어 올리면서 저 늪에 너무 깊게 빠져들지 않기만을 시도해온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규범이 실패한 증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레즈비언이라고 발화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다.

나라고 만날날 지짓말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가끔 여성이 '하닌' 이성애자가 '하닌' 몸으로 입히고 싶어 안달을 낼 때도 있다. 게다가 나는 몸을 완벽히 통제 할 만큼 철저한 사람이 아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에 나는 몸을 졸졸 흘리고 다닌다. 소녀시대 포스터 앞에서 한껏 풀어진 표정으로 우리가 섹시하다고 말해본다. 술자리에서 애인의 얼굴이 예뻐 보이면 손을 꼭 쥐어보기도 한다. 당장 안아버리고 싶다는 제스처같은 것은 도저히 숨길 수 없다. 그래도 모른다. 모두는 모르는 것 같다. 말하고 나면 그제야 그럴 줄 알았다고 한다. 그들이 내 몸에 차고 넘치는 레즈비언을 읽어낼 줄 모르는 것은 그들이 아는 몸이란 이성애자 여성/이성애자 남성/나머지의 세 종류밖에 없기 때문이다. 머리가 길고 치마를 입은 나는 이성애자 여성으로 패싱되기 때문이다.

발화하지 않으면 몸은 마크되지 않는다니 아이러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는 무엇보다 몸적인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럴법하다. 이성애자 여성/이성애자 남성에게 부여된 현란한 몸-이미지가 있고 아직도 80년대에 사는 듯 천편일률적인 퀴어의 몸-이미지가 있다. 그 둘 사이의 간극만큼 맹점은 확장된다. 목소리가 낮은 남자에게 비규범적 남성성을 부여하고 그건 곧 게이정체성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진다. 머리가 짧은 여자에게 비규범적 여성성을 부여하고 그것 역시 레즈비언 정체성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그들의 가시거리는 고작해야 그 정도에 불과하다. 퀴어퍼레이드만 나가도 저기에 모인 게이나 레즈비언의 목소리와 머리스타일이 수만 가지 넘게 샘플링 될 것이

다. 몸의 굴곡을 최대한 삭제할 수 있는 옷을 입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홀태안경을 썼을 때 연희관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곳에선 여성으로 나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이성애 규범은 자신이 보고 싶은 몸만을 분절화하여 인지하고 나머지는 알아보지도 못한다.¹⁾

남성/여성/나머지라는 세 가지 종류의 몸을 상징하고, 그 비좁은 참조체계를 정체성의 지표로 삼을 때 발생하는 수많은 오독의 가능성만 나열해도 종이가 모자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이 치마를 입지 않는다거나 남자와 어울려 축구를 한다면 그녀는 손쉽게 레즈비언 부치로 해석되기 쉽다. 그러나 이성애자 부치와 레즈비언 부치가 치마에 대해서, 축구에 대해서 의미화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다. 혹은 비수술 ftm과 레즈비언 부치가 남성성을 대하는 감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 각각이 여성의 몸이나 남성의 몸과 연관지어지는 방식 역시 너무나 다를 것이다. 표피는 저게 치마인지 바지인지, 저 동작이 요가인지 축구인지만 겨우 구별할 줄 알지 다른 적합한 지표는 설정하지 못한다. 초라한 몇 개의 관용구만 주워들고 한 사람의 몸을 비규범적이라고 말하고 그러므로 저 사람의 정체성은 비규범적이라고 말한다. 해태로 남성의 거들먹거리는 동작을 충실히 수행하는 마초 게이,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 가면 자주 mtf로 통하는 얼굴의 ftm, 그 복잡다단한 몸과 섹슈얼리티의 사슬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만 구획하려 하는가? 수천의 사람들이 스스로의 표피를 어떻게 수만가지로 의미화하는지, 오래되고도 내밀한 욕망들을 다시 그 표피로 어떻게 분출하고 있는지를 규범으로는 도저히 알아보지 못한다. 몸의 오독은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두 개로 분류할 수 없음에 대한 가장 확고한 증거다.

한편 나는 이러한 오독의 체계에 나의 몸을 한발씩 담겼다 뺐다 하며 놀기도 한다. 지배규범의 허술함은 상대가 나에게 어떤 섹슈얼리티를 부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내 몸의 (표피상으로는) 동일한 포인트가 순식간에 아름다운 것이 되거나 완전히 추악한 것으로 전락한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눈이 작다. 이성애 여성으로 패싱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나의 작은 눈은 운 좋으면 사나워 보이고 그냥 보면 못생겼다. 뺨꺼풀 수술은 안하냐는 물음도 이때 자주 듣는다. 단발머리를 하고 치마를 입은 내가 스포츠머리에 바지를 입은 애인과 레즈비언 커뮤니티에 가면 '예쁜 부치'와 어울리는 '단아한 펌'이 될 수도 있다. 겨울에는 목뒤가 흰하게 머리를 자르고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LGBTQ 모임에 갔다.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진행된 이 모임에서 나는 '정일우 닮았다' '잘생겼다'는 말을 2연타로 들었다. 해석의 반전, 역전의 통쾌감! 작은 눈은 나를 못생긴(이성애) 여성, 단아한 펌, 잘생긴 부치(혹은 전전, 게이, mtf나 ftm???)으로 만들었다. 나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나의 섹슈얼리티에 따라 각자는 나의 아름다움을 다르게 발굴했다.

아름다움에 대한 해석, 목소리나 표정과 말투, 섹슈얼리티는 시각이나 청각, 촉각과 같은 감각으로 인지되는 성적인 존재에 대한 미학, 인간의 몸에 대한 미학이 아닐까? 경합한다는 정체성의 목록들은 늘 나에게 대해서 일부 감추거나 과장했다. 딸/누나/여자친구/여학생/레즈비언/양성애자/낯의 언어/라는 것이 한 사람의 낯선 미모에 대해서 절실하게 감탄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 /구조화된 서

1) 반면 눈화장을 하고 귀걸이를 착용했을 때 여자친구 동호회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레즈비언 커뮤니티인 그곳에선 어떤 스타일에 반발티로 드러났던 부치로 나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이성애 여성 섹슈얼리티, 레즈비언 부치 섹슈얼리티라는 인지체계를 통해 나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틀에서 벗어난 몸을 나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재미있다.

랍/들/가운데 하나/에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재빨리 정리하려 든다는 것에 대해 항상 막연하게나마 불만이였다. 이분법에 바탕을 둔 섹스-젠더 규범은 폐기될 필요가 있다.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고 전혀 아름답지 않다.

2. 다음은 한 사람과의 연애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성에 경험을 할 때와 동성에 경험을 할 때 나의 몸은 스스로에게 완전히 다른 얼굴로 변했다.²⁾ 그것은 달의 앞면-뒷면처럼 엇비슷한 재질이나 균질한 구의 형태로 수렴될만한 다름이 아니었다. 굳이 이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어드는 까닭은 나의 몸이 변화해온 여정, 상대의 몸과 파열해온 장면에 대해 보다 세세하게 묘사해두고 싶기 때문이다. 사랑이라는 관계 앞에서 나는 어느 쪽으로도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다. 보다 직접적인 탐구자가 되어야만 했다. 한 사람의 섹스윌리티를 궁금해 해야 했고, 그것은 과연 친구의 말대로 이제까지 읽었던 어떤 소설이나 영화보다 방대한 양의 텍스트와 같았다. 그리고 나에게 대해서, 왜 나는 이런 치마와 샌달을 꺼내어 입었는가, 내가 왜 저 사람을 이토록 바라는가 그리고 어떻게 바라는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납득할만한 답을 하고 싶었다. 어느 하나 대중 넘어갈 수가 없었고 특히나 그러한 변화가 왜 이성에 경험과 동성에 경험이라는 변화와 겹쳐서 밀려온 것인가라는 질문은 나에게 너무나 중요했다.

재미있는 풍경을 크로키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나는 데이트할 때 예전보다 치마를 더 자주 입는다. 긴 치마는 초록색과 빨간색 꽃이 그려져 있고 짧은 치마는 발레리나같이 퍼져간다. 치마를 입고 머리띠를 두르거나 하이힐을 코디하거나 하여간 더 아가씨같이 입는다. 속옷을 레이스 버전으로 골라 보기도 한다. 오래전부터 남색이나 살색의 단색 속옷이 아니면 입지를 않았다. 여자 같은 치마나 여자 같은 속옷을 기피했던 중학교 무렵부터의 습관은 그것들이 연상시키는 여성성에 대한 기피에 가까웠다. 스포츠 브라를 입고가면 어김없이 당기고 놀리던 남자애들, 치마교복을 입고가면 하교길에서 가끔 마주치고 언제나 두려웠던 자위하는 아저씨들, 속옷입고 치마 입은 몸으로 부딪쳤던 다른 사람의 몸은 주로 남자 같았다. 너무 직접적으로 여성의 몸을 드러내는 복식은 너무 직접적으로 남자애들이나 아저씨에게 노출되는 방식이라고 몸은 기억하고 있다. 성적인 느낌으로 여성의 몸을 보거나, 내가 그런 여성의 몸을 해보거나 그 양쪽 모두 부대끼긴 마찬가지였다.

예전에 애인은 내가 머리를 길게 기르거나 하얀 블라우스를 입으면 참을 수 없이 예뻐진다고 말했다. 틀림없이 여성적인 면모로 해석되는 나의 몸을 애인이 다시 틀림없이 아름다운 포인트로 해석해왔을 때 나는 자주 맥이 빠지는 느낌이었다. 그때 우리의 관계는 명백한 이성연애였고 나도, 애인도 그 밖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놀랄 만큼 무지했다. 관계를 정의하기 쉬울수록 상대에 대해선 궁금할 것이 없어졌다. 여성의 여성성으로 남성의 남성성에게 어필한다. 혹은 남성의 남성적 시선에 의해 여성의 여성적 몸으로 욕망되길 바란다는 이성애주의의 서사는 우리에게 예측불허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두 사람의 만남이 더 이상 불가사의한 사건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편입될 때, 사랑은 손쉽게 무력

²⁾ 이 경험을 이성애-동성애를 붙이는 것은 그 외에 다른 말로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어서 이다.

해진다. 그때 나는 다수에게 착종되거나 수능점수처럼 위계화될 수 있는 영역 중 한 칸에 온몸으로 소속되어진 느낌이었었고, 그 중에서도 낮은 등급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못난 외모에 대한 열등감, 그럼에도 내가 여자의 몸이 되기를 자인한 것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것을 느꼈다.

사실 변화한 것은 치마나 레이스 속옷의 착용 빈도가 아니라 그걸 착용하고 내가 거울 앞에 섰을 때, 애인 앞에 섰을 때, 밤이 되고 애인이 그것들을 부비고 만져줄 때의 감정들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상대가 TV에 비치는 여배우의 표정이나 현대백화점 지하 화장품 광고판을 보고 예쁘다고 말하는 것을 나는 약간 질투하며 기억해둔다. 이후 어떤 날에는 그 사람이 반응을 보였던 여러 사람의 여성을 나도 흥내내어본다. 다음 날에 일부를 벗어버리고 다른 일부를 착용해보기도 한다. 이것에 대해 내가 기억하는 느낌은 둘이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는 것 같이 은밀하고 유쾌하고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장난을 하는 느낌이다. 다가왔다 멀어지고 이어지는 놀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붙잡았다 싶으면 곧 둘의 위치가 뒤바뀌어 버리는 느낌, 결국은 누구도 완전히 술래나 도망자 중 하나로 역할할 수 없고 누구도 완전히 상대방을 멈추거나 붙잡을 수 없고 한 문장을 말하고 뒤돌아섰을 때 내가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상대의 일면일 뿐 다시 등 뒤에서 뛰고 구르고 기어오르고 있으며, 다음에 고개를 돌렸을 때 상대는 틀림없이 예측할 수 없는 포즈로 나를 향해 달려들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같은 것들. 내가 예전보다 활발하게 여성의 몸을 재현하게 된 것은 오히려 이러한 감정의 변화가 수반해온 이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피할 수 없었던 혼돈과 변화를 애인의 해부학적 성별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나에게 중요했던 것은 성별은 언제나 유동하는 상태에 놓여있다는 사실이고 그 사실을 동성에 경험을 하는 와중에 알게 되었다는 변화였다. 펠로 보이는 내가 야한 속옷을 입었고, 부치로 보이는 애인이 레이스를 욕망했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기존의 가부장적인 이성연애 모델과 같다고 쉽게 말할지도 모른다. 야한 속옷을 입는 여성의 몸은 곧 남성적 시선에 복종한 몸으로 읽힐 수 있고 그녀의 몸을 욕망하는 여성은 남성적 시선을 내면화한 몸으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옷을 들추어내며 이렇게 물어본다. 여성의 속옷은 남성만이 욕망할 수 있는가? 혹은 여성의 속옷을 욕망하는 특징은 언제나 남성성에 포함되는가? 여자 애인이 아주 공격적인 몸짓이나 표정으로 나를 대할 때의 남성성과 길거리의 술 취한 아저씨가 비틀거리며 다가올 때의 남성성과 귀여운 후배를 지키려는 오빠의 자세를 견지했던 반 선배의 남성성은 모두가 나의 여성성을 욕망했지만 모두는 나의 몸에 다른 반응을 야기했다. 어떤 남성성은 믿을 수 없는 환희였고, 어떤 남성성은 성폭력의 위협이었고, 어떤 남성성은 식상한 대상화의 반복이었다. 남성성이란 언제나 남성의 몸에서만 표출되는가? 혹은 남성성에 의해 욕망되면서도 여성의 몸이 위축되거나 잠식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몸의 표피나 일회적인 행동만으로는 몸과 몸의 충돌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어떠한 몸의 움직임을 규범적인 몸/비규범적인 몸 중에 하나로 딱 떨어지게 나눌 수 있다는 믿음은 오로지 그러한 몸을 정상적인 몸/비정상적인 몸, 혹은 흥분되는 몸/무성적인 몸으로 명명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호명해온 근거 없는 참조체계에서 기인한 것일 뿐, 몸 자체의 어떤 속성으로부터 기인한 것은 아니다. 몸은 충분히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었고, 우리는 몸을 규범과 참조체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유토피아에 위치시키지 않고도 충분히 몸에 전복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몸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성애자×비이성애자]*[남성×여성]이라는 매트릭스로부터 초월한 정체성을 가졌지나 가지길 원하지 않는다. 이곳의 상징체계가 인지체계를 갑자기 소거할 수도 없고 그 사이에서 형성되어온 나의 몸-역사는 분명히 존재한다. 오히려 나는 누구보다 예의를 갖추어 그러한 매트릭스의 한 복판으로 뛰어들 생각이다. 몸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체계를 소환해서 착용하고 이리 저리 늘어뜨리고 가장자리를 깎뜨르게 만들어 본다. 조금씩 인지되지 않았거나 상상되지 않았던 조합을 만들어보고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는가를 유심히 지켜본다.

[여성으로/젠으로/전천으로] × [키스를 한다/끌어 안는다/삽입 한다/받는다/옷을 입는다/달려 간다/운다/웃는다]…… 앞과 뒤의 항목을 정확히 열거할 수는 없다. 한 사람과 만날 때에도, 단 하루에도 팔호 안의 내용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을 않는다. [나의 정체]×[나의 행위] * [상대의 정체]×[상대의 행위]라는 매트릭스는 나를 죽은 듯이 누워있는 몸으로도 만들었고 뱀같이 요망스럽거나 으르렁대는 몸으로도 만들었다. 세상에서 제일 이른 가슴도 만들었고 도려내고 싶은 유방을 만들었다. 몸은 탄탄해졌고 필요 이상으로 추악하거나 유약해졌다. 그 모든 과정에서 나의 몸은 우연과 위험에 완벽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그 몸들은 모두 나였고, 나는 그 때의 느낌에 관해서라면 한 치도 까먹지 않았다.

양극화된 몸-보여짐의 지점에 서서 서로 외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보여짐보다 한 차원 높거나 낮은 뒤섞임의 상태, 여러 개의 눈과 여러 개의 귀와 극도로 예민한 십 수 개의 손가락이 멀멀 뿔뿔이 서로의 몸을 탐구하고 침범하고 조형하는 상태…… 욕망의 위계화 없이, 표피에 식상한 섹슈얼리티를 덧바르는 구도가 없이 몸과 몸이 뒤섞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떠한 몸의 경험과 느낌도 찾아들지 않고 외려 왕왕대며 진폭을 넓혀나가는 만남은 어떤 것일까?

나의 몸이 표피상으로는 완벽하게 동일한 체위나 작년과 같은 옷을 입고 있다하더라도 나와 상대의 유동하는 섹슈얼리티는 그것을 동일한 몸이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 한 사람과 똑같은 비좁은 방에 누워서 천 번의 밤을 보낸다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는 잊을 수 없는 감정이나 강렬한 사랑함-사랑받음의 기억들에 대해서는 몸이 때면 완전히 낯설은 형태로 기억하고 반응한다는 것. 나와 너의 섹슈얼리티가 유동하는 장소, 두 개의 몸이 그 장소에서 잘 때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예측불가의 영역임을 자인하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해명의 최전선이다.

이제 나는 섹슈얼리티, 성별정체성, 몸을 입고 태어나 살아가는 나날들에 두려움없이 직면하기 위해 나의 가장 사소하고 귀중한 부분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한 명의 구체적이고 예외적인 개인과 무관하게 무엇을 말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졌다. 남자, 여자, 레즈비언, 그동안 정답처럼 제출해왔던 문항들로는 그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다. 나는 그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것을 사무치게 안다. 곱아지던 등, 고여 베어 나온 물, 그림자가 번지고 줄줄 흐르는 먼지, 머리카락 같은 것들, 어두움에 익숙해지자 눈이 발견해낸 하얗던 이와 그때 넘치도록 기뻐던 것을 기억한다. 오래도록 경이로운 눈으로 한 사람을 바라보고 미끈미끈한 손목을 번번이 놓쳐보고 그래서…… 나조차 못 알아볼 정도로 완전히 낯선 몸이 될 것이다. 온 힘을 다해 단 한 사람에게 익숙해지길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비명을 지르고 목이 설 때까지 울 것이다.

by 위치는 밝은 미래 기러기

섹스-젠더-섹슈얼리티를 둘러싼 범주의 재구성 - 몸의 경험을 중심으로



나는 나에게
대답할 수
있어야 했다

얼마 전, 친하지도 않은 누군가들이 나에게 짓궂게 '혹시 게이예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당황했다. 그간 적잖게 저런 식의 질문 아닌 질문들을 받아왔고, 그런 경험이 늘수록 더 이상 당황하지 않고 요령있게 피하는 법을 익혀왔지만, 그 날은 전갈지 않게 당황했다. 물론 저 질문은 '일반남성' 같지 않은 나의 몸짓이나 말투를 보고 '게이' 일지도 모른다는 수근거림 끝에 마지막 확인차로서 나의 대답, 혹은 반응을 보고 싶었던 것이라는 걸 안다. 나는 저 질문을 받기 전부터 그 이들의 수근거림을 눈치챘었고, 언젠간 물어올지도 모른다는 걸 예감하고 있었고, 어떤 표정과 말투로 대답하면 좋을지도 생각해왔었다. 게이냐는 추궁에는 익숙해져 있었고, 그렇기에 크게 당황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 날만큼은, 생각해놓은 대로 요령껏 피해가면서도, 내 마음 어딘가에 그냥 흘러보낼 수 없는 당혹스러움의 응어리가 떠올랐다.

저 날로부터 반년 전쯤,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장소와 사람들과 질문의 맥락은 전혀 달랐다. 그 날에 난 청소년자운동단체 사람들과 있었고, 나를 당연히 이성애자남성이라고 전제하고 있지도 않았고, 나를 이상하다는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도 없었고, 그 질문은 질문이었다. 나는 나의 성/별정체성을 그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내 입으로 말한 적이 없었기에 그 자리의 많은 사람들은 남성으로 보이는 나를 막연하게 게이라고 생각하

고 있었지 않을까 한다. 나도 그게 편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게이예요?' 라는 질문은 정말로 나를 당황하게 했다. 해테로 색수업리터가 '참살'이라고 여겨지는 장소에서 그 정상성의 권력으로 나의 '비정상성'을 스스로 까발리라고 공격하는 맥락에서 게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요령껏 잘 넘기려고 노력하면 끝이었다. 하지만 그런 맥락이 아니었던 질문은 실물리 넘길 수가 없었다. 나는 대답해야 했고(대답하고 싶었고) 대답을 하기 위해 나는 내 자신에게 물어야 했다. 나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반 년동안 그 질문을 애써 묻어두고 살았다. 그러다 얼마 전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그 기억과 질문이 떠올랐고, 그 질문이 불현듯 나를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나의 성/별 정체성을 무어라고 명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가.

나는 나에게 대답할 수 있어야 했다. 남성과 여성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듯한 세상에서 내가 돌아버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말이다. 세상에서 떨어져나와 있다고 느끼는 건 하루아침 일도 아니고 건달만한 일이지만, 그렇게 떨어져나와서 내가 어디쯤을 가고 있는지, 내가 뭘지 나조차도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을 때는 참 힘들더라. 그러니까 적어도 스스로는, '어떻게든' 대답할 수 있어야 했다. 더 이상 아무기에는 뭘가가 용이러져 나를 짓누르고 있었고,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다.

나는 나를 설명하기 위해 더듬거리면서 걸어갔다. 지금 돌아해보건대, 그 여정의 지표는 기존의 성/별 범주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이었다.

스물 두 살때쯤, 나는 내가 남성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런 남성으로서 나를 혐오하거나, 혹은 적색감을 느꼈다. 어떤 날이면 나는 음경이 있는 내 몸을 쳐주었고, 그 몸으로 살아온 나를 혐오했다. 그러는 동안, 나는 '일반 남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나의 경험들이 떠오르기도 했고, 지금까지 수행해 왔던 '남성성'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더 이상 나를 '일반 남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이 왔다.

그래서 내가 게이 혹은 바이안가 생각했다. 남성의 몸을 하고 있으면서도 '일반 남성'과는 다르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는 당시에 그 정도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LGBT 중에 내가 속할 수 있는 것은 G와 B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다. 나의 언어는 반박했고, 나는 어떻게든 나를 설명해야 했고, 기댈 곳이라곤 기존의 범주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밖에 없었다. '해테로 남성'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나를 명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게이 범주에 나는 속하지 못했다. 나는 '남성'으로서 '남성'을 좋아하는게 아닌 듯 했다. 그 때쯤 나에게 '남성'이라는 범주는 굉장히 불명확한 것이었다. 그럼 바이라고 하면 해결되는 걸까? 내가 좋아했던 몇몇은 '여성'이기도 했으니? 마찬가지로 '여성'이라는 범주 또한 굉장히 불명확했다. 무엇보다 나는, 남자라는 소리를 듣는게 싫었고, 나를 남자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면 많이 괴로웠는데, 내가 바이라고 나를 정체화하는 순간, 내가 남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나 자신을 설명할 수 있어야 했고, 계속 더듬거렸다. 남성으로서의 나에 대한 혐오가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동시에 계속 남성을 원기하는 나에 대한 혐오도 커져갈 때 즈음, 그럼 나를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정체화할

나는
더듬거리면서
걸어갔다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생각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나는 내가 남성으로 살아온 세월을 없앨 수 없었고, 감히 나를 '여성'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으로 태어나 여러가지 억압과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들 앞에서 수십년 간 남성으로 살아온 내가, 여전히 남성으로 대해지고 있는 내가 어떻게 감히 나를 '여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여자친구들에게 혼자 여행다녀왔다고 이야기한 후 '넌 남자니까 가능하지... 나도 가고싶다'라는 한숨섞인 그 친구의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게다가 거울 앞에 서면 남성의 몸이 보였고, 나는 그 몸을 보면서 도저히 나를 '여성'이라고 정체화할 수 없었다. 음경이 있지만 남성으로 정체화하고 있지 않은 나는 뭘까.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비수술 트랜스젠더라는 말을 들었다. 나는 기뻐하고, 나를 위한 말이 아닐까 생각했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트랜스젠더라고 정체화할 수 있구나. 하지만 나는 남작옷을 입고 다닌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남자로 대하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그것에 기대서 생활을 영위해나간다. 그런 이상 나는 나를 비수술 트랜스젠더라고 정체화할 수 없었다. 그러다 누군가 자신을 프리커밍아웃(pre-comingout) 비수술 트랜스젠더라고 설명하는 걸 보았다. 단어를 보는 순간 나는 명해졌고, 저 말이 갖는 뉘앙스가 나에게 흘러들어왔다. 나를 설명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나는 남작이라고 싶지 않다. 나는 내 남성의 몸이 싫다. 공용사위실은 고문이었다. 수술을 하진 않았다. 수술은 내 상상력 범주의 밖이기에, 수술을 하고 싶지도, 안하고 싶지도 않았다. 다시 태어났을 때도 음경이 있는 몸으로 태어나는건 생각하기 싫다. 일어나면 '여자몸'이 되어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잠들기도 한다. 그런데 나는 많은 경우 남성으로서 살고 있다. 프리커밍아웃 비수술 트랜스젠더라는 말은, 다른 어떤 말보다 나를 잘 설명해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MTF라고 했을 때, M은 대체 뭘고 F는 대체 무엇인지.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범주, 그것보다 모호한 것은 없었다. 그리고 난, 어떤 날이면 남성의 몸이 싫었지만, 또 어떤 날엔 감흥없이, 익숙하게 그 몸을 바라보기도 했다. 또한 내 몸에는 부정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남성'으로 살아온 20년의 역사가 쌓여있었다. 그 남성의 몸에 대한 익숙함과 '남성'을 수행하면서 형성해온 내 몸은 나를 MTF로 정체화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나는 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했고, 그래서 더듬거리며 걸어갔다. 어느 단어로 나를 설명하려 할때마다, 계속해서 무언가 찝찝함이 남았다. 뭘까 맞으면서도 동시에 아닌 것 같다. 단어들이 저마다의 울타리를 치고는 내 앞에 있다. 어느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나의 일부는 설명이 되었지만 일부는 묻혔고, 일부는 안정감을 얻었지만 일부는 나를 밖으로 밀었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 그 단어들에 집착할수록 울타리는 높아져 갔고, 그 경계는 명확해졌고 서로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되어갔다. 어딘가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할수록 나는 점점 더 없어지고 더욱 높아진 울타리들만 남았다. 나는 어느 울



타리로 들어가는 빈가 어중간하게 걸친 듯했고, 그렇게 걸쳐져 있는 부위는 율타리에 찢려 피가 났다. 혼란스럽기만 했다. 내 몸은 왜 이따위로 생겨먹은 걸까. 하고 생각했다.

몸의 속삭임

내가 여정의 지표로 삼았던 것은 틀렸다. 그랬기에 내 여정은 기존의 범주와 명명들이 각각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더욱 높은 율타리를 차는 것으로 귀결되었고, 그 사이에서 나의 몸은 본질로서 그 사이에서의 고통을 떠안는 것으로 끝났다. 나의 질문의 서사와 전제는 놀랍만큼 이분법적인 섹스-젠더체계의 그것과 비슷했다. "섹스-젠더 범주의 경계는 확고하다. 그러니 너는 너의 위치를 명확히 하고 그 범주의 규범에 너 자신을 맞춰라." 하지만, 그 경계라는 것이 그렇게 명확한가? 알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경계 안에는 모두 동일한 경험만이 존재하는가? 하나의 몸을 언제나 하나의 범주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 경계설정을 둘러싼 역학관계는 무엇인가? 나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물어야 했고, 그 여정 속에 되려 동화되어있던 나의 몸경험을 여정의 지표로 삼아야 했다.

그러는 와중에 내 몸은 점점 더 말라갔다. 먹고 싶은 걸 참는 게 아니라, 몸이 먹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나는 하루에 수십 번 체중계로 올라가서 무게를 달아보고, 조금이라도 숫자가 늘어있으면 내 몸은 더욱 먹기를 거부했고, 그러다보니 20kg가 넘는 수치가 줄었다. 어느 날, 그러한 나의 몸 경험이 나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몸은 음경이 있다. 동시에 나의 몸은 먹기를 거부한다. 내 몸이 먹기를 거부하는 건 여성으로서 아름다워지기 위해서였다. 음경이 있는 내 몸이 동시에 '아름다운 여성'이 되려고 하는 것은 모순일까. 이러한 몸경험을 단순히 생물학적 기관(음경)을 증거로 들이밀며 '남성의 몸'이 '잘못된 시도'를 하는 과정으로 독해하면 다 해결되는 것인가? 혹은, 의료기술을 통해 '남성의 몸'을 버리면 그 모순의 간극은 줄어들 것인가? 내 몸은 나에게, 하루빨리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범주를 선택해 거기에 내 몸을 맞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었다. 나의 몸은 오히려 이렇게 묻고 있었다. "성별정체성이 정말로 본질적이고, 그 범주의 경계는 명확한가?" 생물학적 기관(음경)을 기반으로 한 성별정체성(남성)이 본질적이며 여성/남성 범주의 경계가 명확하다면, 이러한 나의 몸경험은 존재해선 안 된다. 분명히 존재하는 나의 몸경험은 오히려, 생물학적 몸의 차이에 따른 정체성 범주가 본질적인 것이 아님을, 그 경계가 불명확함을 드러낸다. 남성의 증거인 음경이 있으니 나는 남성인가? 하지만/동시에 여성으로서 아름다워지고 싶으니 나는 여성인가? 라고 갈등하는 나를, 몸은 미소짓는 듯했다. 따르는 것이 어째서 여성-되기로 의미화되니, 음경이 있는 몸이 어째서 '남성의 몸'으로 의미화되는거니, 음경이 있으면서도 몸이 두꺼운 여성, 음경이 없으면서도 몸이 얇은 남성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나? 남성은 뭐고 여성은 뭐니? 나는-그냥-그래. 남성이면서 동시에 여성이고, 남성이 아니면서도 동시에 여성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이야 생각하건대, 나는 조금 더 현명해야 했고, 조금 더 내 몸을 어루만져 주어야 했다. 스스로 설정한, 혹은 기존에 설정된 이성-젠더 체계의 매트릭스를 둘러싼 범주들의 무게에 짓눌려, 거기에 맞춰 한 범주에만 속해야 한다고/속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나보다. 나는 유동하는 내 몸을 박제하려고 했고, 그랬기에 살해할 수 밖에 없었다. 하나의 명명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건 의미있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그 명

명에는 포섭되지 않는 몸을 남긴다. 하나의 정체성으로 나를 모두 설명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폐기해야 했다. 그러한 시도가 내게 남긴 것은 한 범주에 속하기 위해 잘라낸 몸들과, 그럼에도 잘려나가지 않아 느끼는 고통이었다. 나는 잘려져 얼렁거리는, 무어라 명명하는 동시에 율해졌던 몸을 외면하지 않아야 했다.

내 몸은 시시각각 변한다. 주로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변한다. 천하지 않은 사람들과 있을 때는 비교적 충실하게 남성의 몸을 수행한다. 나도 모르게 목소리는 낮아지고 말투나 행동은 딱딱해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를 비트랜스이성애자남성인남 인식하고, 그것은 편이를 준다. 그 때의 내 몸은 비트랜스남성이기도 하고, 혹은 드래깅이기도 하다. 그러한 인식이 짜증날 때면 살짝 다른 몸을 수행하기도 한다. 몇몇 가까운 사람들과 있을 때 내 몸은 또 다르다. 목소리는 가늘어지고 말투나 행동도 하늘하늘해진다. 만약 천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았다면 같은 사람이라고 편하게 넘길 수 없을 정도로 내 몸은 달라진다. 그 때의 내 몸은 트랜스라고 설명할 수 있다. 성애적인 관심을 갖고 있던 어느 이성애자여성 앞에서 내 몸은, 아슬아슬했던 것 같다. 남성의 몸이면서 동시에 (다른 매력은 없는 것 같으니 어쩔 수 없이, 착실한 이성애인애는 하고 싶지 않으므로) 훗날을 생각하여 트랜스여성의 몸이기도 하다. (효과는... 많이 없는듯...) 성애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남성 앞에선 또 달랐다. 내 몸은 언제나 하나의 동일한 몸도 아니고, 관계 속에서 해석되고 인식되고 형성된다.

한 순간의 내 몸도 한 가지 틀로 박제할 수 없다. 공중화장실을 가면 내 몸은 언제나 움츠러든다. 모두 부끄러움 없이 바지춤을 내밀 수 있다고 정의된 남성용 공중화장실은 내겐 고역이다. 내 몸은 역겨움과 부끄러움에 움츠러들어 조용히 문을 잠그고 좌변기를 이용하든가 남성이 나가길 기다린다. 미화죄 여성노동자가 들어올 때면 내 몸은 또 다르게 움츠러든다. 이 때의 내 몸은 비수술레즈비언트랜스젠더의 범주와 게이(혹은 바이) 범주의 경계지대에 있는 몸이다.

나는-그냥-그렇다. 내가 누구인지는 내 몸이 말해주고, 나는 조금 더 상세히 내 몸의 결 사이를 걷어가면 되는 것이다. 내가 할 것은 내 몸을 기존의 섹스-젠더-섹슈얼리티 범주에 기대어 내 몸을 하나의 단일한 범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할 것은 하나의 몸을 하나의 단일한 범주로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 그들 위해 그 범주의 규범에 맞게 내 몸을 맞추라고 요구하는 것에 반기를 드는 것이었다. 내 몸은 기존의 범주들 사이에 끼여 있는 어중간하고 이상한 몸이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다. 폐기되고 수정되어야 할 것은 내 몸이 아니다. 오히려 폐기되어야 할 것은 내 몸을 조각내고 있던 범주의 인력들, 그리고 명확하다고 인식되는 그 경계들이다.

바로 내 몸이, 그 경계들의 취약함과 집합과 모순을 드러내고 있었다. 지금 나는, 조금 더 편하다. 늘게만 보였던 율타리들은 힘을 잃어가며 허술해졌고, 그 사이에서 은폐되어 있던 틈새들이 보인다. 내 몸은 그러한 경계의 틈새 즈음에 혹은 경계지대에 머물러 있고, 그것이 이전만큼 고통스럽지 않고, 내 몸은 그 율타리들을 넘나든다.

by 흘러가고 흘러가는 송어

뜯어맞춰지는 고통, 우울에 관하여

1. 이제 그만, 소년을 위로해줘.

하지만 내 주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편하지 않아
그들이 내게 강요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 남자스러움말야
난 자꾸 그럴수록 마냥 불쾌한 듯 핑그리다가 나중엔 그냥 웃지

.....

딱 봐서 약해 보이는 녀석들은 단숨에 물리치되
나보다 강한 녀석과는 나중에 적이 되지 않기 위해 한 수레 위에 올라타야만 해
단순해 보이는 여자들에게는 매너 좋은 오빠로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남자로서 똑바로 살아가는 방법이라
이를 따라가는 광경이 내 눈에 어지럽게 맺히고만 있는데
여자가 돈 쓰는 모습은 몹쓸 짓이라고 녹슨 지갑을 꺼내며 내 친구는 얘기해야지만
내 귀엔 질어질 필요 없는 짐은 그만 내려놓으라고 말할 기회로 들릴 뿐인데...

.....

무엇다워야 한다는 가르침에 난 또 놀라, 우린 아마 이렇게 멍들어 가는지도 몰라.
큰 혼란... 물론 나를 이토록 많은 함정 속에 빠트려가는 건 바로 나 자신인걸
습관적으로 모든 일들에 익숙한 척 가슴을 펴지만
그 속에서 곪은 상처는 아주 천천히 우리들을 바보로 만들어
세상이 선물한 거울을 완전히 닦기 전에 내 그림자를 밝은 오늘을 이제는 기억해
손을 위로 드는 것 아니면 감았던 눈을 뜨는 것
가슴에 심장소리를 여전이 간직하는 당신에게 말해. 이제 당신안의 소년을 위로해줘¹⁾

1) KEBEE, 『소년을 위로해줘』, Soul Company Official Bootleg Vol.1 Album 수록곡, 2005.

사실 의외는 아니었다. 나에게 그는 늘 무리를 하는 것 같아 보였으므로, 소년은 남자가 되기 위해 분투했고, 지쳤고, 지긋지긋해졌던 모양이다. 어느 날, 그는 공허한 우울을 나에게 호소했다. 나는 알뜰한 위로의 손을 뻗었다. 알뜰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건, 내가 어리고 약하다는 핑계로 그의 무리를 외면해온 까닭이다. 어떤 언니들은 말했다. "이런 건 원래 남자가 하는 거야." 어떤 오빠들은 말했다. "남자들 다 어디 가고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해?" 그렇다. '이런 일'은 남자들의 것이었다. 나는 그와 그들의 희생-책임지고 힘든 일을 자처하는 것-을 원래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얼척없는 희생은 군 입대 문제에 와서 극에 달했다. 같이 떠돌고 웃던 친구들, 운이 좋으면 빠져 나갈 수도 있을 테지만, 대개 2년간 모든 인생계획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꼭, 꼭, 꼭 참고 견뎌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인정받는 남자다운 남성이 되기 위해서.

정말 이 모든게 당연한 건가?

군대문화에 대한 개인적 혐오는 차치하고, 대체 왜 이 나라에서는 국방의 의무가 남성들에게만 부과되는지 나는 당최 알 수가 없다. 자유롭게 누비고 살고자 할 때는 사사건건 제약을 주는 사회의 규범이 내게 국방의 의무만큼은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면제된 책임에 대해서는 금기인양 입다물고, 이등병 생활의 고통을 호소하는 친구의 이야기에 서 '다움'의 도마를 본다. 도마 위 퍼질러진 밀가루 반죽을 본다. 예쁘게 정렬된 쿠키처럼 규격화된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서, 쿠키반죽위에 틀을 찍어 모양을 만들듯 사람 위에 차가운 철제 틀을 찍어 누른다. 그러나 잉여로서 갇혀서 떨어져나가는 틀 바깥의 밀가루반죽과는 달리, 이렇게 잘라내는 것은 살아있는 살이다. 살아있는 마음이다. 팔이 조금씩 잘리고, 발가락이 조금씩 잘리고, 쓸데없는 감수성이 잘려나가고, 사상이, 신념이 잘려나가고, 고통에 머릿속이 뒤집어져 아파아파 피흘리는 친구들. 수많은 규범의 틀이 있으나, 군인을 양성해내는 공장에서 군대는 가장 적나라하게 '다움'의 틀을 강요하고 있었다.

나는 좀 더 냉철해지기로 한다.

... 그렇다면 나는 이 참상의 안전지대에 있는 것일까? 남성 바깥의 성별들은 이러한 규격화의 폭력에서 벗어나 있는 걸까? 나에게 정말 쿠키 모양을 찍어내는 틀은 강요되지 않는가? 규범은 면제되는가? 아니다, 아니다. 나는 확인할 수 있다. 소년을 위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그에게서 자기연민을 느낄 수 있었던 까닭이다. 이성애 여성으로 여겨지는 나 또한 무엇이 되어야 했다. 나는 '그'와 동질적인 압력을 느꼈고 동질적인 우울에 시달렸다. 나는 어디까지든 확장될 수 있지만, 어디로는 침투할 수 없는 '무엇'이 되어야 했다. 나 또한 도마 위의 반죽이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틀로써 나를 사람다운 사람, 여자다운 여자로 다듬고자 안달하고 있었다. 역면상 나는 이를 별 저항없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으나, 내 몸은 이질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었던 모양이다. 나는 아팠다.

2. 얼굴 길들이기

우울과 고통, 솔직히 고백하건대, 그 아픔들은 일방적으로 특정 규범을 강요당하고 그를 거부함으로써 벌어





지는 순결한 투쟁과정 속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마냥 화생하는 것 같아 보이던 '그 남자'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우울과 고통의 과정 속에서 규범에 대한 타협과 결박, 그리고 규범을 따른 후 주어지는 보상이 있었다. 규범, 성별이분법은 남성과 여성 두 성으로 사

람들을 구획했다. 이 틀에서 남자는 '위험하고 중대한 책임'을 지면서 보호하는 존재로 확

장되었다. 반면에 여자는 비교적 안전하면서 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의무를 지는 '배려'를 받으면서 보호되는 존재로 축소되었다. 여기에는 가부장제가 다분히 스며있었다. 기실 가부장제는 적통의 승계를 전제하고 있는 제도이고, 정통성을 잇는 계보에서 군복무와 같이 특정 책임을 면제받는 존재인 '열등한 여성'은 조용히 제외되어왔다는 데 슬픈 진실이 있다. 역설적으로 남성 또한 가부장제의 온전한 승자는 못된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이분법의 구도에 의해 배정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딘가 결핍된 사람으로 치부되어 불이익을 받았다. 우리는 온몸으로 우리에게 책정된 '다움'을 표현해야 했고, '다움'에 걸맞지 않은 부분은 가차없이 제거하거나 최소한 외부로 보여지지 않게 해야 했다. 이런 '다움'의 검증 후에야, 규범이 지배하는 공간의 권력 체제 안에서 유리한 위치에 안착할 수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기존 체제 질서에 대한 종속에는 자발적 측면도 분명히 존재했다. '순리대로'라면 우리도 머지않아 특정 권력 구조 안에서 '기성화' 되어 기존 체제를 공고화하게 될 것이다.

짐작할 수 있듯이 나 역시 약게 처신했다. 나는 이 사회에 막 귀속되었다는 점에서 이방인이었고, 잘 모른다는 점에서 약한 개체였다. 몸과 마음 양자를 매개로 하여 나는 규범을 '적당히' 받아들였다. 내 자신의 '정상성'을 복장, 말투, 표정 등 온갖 표현수단을 통해 호소하면서 내가 '그들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했다. 나는 가면을 썼다. 나는 사람의 마음은 안개와 같다고 생각한다. 색색의 입자로 가득 찬 거대한 안개인 마음. 어떤 사람을 응대하느냐, 어떤 상황에 마주하느냐 따라 그 입자들은 마음의 표면으로 물러와 내 표정을 형성한다.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얼굴도 있고, 친구의 흥을 보며 즐거워하는 얼굴도, 화가 나서 사납게 일그러진 얼굴도 있다. 연출된 인위성도, 속에서 우러나온 진정성도 그 때 그 때의 얼굴을 형성하는데 모두 일정 정도 가미되어 있다. 나는 내가 속한 새로운 '사회' 속에서 무난히 수용될 수 있는 얼굴을 만들기 위해, 표정을 온화하게 다듬었고 길들였다. 천편일률적인 일상 속에서 요구되는 얼굴은 변했고, 이는 하나의 가면이 되었다. 이에 대한 연장은 화장이고 옷차림이었다. 나는 내 겉모습을 길들였다. 난 내 몸을 길들였다. 나는 나를 조형하고자 했다. 이런 점에서 오랜 기간 나는 피학자인 동시에 학대자였으며, 자기분열의 지점에 서 있었다. 그럴 필요성은 충분히 있었다. 내가 있는 공간은 거대한 연애시장이기도 한 까닭이었다.

여자와 남자가 할 것 없이 팔리는 상품이 되기 위해 열을리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들은 만족스러운 교환에 성공하면 자랑스럽게 '솔드아웃Sold out'을 말했다. 자기 자신조차도 서슴없이 관리와 경영의 대상이 되었다. 가치를 매기는 서열화의 틀인 성별 이분법의 당위성을 거부하는 사람은 매력없는 사람으로 취급되는 보복을 받았다. 나의 비집힘은 여기에 있다. 말로 채 형제화되지 못한 반론을 꾸역꾸역 누르고, 그 틀에 타협하고, 그로 인해 얻어지는 이득을(혹은 불이익 받지 않음) 즐겨워했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들의 틀에 맞춰 적당히 발뻘매 나를 보았고, 나는 그들의 잘못된 독해를 방조했다. 나는 규범을 체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매력이 없는, 이성애적 연애대상으로서는 매력 없는 사람으로 치부될 때의 울컥함이 싫었다. 나만 낙오될 수는 없는 일이었다.

3. 그러나, 가면 속의 우울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어느 순간 나는 견딜 수 없어졌고, 모든 게 부질없게 느껴졌다. 아파야 할 구석이 없는 데 왜 아픈지, 왜 우울로 시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견딜 수가 없었다. 괴로웠다. 마치 구토 직전의 몸 같았다. 막상 뭔가 가득 쏟아내고 나면 시원해질 것이지만, 그러지 못해 괴로웠다.

- 정신의 구토감과 몸의 구토감은 뒤섞여있었다. 긴장이 팽팽히 신경을 잡아당기고, 압력이 정수리로 쏟아질수록 나는 내 몸을 안고 아파 쥘쥘했다. 정신이 몸의 연장인지, 몸이 정신의 연장인지, 애초에 둘의 인위적 구분이 무의미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거대한 목소리가 있었다. 나는 그 목소리가 저급한 것이 거부했다. 당최 진원지를 알 수 없는 목소리였다. 친구들이 그 목소리에 순응하면서 스스로에게 칼질을 하는 모습은 소름이 끼쳤다. 어지러웠다. 외면해도 우울해지고, 끌어안기에도 우울해지는 규범이었다.

친구가 말해주었다. '다이어트 해야돼! 뭐 좀 그랬을 때 아 내가 너무 못생겨서 그런걸까? 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살빼고 싶다. 어제 충격적인 것도 봤어... 내가 보기에 100kg 확실히 넘는 여자가 지하철을 타고 있었어. 그 여자 / 어떤 여자 / 남자 / 나 이런 순서로 타고 있었어. 여자-남자는 커플인 듯 싶었고, 여자가 (100kg 넘어보이는) 여자 때문에 자리가 좁아서 자꾸 짜증을 내는 거야. 아우씨 이러면서, 나중에 그 커플 여자가 100kg 넘는 여자분을 노려보면서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남친이랑 노려보고 자리를 떠났어. 난 너무 슬펐어. 그 언니는 얼마나 슬펐을까. 나는 그래서 지하철에서 울뻔했어. 그 언니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그 여잔 뚱뚱한 사람은 1인식을 넘어가니깐 지하철 같은건 타면 안된다는 식으로 언니한테 욕했어. 그냥 화가 나도 그런 거 겠으로 굳이 내비쳐야 했나... 나는 어제 하루종일 슬펐어요. 나 고3때는 지금보다 훨씬 살이 쪼렷었어. 그래서 지하철에서 앉기가 싫었어. 거울에 비치는데 몸이 너무 커서, 그게 너무 싫어서 자리에 앉지 않고 갔었는데, 그게 막 떠올랐고 너무 슬펐어요. 내가 살이 안 빠지고 고3때 모습이라면 옆에 있는 여자가 그 언니한테처럼 나한테도 욕했을 것 같아.' 나도 울고 싶어졌다. 4년째 친구는 정상성의



기준에 억눌려 몸을 줄이고자 노력해왔다. 눈에 띄고 싶지 않은 게 삶의 목표였고, 언제나 무난하고 평범한 선택을 해왔다. 사회의 규범에 비추어 자신이 비정상적 존재로 여겨지자 견딜 수 없이 매일매일 괴로워했고, 한 때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싫어했다.

또 다른 친구가 말해주었다. "내 남자친구는 때로 내 아빠같아." 왜 하필 아빠일까. 스물 남짓한 청년에게 아빠같다니, 넌센스가 따로 없었다. 그녀는 여리여리하게 예쁘고 말했다. 서울대에 너끈히 합격할 정도로 공부도 무척 잘해서 주변의 많은 아이들이 그 애를 부러워했다. 나는 내심 내 친구가 자랑스러웠다. 몇 년 뒤, 그 잘난 친구를 그녀의 애인이 휘어잡고 조목조목 일상에 간섭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경악스러웠다. 같이 다니면서 나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높은 하이힐과 스키니진 사이로 보이는 그 애의 가는 발목을 걱정하곤 했다. 저러다 실수로 넘어지면 저 하얗고 가는 발목은 힘없이 툭 부러질 것 같았다. 그래서 저 연약해 보이는 몸을 저 애의 남자친구는 자신이 보호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한걸까. 일상에 속속들이 스며들면서 내 친구를 그의 방식으로 빈틈없이 사랑해주고 있는 걸까. 간섭, 참견, 통제……. 내 친구 또한 그를 사랑하기에 애인이 아버지의 행세를 하는 이질감 정도야 로맨틱한 연애구도로 치환시켜 끌어안을 수 있는 걸지도 모른다. 친구가 다시 한번 말했다. "가끔은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어. 그렇지만 사랑, 하는 데... 우리 관계에 문제가 있는걸까?" 나는 선불리 말할 수가 없었다. "잘 모르겠어. 뭔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만큼은 확실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두 몸이 있었다. 퐁퐁하고 곰돌이 인형같은 몸과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이 바짝 마른 몸. 생에서 여러 번 상처가 두 몸을 관통했고, 둘 다 일정 정도의 우울을 품고 살고 있었고, 각자의 얼굴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들 또한 약한 개체였다. 규범의 목소리가 그들의 행동, 복장, 말투, 표정을 통제했고 그들은 반쯤은 자의로 그 틀을 받아들였다. 바꾸는 대상은 자기 자신이었었고, 그래서 적응은 필연적으로 순응적이었다.

식상한 어투로 말을 건다. 대상은 분명치 않다. "이런 거 너답지 않아! 그만둬!" 아마도 이렇게 받아치겠지. "나다운 게 뭔데?"

나는 뭐라 대답해야 하는 걸까.

내가 입을 열었다. 내가 말했다. 아니, 말하려 했다.

내가 원하는 삶의 양식은, 그러니까, 적어도, 나는 사실, 내가 져야 할 짐을 떠넘기고 싶지 않다. 소년을 위로하는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다. 나는 내가 외풍을 직접 맞는 게 두려워 남을 내 앞에 세우고 싶진 않다고 말하고 싶었다. 자기만의 도덕률을 세우라는 니체의 거창한 말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말하고 싶었다. 사람들의 시선을 병적으로 무시위하는 나지만, 서투르지만 낯것의 목소리를 내어 나의 언어로 말하고 싶었고, 해야 한다고 느꼈다.

나는 더 이상 내 안의 균열을 외면할 수 없었다.

by 수(水)

폭식, 거식, 어떤 식으로든 나는 괴물이 아니다

나는 괴물이 아니다.

나는 죽음을 바라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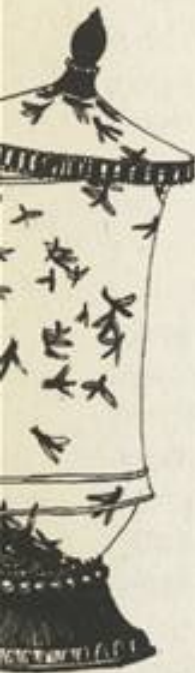
나는 죽음을 향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은 지독한 경련을 일으킬 만큼 자극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그녀를 지배하며, 그래서 자신의 상상 속에서 어떤 종류의 환영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히스테리성 정신착란 증을 보이는 여성은 과거로 되돌아가기도 하고, 미래로 나아가기도 하여 모든 시간대를 그녀의 현재로 만든다. 이 모든 이상한 상념들은 그녀의 성에서 나온 것이다. [...] 황홀감이나 환영, 예언, 계시, 도취경에 빠진 시, 그리고 히스테리, 이러한 것들보다 서로 유사한 것은 없다. [...] 히스테리에 사로잡힌 여성은 지옥의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천상의 기쁨을 누리기도 한다. 때로 나는 소름이 끼치기도 하였다. 나는 그 여성이 자신의 일부인 난폭한 짐승의 분노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았고 소리를 들었다. (Denis Diderot, 「여성에 대하여」, Frankfurt 1981, 174)

내 몸은 무엇에 대해 소화불량 상태가 된 것일까? 버스를 타러 가다가 아침에 먹은 것을 모조리 토해냈을 때 나는 거식(폭식)에 대해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쓸 수 있을까? 어쨌거나 나의 몸은 닥치는 대로 집어 삼키고 뒤집어지고 게워내고 있다. 이러한 비명소리를 간파할 수는 없다.

거식의 「조건」에 대해서 써 본 적은 있다. 배고픔과 유리된 낮, 잠잠한 자취방, 삼시간에 몰려드는 허기에 대해서. 진공청소기처럼 음식물을 흡입하던 내 허와 식도에 대해서. 초코파이 한 통을 해치웠고 처음으로 토했고 식탁엔 아무도 없었던 밤에 대해서. 서문에서 자취방으로 가려면 거쳐야했던 5개의 편의점과 만원어치씩 구입했던 몽셀, 카라멜 마끼아도, 다이제, 갖가지 맛





의 월드콘과 구구콘과 처음으로 토론했을 때 목격한 초콜렛과 유지방 덩어리들에 대해서, 변기를 내려다보면 흡사 악귀나 연체동물 같은 형상들이..... 나는 볼도 켜지 않고 냉장고 문, 찬장 문, 책상 서랍을 차례로 열어젖혔고 씹을 수 있는 것이면 아무것도든 꼬집어내어 삼켰다. 사니 호빵은 차가운 채로 삼켰고 스펀지는 굵지 않고 삼켰다. 버터크림, 글레이즈드 도넛, 금지되었던 음식, 동생이 잠든 시간, 내 방에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내 눈과 동생의 눈과 신촌거리에서 나를 위아래로 훑었던 수천 개의 눈들이 아무기처럼 벽 사방에 펼쳐있는 허공. 위장이 터질 듯이 부풀어 열기구처럼 나를 허공으로 소환했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나는 흡사 결신이나 괴물 같은 형상이었다.

어떤 날은 별 생각 없이 초코칩 봉지를 뜯었다가 연쇄적으로 마치 발작처럼 다른 음식을 마구 집어먹게 된다. 가끔 거식의 의례들은 내 몸을 34-24-34의 숫자와 비하는 모든 체제와도 달랐다. 삼킨 것들을 칼로리로 수치화해보고 하루 권장섭취량인 2000kcal와 비교해보고 초과한 분량만큼 굶거나 다시 죄책감을 극대화시킨다. 거식은 질서정연하게 치러진다. 과자 한 조각을 참지 못했다는 작은 죄책감에서 비롯해서 중국에는 몸을 오도 가도 못하는 비렁글까지 밀고나간다.

“내가 폭식을 한다고 말하면 <슬피>?”

“너는 어떤데?”

변기를 붙잡고 있으면 머리통이 거꾸로 솟구치는 바람에 얼굴의 모든 구멍에서 액체가 나오는 상태가 발생한다. 구토, 콧물, 눈물, 땀이 견잡을 수 없이 흐른다. 목구멍에 넣었다 뱉다하면 손가락에까지 끈적하고 추접스러운 액체가 묻는다. 젖은 김에 엉엉 울어보기도 한다. 라면 스프나 마쉬멜로우처럼 생명이라곤 없는 식재료가 된 것 같은 느낌이다. 토사물 그 자체가 된 것 같은 느낌이다. 나는 외로웠고 슬픔, 추악함, 공포감, 들켜선 절대로 안 된다는 확신 같은 것을 느껴.

언제부터 거식이 시작되었는지를 반추해보면 그것은 성적존재로의 <인식>과 분명 관련이 있다. 대학에 입학한 일, 연애를 한 일, 내게 여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욕망하는가보다는 무엇에 욕망되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였고 내 몸은 욕망되어지기엔 너무 풍동했다. “예뻐졌네.” “살 빠졌네.” “얼굴 부었네.” 일상적으로 건네는 인사들을 거울을 볼 때마다 얼마나 자주 강렬하게 떠올리는지 상대방은 상상도 못할 것이다. 왜 나는 아름답지 않은가? 왜 나는 사랑받지 않는가? 날씬한 몸, 그래 그것이 문제임은 자명하다. 페미니즘도 거식을 멈추진 못했다. “이대로 누워있자.”고 해도 발가벗은 채로는 견딜 수 없었다.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이 몸을 통제로 응시하거나 긍정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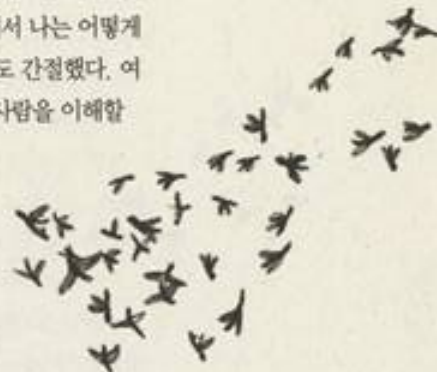
스스로를 독립된 존재로 인지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지배규범은 나의 자화상을 일그러뜨려 놓았다. 나는 누구보다 아름다워지고 싶기도 했고 동시에 절대로 여성이 되고 싶지 않기도 했다. 여성이라는 성적존재가 된다는 것, 그렇게 인지되는 굴곡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몸을 입고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들은 곧 여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고 성폭력적 시선, 성형수술, 남성 동속과 절대 떨어질 수 없었다. 그 사이에서 나는 어떻게든 몸이라는 거대하고 오래된 물체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다. 여성으로서 날씬해지길 바라면서 동시에 몸 자체를 거부하려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가? 세상에는 거울과 쇼윈도와 카메라가 너무 많다. 열등감이나 패배감, 몸을 가졌음을 인지할 때의 부대낌 같은 감정들이 거울에 여과 없이 비춰지고 미니홈피로 인화되곤 했다. 나는 충분히 괴로웠다.

그러나 나의 몸은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는가?

아니다. 어떤 날엔 누구보다 맹렬하게 행하고 있다는 느낌

으로 거식을 한다. 마구 먹어대거나 마구 토해낼 때, 그때만큼 나의 전체가 먹는다는 것에 대해 온전히 몰입하는 경우는 없다. 내가 궁금했던 것들은 오히려 나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었다. 왜 암전하게 점심약속을 잡고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하지? 나는 먹는 모습을 공유하고 싶지가 않다. 나에게 식탁은 때때로 거대한 공포와 같다. 왜 다들 토하지 않지?

모두가 몸에 대해 얘기하고 동시에 먹을 것을 권한다. 내가 보기에 이진 극악무도한 모순이다. 모두들 회식자리에서 대운 것을 먹고 친구와 케이크를 먹으며 수다를 떠다. 기본적인 사회성을 갖추려면 뭐든 먹어야 한다. 최소한 커피라도 마셔야 한다. 반면에 예뻐지려면 먹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간극을 사용하여 위태로운 상품들이 발명된다. 단식원이나 식욕 억제제같은 노골적인 형태가 아니더라도 모두는 언제나 먹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두고 먹을 것을 구매한다. 제로 칼로리 콜라나 다이어트 컵누들 같은 것들은 슈퍼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 물 두 컵을 식사 전에 마시면 적게 먹고도 포만감을 느낀다거나 초콜렛 두 조각을 먹으면 밥맛이 없어진다고 하는 인터넷 지식들에 끊임없이 노출된다. 위를 잘라내어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위우회 수술을 받는 여성들을 보고 모두는 불쌍하다거나 그렇게 까지 해야 할까라며 혀를 차지만 일상적으로 세밀하게 이뤄지는 먹을 것에 대한 통제나 요법들의 용의주도함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다들 무딘가? 모두들 날씬한 몸을 원하지만 먹지 않는 몸을 원하지 않는다. 태생적으로 말랐거나 먹어도 살이 안찌는 체질은 칭송받지만 그 외에 살을 빼기 위해 굶거나 고기를 먹지 않는 여자는 외모지상주의에 포획된 속물이나 내면을 가꾸지 않는 그저 그런 여자가 된다. 모두들 거식중에 걸렸다는 모델의 앙상한 등을 보며 징그럽다고 말하지만 TV만 틀어도 볼 수 있



는 얇은 다리와 신촌 거리에 즐비한 그만큼이나 마른 다리들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이물감을 느끼지 않는가? 왜 이 전쟁터에서 모두들 그렇게도 침착한가?

거식은 그러한 모순을 가장 통렬히 인지한 몸의 비명소리다. 가장 양심적으로 여자 되기를 수행하는 몸이라면 설 새 없이 구역질을 한다는 것이다. 너희가 낯선 몸을 원한다면 내가 그것이 어떻게 불가능한지를 보여주지. 몸은 짐작과는 달리 아무런 저항이나 부대낌 없이 규범에 구겨 넣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몸의 잉여이다.

히스테리가 있다. 히스테리에는 간질이나 발작, 경련, 호흡곤란, 두통, 메스꺼움 같은 신체반응이 큰 것부터 불감증이나 촉각 마비, 실어증, 기억 상실과 같은 신체반응이 작은 것, 그리고 불안정한 전기, 생리불순과 같은 부분적인 증상들이 포함된다. 요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서는 갑작스러운 짜증, 분노의 발작, 과대공포, 예상불가능, 거짓말, 변덕스러운 같은 증상을 히스테리컬하다고 표현한다. 그동안 히스테리의 증상은 변화해 왔지만 히스테리의 환자 노릇을 독식해온 것은 언제나 여성들이었다.

"히스테리아Hysteria"는 그리스어로 자궁을, "히스테리아Hysteria"는 자궁의 이동을 뜻한다. 히포크라테스는 히스테리를 "자궁에 의해 야기되는 질식"이라고 지칭하고 특히 처녀, 과부, 불임여성 등에 발생하며 아주 일반적인 최대의 여성 질병이라고 정의했다.¹⁾ 자궁의 질식이 곧 병 걸린 여성으로 치환되는 그리스 시대의 동식은 건강한 여성은 곧 임신한 어머니로 치환되던 동식의 대우로 성립했다. 기독교에서는 악마퇴치를 골자로 마녀추방 의식을 통해 히스테리를 치료하려 했고, 르네상스 시대에는 히스테리를 자궁이라는 신체 기관의 병으로 진단해 의학수술로 히스테리를 치료하려 했고, 19세기 말 독일에서는 난소를 제거하거나 음핵을 볼로 지저 여성의 성욕을 없애려고도 했고, 프로이트에 와서는 히스테리 치료가 남성 리비도를 여성에게서 태어놓기 위한 정신분석의 영역으로 편입된다.

이 모든 기괴한 의술의 공통점은 히스테리 여성의 몸을 없애려는 시도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정신-몸, 문명-자연, 이성-비이성의 대립항에서 언제나 여성에게 후자의 역할을 내맡기고는, 그와 동시에 남성의 논리적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여성의 몸 언어들을 소거해버리려는 것이다. 사실 그들은 노처녀 히스테리나 주부 히스테리 언어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분류하지만, 히스테리의 특징으로 여겨지는 허영심, 질투심, 신용없음과 같은 항목들은 그동안 여성

을 싸잡아 비하하는 데 사용해진 여성의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특징이라는 것이 성실하게 표출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이 지배적인 몸 규범을 가장 완벽하게 재현할 때, 그것이 히스테리가 된다.

그러므로 히스테리 환자들은 "정상적인" 여성을 재현함으로써 이러한 "정상적인" 상태가 사실은 가장 불합리하다는 것을 직시하도록 만든다. 육체에는 질서정연한 기능이랄 것이 없음을, 육체는 보편적이고 논리적인 언어에 완전히 포획당하지 않음을 사지를 뒤틀며 증명한다. 언어가 여성의 몸에 부여해온 이상적인 몸-이미지를 파기한다. 규범과 법칙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무질서를 조성한다. '히스테리는 논리, 질서, 이성 등이 모두 "인공작품"임을 공표하며 그럼으로써 그것들이 가장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 즉 자명성을 제거한다. 어떠한 여자도 히스테리 환자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여자역할을 연기하지 못한다.'²⁾

나예겐 거식증이 있다. 히스테리가 육체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저항이었다면 거식증은 육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에 가깝다. 여성의 몸에 필연적으로 부과되는 섹슈얼리티나 이미지 같은 것에 포획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침착하고도 냉정하게 스스로의 몸을 유기해버린다. 나는 몸이 없다. 그 몸은 나의 몸이 아니다. 너희가 먹는 몸과 낯선 몸 모두를 원한다면 나는 그 모두를 버려주지. 이것은 규범에 연속적으로 패배하면서도 끝내 그를 따라잡으려는 감정만이 아니다. 불가능한 두 개의 몸을 강요해놓고도 시치미를 떼는 그의 뺨을 후려갈기는 일격 같은 것이다. 놀이동산이 존재하는 이유는 놀이동산 바깥의 세상이 놀이동산임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온 세상이 몸에 대한 광기와 집착으로 가득 차 있음을, 모든 몸이 아주 낮은 소리로 구토하고 있음을, 나의 거식하는 몸은 직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의 몸은 존재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정신과 분리된 몸, 프로젝트화 된 몸으로 구획되기를 맹렬히 뿌리치고 무언가를 끈질기게 발화하고 있다.

몸이 말하게 한다. 몸의 말을 듣는다. 이것은 병리적이거나 추악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몸은 아프면 성실하게 생체기를 내고 열꽃을 피운다. 국가는 전쟁통에 죽은 시체들을 감추려든다. 나의 몸통이는 내 마지막 보루이다. 나는 끝까지 둔감해지지 않을 것이다.

by 매운 카레 먹으러 해화동에 갈 것 파니

1) '히스테리 : 논리, 거짓말, 리비도',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 도서출판 예이전, 2003, 38쪽

2) 같은 책 79쪽

거.울.보.기

A 오늘은 그리스 신화 중 나르시서스 이야기를 들려줄게.

나르시서스는 강의 신 케피소스와 님프 리리오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야. 리리오페는 나르시서스를 낳고 나서 테베의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에게 아들이 오래 살 것인지 물어봤는데, 테이레시아스는 '자기 자신을 모르면 오래 살 것'이라고 대답했대. 나르시서스의 아름다운 용모에 반해서 술한 처녀들과 님프들이 그에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 그런데 어느 날, 나르시서스에게 사랑을 거절당한 이들 가운데 한 명이 그 역시 똑같은 사랑의 고통을 겪게 해 달라고 빌자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가 이를 들어 주었다. 산에서 사냥을 하던 나르시서스는 목이 말라 샘으로 다가갔다가 물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랑하게 되어 한 발짝도 떠나지 못하고 샘만 들여다보다가 결국엔 쓰러져서 죽었대. 아, 샘물에 빠져 죽었던가? 어쨌든 뭐, 죽은 거지.

B ... 정말 나르시서스는 죽어버렸어? 슬프다...

A 응.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오늘의 교훈은, 이런 자아도취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지.

B 진짜? 진짜 그래? 그렇게 알고... 다르게 거울을 볼 수는 없어?

* 아래 채록된 구술사에서 '-'는 말을 길게 늘린 것을, '...'는 잠시 멈추며 망설임이 있거나 말한 것을 의미한다. 이야기 도중 웃음이나 표정 등의 표현 및 부연 설명은 () 안에 넣었다. 채록자의 말이나 웃음, 행동은 이탤릭체로 썼음을 밝힌다.

[전략] 그러니까 그건 어느 여름 수요일 아침이었어요. 모처럼 친구랑 점심 약속이 있었거든요. 친한 친구네 개랑 같이 밥 먹은 적은 별로 없어서 좀 들떠 있었죠. 아, 또 그 날 친구랑 같이 가기로 한 식당이 예전에 잠깐 일했던 곳 근처였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잠깐 둘러려고 딱 계획을 짜놔요. 제가 원래- 먼저 연락해서 밥 약속 잡고 이런 걸 잘 안 해서 그런 바쁜 사교적인 날이 흔치 않은데(웃음)... 여튼 그 날은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난 날이었어요.

입을 웃을 겨우겨우 고르고 나서 딱 거울을 봤는데! 와- 그 날 진짜 한 15분 넘게 거울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 같아요. 괜히 이런저런 표정 지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뭐 머리 손질하다가 아니면 화장하다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거울 속 저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시 정적)

평소에는 입을 웃 고르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때그때 다른데... 평균적으로... 한 10분? 15분? 제가 꾸미는 데 그렇게 공을 많이 들이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입는 거 좋아해요.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패션에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구요-. 자연스럽게 제 스타일을 말해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해요.

그 날도 그렇게 입긴 했는데, 그래도 그 날은 웃 고르는데 한 30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보는 사람도 있어서 좀 신경 쓰이기도 했고, 아, 맞다! 사실 전날 밤 대충 다음날 아침에 입을 웃을 정해놨거든요? 근데 아침에 좀 망기적대다 보니

까- 우리 엄마가 그 옷을 입고 외출해버리신 거예요! (하하) 아, 진짜-. 그래서 입을 웃 다시 고르고 하다 보니 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결국 그날 캐러멜 색 반바지에 속이 좀 비치는 잔잔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었는데요. 입고 나서 제 방 화장대 거울을 딱 봤는데, 오- 괜찮은 거예요! (웃음) (하하) 근데, 그 때 느낌이 진짜 좀... (그녀는 갑자기 진지해졌다.) (15초간 정적)

그 때 느낌이 어땠는데요?

좀... 이상하고 묘-했어요. 내가 거울 속의 나를 보고 있는데...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나' 이면서도 동시에 내가 아닌 타인인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꼭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서스가 된 기분이었어요. 딱... 자아도취. 그 날 제(외적인 모습)가 너무 예쁘고 멋있어 보이는 거 있죠? 으아?부끄러워, 아, 죄송해요. 진짜 부끄럽다. 지금 속으로 '에 뭐야? -...' 이런 생각 드시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들 가끔 자아도취에 빠질 때 있잖아요. 하하!

아우- 그래도 그 날은 좀 달랐어요. 왜냐면- 왜냐면... (좀 작은 목소리로) 그 때 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잠재적인 연애 상대로도 호감이 가는 그런 감정을 느꼈거든요. 만약 밖에서 그런 사람을 봤으면 순간 '아, 좀 내 스타일인데? 좋은 사람일까? 까아~' < 하며 연애 걸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았어요. 이런 거... 너무 좀 이상하지 않아요? (5초간 정적) 제가 소위 "중성적"이라고 하는 외모에 끌리는 편인데- 아, 성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제 머리 스타일이 커트형이잖아요. 그래서... 아, 모르겠다. 여튼 저한테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는데, 부끄럽고 민망해서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봐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하신 거예요? 그... 거울에 비친 자기(여자) 모습을 보면서 마치 타인을 향한 때처럼 연애 감정이 일었다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아, 그럼 너 원래 다른 여자를 보고도 그런 느낌을 느껴?" 라고 할까봐? 원치 않는 커밍아웃으로 이어질까봐 라거나...?

음... 제 주변 사람들 중 어떤 이들에게 그 때의 제 느낌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한 데에는 그 이유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양성애자) 정체성을 알고 또 굳이 "이해"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냥... 부끄럽잖아요. (수줍은 미소)

그리고 일단 그 느낌을 말로 표현하는 거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 때 거울 앞에 선 순간 나와 타인의 경계 자체가 되게 모호해졌고, 거울 속 나를 바라보는 내 시선 속에 '내가 나를 보는 시선'과 '타인이 나를 보는 시선', 그리고 '내가 타인을 보는 시선' 세 개가 다 한꺼번에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전에 친구랑 이야기하는데- 개가 이러더라고요. 앞에 놓인 상을 지금처럼 선명하게 반사하는 거울이 나온 이후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시선으로 우리 몸을 볼 수 있게 된 게 아니라 사실은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의 몸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또, 어떤 연구자들은 우리가 현재 이미지 산업시대에 온통 거울 혹은 다카, 핸드폰 같은 거울의 변형에 둘러싸인 나르시시즘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나르시시즘적인 의미에서 자기 몸을 보는 거랑, 타인의 시선으로 자기 몸을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같은 건가? (이 때 그녀가 말을 잠시 멈춰서 나는 '내가 대답해야 하는 건가' 싶어 순간 긴장했지만, 다행히 그녀는 곧 다시 말을 이어갔다.)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육체자본으로 여기면서 우리의 몸을 외모를 중심으로 기획하고 통제하려 들 때- 내 몸에 대한 '나'의 욕망과 타인이 내 몸에 대해 간섭하는 근거가 되는 욕망, 그러니까... 소위 사회적으로 구성된 욕망을 어떻게 완전히 철저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는 타인의 시선과 나르시시즘적인 시선 이 두 개가 절대로 서로 모순되는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예휴... 이렇게 뒤편부터 몸인데, 거기다가 그 날 아침엔 내가 타인을 보는 듯한 느낌까지 더해졌으니- 그 날 제가 얼마나 멍-했겠어요. 아, 아니다. 멍했다기보다는 묘-했죠. 그 느낌이. 아, 근데 좀 재밌는 게- 그 때 전 제가 제 몸을 타자화하고 있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었어요. 마치 타인을 보는 듯이 끌리는 마음을 가지고 거울 속 제 모습을 보긴 했지만.

네? (나는 그녀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아 다시 물어야 했다.)

음- 그러니까... '타자화'라는 건 자아 혹은 주체가 어떤 '타자'를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그 타자를 배제하고 또 (부정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뭐 그런 과정이잖아요? 이성을 가진 '주체'가 몸을 타자화하고, 자기 몸에 대해서 소유권, 통제권을 주장하고, 막... 몸을 자기 맘대로 기획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성형외과에서 "전작(=성형비용)" 뽑아보고 이런 상황에서 몸/정신 이분법에서 타자화된 몸의 위치에 대해 별 의문이 안 들긴 하는데... 모든 사람이 항상 자기 몸을 타자화하지는 않잖아요. 그 맥락에 따라 다르고... 아, 어쩌다 보니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왜 이야기가 막 이렇게까지 흘렀지? 어쨌거나, 그 날 거울 앞에서 전 설레면서도 편안했어요. 거울 속 나를 '타인'을 보듯이 본 거랑 '타자화하면서' 본 건, 말장난 같지만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전 그냥 그 때... 제 몸이 제 몸을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때 거울을 보고 있던 내 시선엔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시선(내가 나를 보는 시선/ 타인이 나를 보는 시선/ 내가 타인을 보는 시선)이 정말 역설적이게도,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세 가지 빛이 거울 속 내 몸을 관통하는 것 같은? 그리고 또 그 거울에서 반사되어서 거울 앞에 선 내 진짜 몸도 관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세 가지 시선이 뒤죽박죽 모두 공존한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어지럽진 않았어요. 그냥 그렇다고 받아들였거든요. 그냥 그 사실을 내 몸은 조용히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다양한 종류의 시선들이 모두 겹치고 또 만나는 곳. 그게 몸인 것 같아요. 나중에 내 몸이 또 그 날처럼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면... 또 그 땐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겠지만요. (웃음)

구술자 조금 험스러워하면서도 이야기를 잘 해주었던 타라(Tara)/

채록자 조금 부끄러워하면서도 이야기를 잘 들었던 타라(Tara)

거.울.보.기

보.울.기

후기



nakajima rio

끝없는 망설임 속에서도
온전히 시간을 나눌 수
있기를 ● 별

가장 낯것의 글을 꺼내어 놓고 발가벗거
진 몸을 바라봤다. 아직도 몸과 포개어
지지 않는다 해도 뭐 어쩌라 이렇게 낯
것이 되어 보는 것도 오랜만이다. 기쁜
일이다. ● 몽록

사람, 사람, 사람...
말, 몸, 몸의 말, 말의 몸, 말과 몸, 몸과 말, 말-몸,
몸-말...
여성제 회의와 자료집 글 검토는 유독 오래 걸리는
듯하다. 여성제라서 그런 것 같다. 그래도 그걸 기획
단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누군가의 소중
한 공이 바닥에 떨어져서 툭툭 튀어 나가려고 할 때,
무심하고 시크한 표정으로 그냥 보고 넘기지 않을 여
성제 기획단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고마워요^^
여성제를 아무리 잠깐이라 할지라도 어떤 방식으로
든 만나게 될 사람들을 모두가 기대된다. ● 타라

나를 알아볼 수 있다면
불이 터질듯 웃어보세요
● 파니

여성제 준비하느라 너
무 좋았어요~ 셀리가
뽕 만세 ● 셀든

행복한가 물으시면
모르겠습니다.
대신 두통과 침잠과 벵죽거림.
그런 영토에 난 생생히 서있습니다.
그런 생생함이 나를 만듭니다. ● 울무

여름내 참 많이 만나고 많이 느끼고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여름이 거의
다 지나고 이제야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서 좋네요. ● 살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여성제 기획
단. 하지만 알고보니 난 내 삶에서
큰 '사고'를 친 것이었다. 서툰 몸짓
으로 '내 몸'에 다가갔다. 지금 내 삶
은 변했고/변하고 있고/변할 것이다.
그것도 가장 획기적으로. ● 스츠

친구의 글을 읽고 기꺼이
울었다. 그리고 좀 더 살고
싶어졌다. ● 나누기

오랜만에 차가운 새벽을 마주했다. 내가 한 때
중독될 정도로 사랑했던 새벽의 새파란 공기.
새벽의 시간은 나에게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했다. 그런 느낌이었다. 익숙한 타인,
청명한 빛깔, 이질적이나 반가운. 할 말이 많다
는 것을 알았다. 그 말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는 것은 진심으로 기쁜 일이었다. ● 수

기획단과 몸예 관한 세미나를 하고, <몸이 없
어졌다>라는 기초를 정하고, 글을 쓰고, 글을
고치고,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전시물을 만든
다. 기획단과 함께 몸의 축제를 준비하는 시
간. 한 송이 여성제를 파워내기 위해, 여름부
터 기획단은 그렇게 고민했나보다. ● 기린

온 몸으로 만들었어요. 가장 마지막
페이지까지 오면서 여려냈는데들
궁금해져요. 누군가들이 가끔씩 생
각날때마다 펼쳐보아주겠지요. 한번
더 첫 페이지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 송어

아직 상상하게 되고 따뜻한 봄날부터 너무도 하고 싶은
이야기였는데 참여진 이파리가 겨우 여름 날씨 날 때부
터 너무도 쓰고 싶은 이야기였는데 빙 안에서 명실 안에
서 총어실 안에서 써내도 써내도 눈물과 힘으로만 쓰이고
아무 말로도 써낼 수 없는 피겨가된 맘에 남아서- 그 날
밤에는 공기를 한 움큼 먹고 양볼 안쪽에서 갑자기 쏟아
지는 침을 골작골작 삼켜대다가 화단을 붙잡고 허겁지
겁 부글부글 하는 것과 형광색 위액을 토해내었다. 내가 말
하든 내가 말하든- 눈물/힘/피겨/허겁지 겁 부글부글
하는 것/형광색 위액/이든-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었다, 그런, 그래. ● 나무

제 12회 여성제 <몸이 없어졌다> 기획단

파니 사회학과 4학년
송어 불어불문학과 3학년
나누기 사회학과 4학년
스츠 교육학과 2학년
수 교육학과 2학년
별 철학과 3학년
울무 사학과 3학년
나무 간호학과 4학년
살 전기전자 3학년
타라 사회학과 4학년
가온 교육학과 3학년
기린 주거환경 3학년
셀든 수학과 4학년